

1

199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6. 1호

(루게 579)



◇◇◇◇◇◇◇◇◇◇◇◇

## 차 례

◇◇◇◇◇◇◇◇◇◇◇◇

축원의 노래 .....	4
또 한해 힘차게 내달리자.....	5
리별과 상봉 .....	6
새 세기의 노을 .....	20
나는 수령님앞에 서있다 .....	23
혁명적문학작품창작으로 우리 당 강화발전과.....	24
주체혁명위업완성에 이바지하는것은 작가들의 임무 .....	24
유훈과 인민 .....	29
정월초하루에 울린 기적소리 .....	32
서사시의 예술적 감흥과 여운을 두고... ..	34
설날들에 있는 일.....	40
친애하는 지도자 <b>김정일</b> .....	41
귀중한 문학유산으로 빛내주시며.....	42
나의 웨침.....	44
기다리신 마음.....	45
청춘대오 .....	46
합장의 웃음 .....	47
복수자들이 자라나는 땅 .....	55
팽이는 돌고있다 (외1편).....	58
신천아 우리는 너를 떠난다 .....	58
이 땅에 신천이 있다! .....	59
나는 신천의 아들.....	59
당과 혈맥이 통하는 시인이 되자! .....	60

청춘의 기백으로 .....	60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에 맞는.....	61
시대의 명작창작을 힘있게 선도하겠다.....	61
90년대 후반기의 첫자욱을 힘있게!.....	62
현실속에서 90년대 탄부의 성격을!.....	62
어머니의 손 (외1편).....	63
두사람의 대화.....	63
화 원.....	64
목란꽃향기 .....	67
너는 무엇을 속삭이느냐 .....	79
행복을 가꿔가는 사람들 .....	80

# 축원의 노래

한찬보

새해가 밝았습니다  
빛나는 이 아침  
우리 하나같이 경모의 정을 담아  
아버이장군님께  
축원의 노래 드리웁니다

아름다운 내 조국 금수강산에  
새 희망 나래치는 설날을 맞았건만  
어찌하여 명절의 기쁨에 앞서  
한없이 차애론 수령님 모습이  
그리도 못견디게 그리워지는것입니까

이 땅에 흐른 50년세월  
단 하루도 그늘없이 산 인민이기에  
태양을 잃은 어두움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것도 함께 알았습니다  
만경대의 태양그대로인  
백두산의 태양이 찬연히 빛나  
이 땅은 예나 다름없이 밝다는것을

정녕 사회주의 내 조국엔  
솟는 해는 있어도  
지는 해는 없어  
이 땅의 태양은 영원하다는 그 진리도

저 하늘의 해빛을 안고  
이 강산의 꽃은 송이송이 피어나듯  
은혜로운 사랑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이 땅에 생을 두고  
영생의 삶을 꽃피워가는 우리이니

우리엔  
우리의 태양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 태양만 높이 모시면...

장군님과 인민  
가를수 없는 일심단결  
한몸 한뜻인 혼연일체  
이 힘만 있으면 두려울것 없고  
모든 고난 이겨내는 자력갱생 간고분투  
이 신념만 있으면 어떤 원썩도 타승하리니

이 힘 이 신념을 굳혀주시는  
희세의 경장을 진두에 모셨기에  
이해에도  
대지엔 행복의 열매 알알이 무르익고  
막장엔 검은 금, 희보석이 쏟아져나오고  
바다엔 만선의 자랑 넘쳐나리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해에는 진정  
통일을 막아나선 장벽이 무너져  
평화 친선의 벗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자주의 문은 누리에 더 넓게 열리게 될것을

하여 장군님 해빛이 넘쳐  
인간존엄의 냇이 굽이치는 이 강산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사는  
그 기쁨이 그대로 웃음으로 되어  
웃음도 많은 나라  
수령복, 인민복을 하나같이 누리는  
그 행복 그대로 노래로 되어  
노래도 많은 나라로  
그 이름 만방에 높이도 떨치리니

이런 영광을 날마다 수놓아갈  
이렇듯 휘황한 새해를 맞은 우리  
너나없이 모두 충신효자로 살  
이 한마음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 또 한해 힘차게 내달리자

석광희

너는 그 환한 얼굴을  
온 누리에 빛내며  
이 땅에 또 찾아오는구나  
새해여  
1996년이여

나도 역시 두팔을 벌려  
기쁜 마음으로 너를 맞노라  
우리에게 고난도 시련도 없지 않았지만  
오히려 용기백배해서  
지난 한해를 장식한 자부에 넘쳐

너는 보리라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걸음걸음 헤쳐온 그 길 위에  
어떤 거창한 기념비들이 일어섰는가를  
1995년에 어떤 큰자욱을 남겼는가를

너도 못내 회한해  
금빛해살을 찬란히 엮어주는  
저 당창건기념탑도  
청류다리와 금룡2동굴도  
평양-묘향산관광도로도  
우리는 건설했다 우리의 힘으로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가슴에 쌓이며 사무칠수록  
흘린 피눈물의 한방울 한방울이  
일어번지는 불길이 되고 힘이 되어  
격류마냥 굵이쳐온 천만의 대오가  
또 한해 새겨놓은 자랑스런 자욱

당창건 50돐을 맞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부강케 하고  
건설의 불바람속에서 역세여져  
모두가 일심단결의 성세로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왔거니

이 세상 그 어델 가도  
우리 인민처럼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는 사람들 없으리  
비록 적들의 도발이 악랄하고  
자연마저 재해를 끼쳤을망정

하기에 새해여  
내 너를 기꺼이 맞이함은  
네가 그 무슨 행운을 가져오리라 믿음이 아니라  
이해에도 스스로가 행복을 창조할  
신심과 포부를 간직하고있기때문이어라

그렇노라  
수령님의 유훈을 역척같이 받드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의 결심대로만 한다면  
세상만사가 문제없음을 확신하노라

그 신념을 안고 이제 365일을  
하루와 같이 이어갈 진군의 길에  
더 모진 광풍이 분다 한들  
시련의 언덕이 막아나선다 한들  
한걸음이라도 드림이 있을것이나

개인 날 흐린 날  
마른 일 곳은 일  
내 정령 가리지 않으리  
만일 산악을 떠옮기라면  
내 작은 어깨도 선뜻 들이밀리

오오  
다시금 조선의 승리로 아로새겨질  
새해 1996년이여  
내 달아오른 심장 식히지 않으리라  
장군님의 엄숙한 명령은 내리였다  
자, 또 한해 힘차게 내달리자!

## 리별과 상봉

백보흠

## 1

깊은 밤, 정적속에서 김혜정은 세점을 치는 벽시계의 종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밤 3시에 기상하는것은 인문학에 박식한 항일혁명력사 전문가이며 과학연구기관의 녀성간부인 그가 대학시절부터 근 40년세월 어김없이 지켜온 생활준칙이고 일종의 섭생이기도 하였다.

혜정은 침실의 창문들을 열고 공기같이를 하면서 밖을 내다보았다. 벌써 려명을 맞을 차비인듯 은하수가 남쪽으로 기울고 동녘하늘에선 금성이 유난스레 반짝이었다. 하지만 어둠은 도리어 짙어지고 삼라만상은 깊은 잠에 푹아떨어지는듯했다. 창밖에서는 소슬한 가을바람소리가 려명전야의 그 무슨 신비로운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혜정은 세면을 하고나서 서재에 들어와 문벽에 걸려있는 대형거울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머리를 비다듬었다. 그의 일과는 늘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날은 스물다섯살 꽃나이에 저세상으로 간 혜성이 어머니의 생신날이어서 거울을 비쳐보며 머리를 비다듬는 그의 얼굴에 사뭇 의미심장한 빛이 어리었다.

보기 좋게 살이 오른 늘씬한 몸매, 인생의 서리가 내리고있는 술진 머리카락, 유순한 인상을 주는 둥그런 얼굴, 몇군데에 희미하게 잡혀진 주름살들...

《참 세월두 빠르지, 내 머리에 벌써 이렇게 흰오리가 많아지다니...》

거울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서 새삼스레 세월의 흐름을 느낀 혜정은 고개를 돌려 맞은편 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나 어린 녀대학생의 손을 잡고 환히 웃으시며 찍은 어버이수령님의 사진이 모셔져있다. 수령님과 다정히 손을 잡고 서있는 사진속의 녀대학생이 바로 39년전의 김혜정이었다. 그 사진틀옆에는 정자체의 붓글로 《달비쳐녀》라고 쓴 긴 족자가 걸려있었다.

《달비쳐녀》는 파란 많은 항일혁명시기에 혁명동지들이 혜정이 어머니에게 붙여준 사랑스러운 별명이었다.

혜정이 어머니는 17살 어린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설 때 칠칠한 머리태를 잘라 달비를 지어놓고 어머니에게 이런 고별편지를 남기었다.

《애지중지 저를 키워주신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이 딸은 비록 어린 몸이오나 나라를 찾고저 어머니의 슬하를 떠나면서 고별인사로 달비를 지어드립니다. 불초한 자식 보고싶을 때이면 저를 보듯이 이 달비를 보

시며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오지 못해도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오래오래 사십시오.》

모녀의 비장한 리별의 사연이 담겨있는 《달비쳐녀》 족자는 혜정이 대학에 입학하는 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친필족자였다.

혜정은 거울속에 비친 자기의 반백의 머리와 어머니의 달비빛으로 쓴 사랑의 족자를 갈마보느라니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던 39년전의 추억이 어제런듯 선명히 떠올랐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저택 련못가에서 사진을 찍으신 다음 저 족자를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지.)

《너희 어머니는 정말 신념이 굳은 녀성이었다. 너의 아버지가 <민생단>의 루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된후에 어머니는 한돌밖에 되지 않는 너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나를 찾아와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다. 그때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어린 딸을 떼버리고온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장군님 저는 우리 혜정이를 장차 력사학자로 키우겠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었다.

그것은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흘러가는 항일혁명력사를 후세에 길이 전하고싶어 한 말이었다. 그후 혜정이 어머니는 용감하게 잘 싸웠는데 어느해 겨울 후방 병원에 있을 때 불의에 달려드는 적들에게 체포되어 사형장에서 장렬하게 희생되었다.》

이날 혜정에게 어머니의 혁명활동정형을 자상히 이야기해주신 수령님께서는 어머니가 바라시던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력사가가 되라고 하시면서 한시간마다 크게 쇠북을 치는 벽시계도 선물로 주시었다.

《이 벽시계를 걸어놓고 공부하거라. 옛날부터 학문을 닦는 사람들이 15세는 <지학>, 30세는 <이립>, 40세는 <불혹>, 50세는 <지천명>이라고 일렀다. 옛날 어느 성인이 열다섯살에 학문에 뜻을 두고 서른살에 학문에서 일가견을 세우고 마흔살에 학문을 도통하여 망설이는바가 없게 되고 쉰살에는 천명까지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한다. 아무튼 이것은 옛사람들도 인생의 구간마다 학문의 리정표를 세웠다는것을 말한다. 혁명가의 딸인 혜정은 그보다 더 높은 학문의 목표를 세워야지. 그래서 정말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천명>의 력사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혜정이?》

수령님께서 혜정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다정히 물으실 때 그는 목이 메여 대답을 올리지 못했지만 마음속

으로는 아버지장군님, 열심히 공부하여 항일혁명력사를  
도통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굳은 맹세를 다지었다.

그때부터 그는 폐종이 석점을 치면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비상한 노력가가 되었다.

(선여덟살인 나는 지금 과연 지천명의 경지에 도달했  
을까? 과거를 통해 미래를 환히 내다볼줄 아는 그런 력사  
가가 되었을까?)

혜정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수령님의 사랑속  
에서 이미 박사가 되고 과학일군이 되었지만 그이의 기  
대에 비하면 너무도 아득한 거리에 있는것이였다.

문득 원탁우에서 울리는 전화신호소리에 혜정은 생각  
에서 깨어났다.

《무슨 전화가 이밤중에?》

혜정은 긴장감을 느끼며 원탁앞으로 다가갔다.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극히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면  
반대로 좋지 못한 불상사와 관계되기가 십상인것이다.

혜정이 송수화기를 들자 인차 교환수의 긴장한 목소리  
가 울리였다.

《력사연구소 부소장동지이십니까?... 준비하십시오. 어  
버이수령님께서 전화하십니다.》

혜정은 흠칫 놀라며 몸가짐을 바로하였다. 이윽고 수화  
기에서 굵고 석싹한 수령님의 목소리가 우렁우렁 진동하  
였다.

《부소장동무요?》

세월이 흘러 이제는 수령님께서 혜정에게 해라, 하거라  
하는 때보다도 하오, 합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시였다.

《그렇습니다. 김혜정입니다. 수령님, 그동안 건강하셨습  
니까?》

걱정으로 하여 혜정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그럼, 나야 늘 건강하지. 집에서는 다 무고한가?》

《수령님, 저희들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있습니다. 그런  
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이젠 건강을 돌보셔  
야 합니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더니 산에서 싸울 때 생  
긴 버릇이 80고령이 된 지금도 고쳐지지 않누만. 세시면  
꼭 일어나게 되거든.》

수령님께서 조금 사이를 두었다가 웃음기를 담으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혜정동무의 기상시간도 새벽 세시지? 그래서 지금쫘  
은 일어났을게다 생각하고 전할 걸었소. 혹시 내가 부소  
장의 새벽시간을 방해하지 않는지 모르겠군... 무얼 하뻤  
소?》

《아무것도 하지 않구 그저 거울앞에 멍하니 서있었습  
니다.》

혜정의 목소리에는 응석이 섞여있었다.

《멍하니 서있었다? 무슨 생각이 많은 모양이구만. 오늘  
이 어머니의 생신날이 돼서 그런가?》

《수령님!》

혜정은 불현듯 목이 메이며 두눈이 축축하게 젖어들었  
다. 어머니의 생일을 아직도 잊지 않고 상기하시는 수령  
님의 은정이 놀랍기도 하였다.

웬일인지 오래도록 수화기가 잠잠하였다.

(내가 수령님의 마음을 어둡게 해드린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 혜정은 급히 밝은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였다.

《수령님, 무슨 큰 생각이 있거나 근심이 있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오늘 아무때이건 가족들을 데리고 렬사릉에 가서 어  
머님께 인사도 드리고 자식들에겐 할머니처럼 혁명에 충  
실하라고 좋은 말들을 해주시요.》

《수령님, 알겠습니다.》

혜정의 눈굽에 고여있던 눈물이 드디어 량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리였다.

《그건 그렇고, 부소장동무와 한가지 토의할 문제가 생  
겨서 그러는데 언제 시간을 낼수 있겠소?》

《제일 바쁘신분이 수령님이신데 수령님께서 시간을 정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때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열시에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할것은 무엇인지...》

혜정은 토의하게 될 내용이 벌써부터 궁금하여 그렇게  
문의하였다.

《뭐 특별히 준비할게 없소. 회고록 4권에 <전우들은 북  
으로, 나는 남으로>라는 절이 있지? 우즈베키스탄의 파슈  
겐트에서 사는 조선로인 한분이 그 글을 읽고 아주 심각  
한 문제를 제기하고있소. 그래 그걸 동무하고 토의하고싶  
어 그러오.》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문젠 제기했습니까?》

혜정은 사회주의가 다 망해버리고 황토먼지가 날리고  
있는 어지러운 땅에서 혹시 어떤 정신빠진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고있지 않는가싶어 부지중 목소리를 높였다.

《허허허, 왜 그렇게 소릴 지르나? 성낼 일이 아니야.  
여기서 그 문젠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길어지겠는데 아침  
에 만나서 합시다. 자, 이젠 전화를 끊겠소.》

수화기에서 절박하는 소리가 나더니 귀가에서 울리던  
수령님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득히 사라졌다. 혜정은 돌연  
주변의 모든것이 공허해지는듯 마음이 허전해져서 오래  
도록 물끄러미 수화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러나 이제 미구에 수령님을 몸가까이 뵈게 된다는  
새로운 의식이 찾아들자 견잡을수 없이 가슴이 설레였다.

혜정은 책장에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4  
권을 찾아들고 《전우들은 북으로, 나는 남으로》의 절을  
펼치였다. 이것은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조선혁명의 전환

기가 마련되던 1936년 이른 봄 북만에서 벌어진 항일투사들의 눈물겨운 리별을 회고하신 글이었다.

수령님께서 혁명앞에 새로운 장이 열릴 때마다 고통스러운 리별이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회상하시었다.

남호두회의에서 백두산지구진출의 대경륜을 펼치던 1936년 봄에는 일제의 쏘만국경도발에 대처하여 북만 유격부대를 강화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고있었다. 그래서 수령님께서 애지중지 키워낸 대원들을 거의 다 북만부대에 떼주고 적은 인원을 인솔하여 호젓이 백두산지구로 남행하시었는데 이 리별이야말로 수령님의 일촌간장을 다 녹여내는 쓰라린 리별이었다. 그것은 북만부대에 떨어지는 대원들과 쏘련으로 후송되는 로약자, 부상자들이 수령님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울며불며 야단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수령님의 가슴을 제일 아프게 한것은 아홉살나는 량귀동녀라는 어린 소녀와의 리별이었다. 그는 라자구에서 전사한 왕청유격대 대대장 량성룡의 딸이었는데 그 어린것도 쏘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는 줄곧 울었다. 그제 애처로와 수령님께서 헤어지기전 며칠동안은 내내 그애를 데리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한자리에서 잤다고 하시면서 부모도 없는 그 어린것을 이국에서 또 이국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생각되었다고 회상하시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 이제 량귀동녀가 쏘련으로 가게 되면 착취도 압박도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가 어른이 되면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와서 혁명을 하게 되리라는 희망과 위안을 가지시였었다. 그런데 그때에 떠나간 귀동녀는 근 60년 세월이 흘러간 오늘까지도 수령님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있다. 수령님께서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행처를 전혀 모르신채 눈물겨운 심경으로 《전우들은 북으로, 나는 남으로》를 쓰시었다.

혜정이 자신도 지난 기간 력사연구사업을 하면서 수령님의 지시를 받고 귀동녀를 찾으려 여러번 해외를 다니였었다.

(이 눈물겨운 리별의 이야기에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혜정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짐작이 가지 않았다.

## 2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무실에서 외교부의 한 일군과 담화를 하시다가 김혜정을 맞아주시었다.

푸른색 비로도치마저고리를 입은 혜정이 수령님의 집무탁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고

맙소... 혜정의 머리에도 흰오리가 많아졌구만. 래후년이면 예순이지?》 하시며 추연한 안광으로 혜정의 머리를 지켜보시었다. 그러시는 수령님의 얼굴과 목소리에 파로의 흔적이 력연하였다. 입술이 부르트고 목소리가 전에없이 더 갈리였으며 안경밑에서 그윽히 빛나는 눈은 충혈되어있었다.

《수령님께서 너무 무리하시는것 같습니다. 입술이 다 부르트시고...》

혜정은 피로운 심정으로 수령님의 안색을 살피며 말끝을 흐리었다.

《요즘 손님들을 많이 만나다보니 입술이 좀 부르렸소. 그러나 몸은 이렇게 건강하니 일없소.》

수령님께서 책상우에 놓여있는 문건들을 간중그리시었다. 그쪽에 눈길을 주던 혜정은 16절규격의 하얀 모조지뚜껑에 《조선의 어진 국부이시며 천명의 성인이신 **김일성** 주석님께 망배하면서 삼가 이 글월을 올립니다》라고 큼직큼직하게 한문을 섞어서 쓴 글을 띠여보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제 바로 우즈베크에 있는 조선로인이 써보낸 편지라고 짐작되었던것이다. 모조지뚜껑밑에 여러장의 종이가 깔려있는것으로 보아 그 로인이 아주 장문의 편지를 보낸것 같았다.

이때 젊은 부관이 들어와서 《수령님, 떠날 준비가 다 땀습니다.》 하고 보고를 올리었다.

수령님께서 시계를 들여다보시고 외교부일군에게 고개를 돌리시었다.

《그럼 동문 가보시오. 아까 말한대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대사관 령사관들에 지시하시오.》

《수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일군은 군인처럼 절도있게 두발을 모아붙이고 작별인사를 드리었다.

혜정은 수령님과 외교부일군사이에 오고간 뜻을 알수 없는 그 짧은 대화도 어쩐지 우즈베크스판에서 온 조선로인의 편지와 관련되어있는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부소장동문 나하고 같이 바람도 쉴겸 대성산으로 갑시다. 대성산으로 가면서 제기된 문제를 토의합시다.》

수령님께서 출입문쪽으로 걸어가며 말씀하시었다. 혜정은 좀 어리둥절한채 수령님을 따라나섰다.

얼마후 승용차는 대성산으로 가는 포장도로를 시원스럽게 달리었다.

앞좌석에는 부관이 타고 수령님께서 뒤좌석에 혜정과 나란히 앉으시었다.

차창밖으로 가로수들이 흘러가고 그너머 푸른 하늘에서 기러기가 줄지어 날아갔다. 마가울의 산밭들은 푸르고 붉고 누런 혼잡색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채로운 운치를 돋구었다.

수령님을 모시고 한자리에 앉은 혜정은 사뭇 감격스러



우면서도 여러가지 의문으로 하여 긴장되어 있었다.

《혜정동무가 그전에 중앙아시아쪽을 여러번 다녀보았지?》

묵묵히 차창밖을 내다보시던 수령님께서 문득 물으시었다.

《그렇습니다.》

혜정은 수령님의 교시를 받고 네차례에 걸쳐 까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아 등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았었다.

《쏘련,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는 우리 민족의 근대력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요. 그래서 내가 근대력사를 전문하는 혜정이를 이 나라들에 자주 가보게 했지. 지금 이 나라들에 해외동포들이 많은것도 우리 민족의 망국력사와 깊이 관계되어있소.》

이렇게 말씀을 폐시는 수령님의 안색은 저으기 흐려있었다.

혜정은 어쩐지 가슴이 저리었다. 곡절많은 근대 민족력사의 수난을 체험하고 감수하는 과정에 수령님의 머리가 저렇게 희어졌는지도 모른다. 오늘까지도 미국과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있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희롱하고 있는가.

혜정은 민족적의분을 느끼며 부지중 긴 숨을 내쉬었다.

《혜정이가 그전에 중앙아시아쪽에 다닐 때 량귀동녀를 찾느라 수고를 많이 했지.》

수령님의 의외로운 말씀에 혜정은 흠칫 고개를 쳐들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머리속에서는 《전우들은 북으로, 나는 남으로》에서 제기된 문제가 바로 량귀동녀가 아닌가 하는 예감이 불꽃처럼 튀겨올랐다.

《오늘의 해외동포들속에는 귀동녀와 같은 혁명가, 애국자들의 후손들, 유가족들이 많소. 오늘의 해외동포들은 그전날 누구보다도 조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독립운동자들의 후손들이요. 물론 그 중에는 조국에 죄를 짓고 도망쳐간 민족반역자와 역적의 자손들도 없지 않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잘 교양하고 일깨워서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국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하오.》

이렇게 말씀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조금 동안을 두었다가 혜정에게 물으시었다.

《혜정이가 나한테 과업을 받고 량귀동녀를 찾기 시작한것이 언제부터였더라?》

《1962년 5월입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저를 중앙아시아 지구에 답사를 보내면서 량귀동녀를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옳아, 60년대초였소... 그게 벌써 30여년전 일로구만.》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뇌이시었다. 그이께서는 그때 대학을 갓 졸업한 혜정에게 조선의 근대

력사, 특히 해외독립운동을 깊이 파악하려면 재소동포들이 집중되어있는 중앙아시아지역에도 꼭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곳을 답사하도록 배려해주시었다.

중앙아시아에 조선동포들이 많이 군집되어있는것도 우리 민족의 망국사, 이 나라의 피어린 해외독립운동사와 깊은 인연을 두고있는것이다.

1937년 가을에 쏘련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원동지방에 있던 조선독립군들과 망명객들이 모두 멀고먼 사막의 땅 중앙아시아지구로 집단이주하게 된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연해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모래바람 부는 그 황막한 천리광야에 줄지어 늘어선 수십만 조선동포들의 이동대렬은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 고달픈 대렬속에는 1936년 봄에 청구자밀영에서 수령님과 가슴아픈 리별을 한 량귀동녀도 있었을것이다. 이 《민족대이동》의 비극적인 사변도 왜놈들때문에 빚어진것이었다.

1930년대 중반기부터 일제는 조선의 반일독립군들이 연해주지방에 주둔해있다는것을 구실로 삼아 쏘만국경지대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였으므로 쏘련정부는 부득불 국가안정을 위해 원동지구에 있는 조선인들을 모두 중앙아시아지구로 이주시키는 강제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 조치가 얼마나 단호하고 무차별적이었던지 독립군의 명장 홍범도장군도 레외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까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아, 따쭈크 등 중앙아시아지구에 조선인들이 집결되게 되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때 30여년전 봄에, 신진력사가로서 중앙아시아지구로 첫 답사를 떠나는 혜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까자흐스탄의 크첵오르다시에 가면 홍범도장군의 묘소도 볼수 있을게다. 홍범도장군이 그 도시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아무튼 중앙아시아에 있는 조선로인들과 이야기해보면 우리 민족의 근대력사의 수난을 더 깊이 실감할수 있고 인물된 반일애국자들과 혁명가들도 많이 발굴할수 있을게다. 인물된 혁명가, 애국자들, 그들의 후손과 유가족들을 찾아내는것은 항일력사전문가들의 중요한 본분의 하나이다.》

그러시며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전에 쏘련으로 들어간 이후 아직까지 생사여부를 모르고있는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가유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주시었는데 그 명단속에 량귀동녀의 이름도 있었다.

혜정은 그때 중앙아시아권력의 첫 공정으로 까자흐스탄의 크첵오르다시에 있는 홍범도장군의 묘소를 찾아 추모의 꽃다발을 드리고 경건히 묵상하였다.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과 까자흐스탄의 여러곳에 널려있는 항일혁명가

들과 독립군들을 찾아다니며 해외독립운동의 실패들을 듣고 취재하였다. 그 과정에 인물되어있던 혁명가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을 많이 찾아내어 더러는 조선으로 데려나왔으나 량귀동녀의 행처는 알아내지 못하였다.

혜정은 그후 1970년대초와 70년대말에도 중앙아시아지역을 답사하면서 량귀동녀를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행적을 알아낼 길이 없었다.

그는 량귀동녀를 이 세상에 없는 녀자로 단정하였다. 그가 살아있다면 벌써 수령님을 찾아 조국으로 돌아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혜정은 세번째로 중앙아시아지구를 답사하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량귀동녀의 《사망설》을 내놓았다.

혜정이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지구를 답사한것은 1980년대말, 사회주의붕괴의 불길한 징조가 쏘련땅에 비끼고 있던 어수선한 시기였다. 그때는 4개월남짓한 오랜 기간을 두고 중국 연변지구로부터 연해주를 거쳐 중앙아시아 지구까지 몇만리의 멀고도 험한 로정을 편답하였다. 그가 것처럼 먼 편력을 하게 된것은 수년전부터 홍범도장군의 사망설을 놓고 세상에 피이한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혹자는 홍범도장군이 까자흐스탄의 크첵오르다시에서 사망하였다고 하고 혹자는 그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중국의 연길현 화전자 수풍동에서 사망하였다는 것이었다. 혜정을 비롯한 여러 사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드는것은 그 두곳에 다 홍범도장군의 묘소가 있는 사실이었다.

조선독립운동사에 괄목할 기록을 남긴 홍범도장군에게 두장의 묘소, 두개의 묘비가 몇만리 떨어진 두 나라 땅에 존재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피이한 변고인가.

수령님께서는 그와 같은 피변이 생겨났을 때에도 혜정을 가까이 부르시여 이 문제를 해명하는것은 홍범도장군에 대한 인물평가를 정확히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과 관련되므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이 사람이니 만큼 역사연구에서도 인물평가, 사람문제를 가장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며 이 기회에 홍범도장군의 《사망설》뿐 아니라 량귀동녀의 《사망설》도 정확히 정립하라고 하시였다.

혜정은 수령님의 이 간곡한 당부들 통해서도 그이께서 량귀동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잊지 못해 하시는가를 알수 있었다. 하지만 혜정은 그때 홍범도장군의 《사망설》은 명백히 정립하고 귀국하였으나(중국 연변지구에 있는 홍범도묘소는 가짜였다.) 량귀동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낸것이 없었다. 까자흐스탄에서 따취크까지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땅을 누비며 다니였지만 그 어디에도 량귀동녀를 알고있는 사람이 없었다.

홍범도에 비하면 그는 너무도 이름이 없는 녀성이였다. 실로 그는 무주고혼이 되고말았다고 혜정은 생각하였다.

이것도 벌써 근 10년전의 옛일로 되었다...

승용차는 어느덧 대성산 주작봉을 가까이하고 달리였다.

수령님께서는 량귀동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였다. 《혜정이가 중앙아시아에 다닐 때 그곳에는 귀동녀라는 이름을 알고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중에는 없었습니다... 량귀동녀문제가 제기됐습니까?》

혜정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앞질러 물었다.

《그렇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조선로인이 회고록을 보고 나한테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는 량귀동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했소.》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그가 어디에 있답니까?》

혜정은 깜짝 놀라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다가 차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였다.

《아직 정확한 행처는 모르고 귀동녀가 살아있다는 소문만 떠돈다고 하오. 처음엔 까자흐스탄의 흐레슴주 구를렌구역 어느 궁벽한 사막촌에 귀동녀가 살고있다는 소문이 떠돌더니 얼마후엔 악쭈빈스크에, 또 그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라는곳에서 풍문이 떠돌았다는거요.》

혜정은 어리둥절해졌다. 량귀동녀가 살고있다는 곳이 어찌면 그렇게도 많은것인가.

혜정은 문득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학자들에게 논란을 일으켰던 가짜홍범도묘소사건이 련상되였다. 기실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유명한 력사적 인물들이나 인기인물들을 놓고 그와 같은 피이한 험잡사건, 터무니없는 랑설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드문한것이다.

그러고보면 수령님의 회고록으로 하여 량귀동녀는 벌써 유명한 인기인물이 된것이 아닌가.

《수령님, 귀동녀에 대한 그곳 동포들의 관심이 대단한것 같습니다.》

《그런가보요. 인민들이 모두 관심을 하니 귀동녀를 찾을수 있을것 같소... 페르가나와 악쭈빈스크에 귀동녀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알아보니 거기에는 없다고 하오. 아직 알아보지 못한것은 까자흐스탄의 흐레슴주 구를렌구역이요.》

그전에 혜정동문 흐레슴주 구를렌구역에 가보았소?》

혜정은 가슴이 뜨끔하도록 랑심의 가책을 느끼였다. 흐레슴주 구를렌구역은 광막한 대사막을 지나야만 하는 까자흐스탄의 먼 사막촌이였다. 그곳에도 조선이주민들이 살고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교통이 불편한 그 먼 사막촌에 귀동녀가 있을것 같지 않아 가보기를 단념했었다. 그런데 혜정이 가보지 않은 바로 그 빈구석에서 귀동녀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있는것이였다.

《수령님, 제가 구를렌구역엔 가보지 못했습니다. 수령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제가 당장 가보겠습니다.》

《고맙소. 나는 동무하고 바로 그걸 토의하자고 했소.》

동무가 가든 누가 가든 풍문이 떠도는곳에는 다 가보아야겠소. 내 의견도 동무가 가보았으면 하오.»

수령님께서는 까자흐스탄의 먼 사막촌을 그려보시는듯 오래도록 차창밖에 눈길을 주시었다.

가을이 끝난 무연한 농장벌 저편에 대성산의 주봉인 장수봉이며 그 좌우로 뻗어간 련련한 산발들이 바라보이였다.

《그런데 혜정이 이것 보우.》 창밖에 눈길을 주시던 수령님께서 혜정이쪽에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시였다.

《랑귀동녀가 살아있었다면 왜 60년 세월이 지나도록 우리한테 소식 한번 전하지 않았을가?》

지금 혜정에게도 그것이 수수께끼였다.

(혹시 랑귀동녀가 지금 정말 흐레습주 구를렌이라는 그 먼 사막촌에서 살고있는것이 아닐가? 조국에 올수도 없고 편지도 할수 없는 그 어떤 사연이 있는것이 아닐가?)

이런 생각이 들자 문득 혜정의 머리에 《전우들은 북으로, 나는 남으로》의 한구절이 의미깊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도 〈민생단〉 모자를 쓰고 마음고생으로 시들어가던 옛 대대장의 딸 랑귀동녀를 이따금씩 눈앞에 그려보군한다.》

귀동녀의 아버지도 혜정이 아버지처럼 《민생단》의 루명을 쓰고 사형언도까지 받았다가 수령님의 보증으로 살아난 사람이였다.

《민생단》과 같은 그 어떤 정치적불신의 딱지가 지긋게도 쓰련에까지 따라와서 랑귀동녀를 괴롭혔는지 모른다. 그때문에 이 녀자가 흐레습주 구를렌구역의 어느 궁벽한 사막촌에 추방되어 세상과 격리된 고독한 《류형》생활을 해온것은 아닌지?

불시에 일어나는 이 억측에 가까운 생각은 혜정의 온몸에 소름이 끼치게 하였다.

《부소장동무!》

혜정은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번거로운 생각에서 깨어났다.

《글쎄 생각해보우. 자기 아버지가 조국을 찾겠다고 목숨까지 바치며 싸웠는데… 그리도 조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였는데 왜 귀동녀는 일껏 찾아 놓은 조국에 오지도 않고 소식조차 전하지 않았는가말이요? 그의 행적을 찾기가 왜 이렇게도 힘든가?》

《수령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모든걸 명백히 알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래일이라도 당장 까자흐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래일?... 하긴 날이 더 추워지기전에 비행기를 타고 가보시오. 동무가 다섯번째는 사회주의가 망해버린 중앙아시아로 가는구만.》

수령님께서는 무거운 안색을 지으며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시였다.

승용차는 대통로를 지나 굽이길을 돌아서 혁명렬사릉 왼쪽 차도에 멎어섰다.

부관이 차문을 열어드리였다. 수령님께서는 차밖으로 나오시자 실눈을 지으시더니 주작봉마루에 줄지어있는 백여명의 혁명렬사들을 종횡으로 시선을 옮겨가며 바라보시였다.

사람들이 고고성을 울리며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은 모두 한가지이지만 한생을 끝내고 떠나가는 방식과 모양은 천태만상이다.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굴하게 수치스러운 몰골로 죽는 사람이 있고 값높이 자랑스럽게 한생을 마치는이가 있는가 하면 값없이 개죽음을 하는자도 있다. 젊어서 죽는 사람, 늙어서 죽는 사람, 인가없는 깊은 산에서 무주고혼이 된 사람, 따뜻한 구들에서 혈육들의 손에 눈을 감기운 사람...

주작봉에 있는 렬사들은 가장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였다.

그래서 렬사릉 헌시비의 첫구절에 《떠나간 나이와 고장은 달랐어도 돌아와 안긴 품은 하나인 대성산렬사릉》이라고 새겨놓았을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여전히 먼발치에 서서 군복차림에 중발머리를 한 스물다섯살 녀전사 혜정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시였다.

《혜정도 어렸을 때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부모님들이 지금 혜정을 놓고는 별로 섭섭히 생각지 않을거요. 어머니의 소원대로 력사학자까지 됐으니까...》

수령님께서는 혜정이 어머니보다 한단 아래에 있는 량성룡의 반신상쪽으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그러나 저 량성룡동무는 몹시 섭섭해할거요. 그는 여기서 렬사릉을 찾아오는 국내외의 수백수천만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직 자기 딸의 얼굴은 한번도 못보았거든.》

《수령님, 그동안 귀동녀를 찾는 일에서 저의 성의가 부족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는 혜정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아니야, 혜정인들 어찌하겠소... 귀동녀한테 그 무슨 곡절이 있는게 분명해... 자 그럼 어머니한테 가보지.》

수령님께서는 부관에게서 하얀 목란꽃 한송이를 받아 들고 걸음을 옮기시였다.

《수령님, 제 먼저 량성룡동지한테 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혜정이 생각이 그렇다면 량동무한테 먼저 가지. ...저녁에도 가족들을 데리고 꼭 여길 와 보라구.》

수령님께서는 설광처럼 해빛이 반사되는 하얀 화강석계단을 밟으며 량성룡의 반신상이 있는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시였다.

그 며칠후 혜정은 비행기를 타고 광막한 크첵꿈대사막을 지나 흐레습주 구를렌구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곳

에는 1937년 가을에 원동 한카이 지방에서부터 이주해온 조선인들이 집결되어있을뿐 량귀동녀가 있다는것은 뜬 소문이었다.

혜정은 그후 크첼오르다시, 악쭈빈스크, 파슈겐트 페르가나 등 량귀동녀에 대한 풍문이 돌고있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보았으나 그의 행처를 알아낼 수 없었다.

혜정은 설명절벽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석달후에 혜정은 이미 련계를 가지고있던 중앙아시아의 령사관청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문을 받았다.

알마아떠시 제6구역 45-A번지에 량귀동녀가 나타났음. 그러나 그가 진짜 량성룡의 딸인지는 확정할수 없음. 그에게 어릴적 사진이 있으므로 급히 확인해주기 요함.

혜정은 그 무슨 신비로운 기적을 보는듯 전보문을 서너차례 곱씹어 읽었다.

알마아떠시에 나타난 이 녀인이 과연 수십년 세월 그리도 애타게 찾아온 량귀동녀가 옳단 말인가. 궁벽한 사막촌도 아닌 까자흐스탄의 수도이며 대도시인 알마아떠시에서 살고있는 그를 찾아내기가 왜 그렇게도 어려웠는지 알수 없었다.

혜정은 많은 의문이 담겨있는 이 기이한 소식을 곧 수령님께 보고를 올렸다.

### 3

새벽 4시경, 광복거리 대통로로 승용차 한대가 조용히 미끄러져가고있었다. 마치도 주민들의 달콤한 새벽잠을 깨울가봐 저어하듯이 승용차는 발동소리도 낮추고 천천히 움직이었다.

수령님께서는 어쩐지 이 새벽엔 사연많은 고향길을 가보고싶어 광복거리로 나오시었다.

아직은 미명의 새벽이지만 황금빛 만월이 마치 장명등처럼 하늘에 걸려있어 신록이 짙어가는 공원숲이며 거리 량기슭에 기암절벽처럼 아스라하게 솟은 여러 모양의 고층건물들이 차창밖으로 환하게 내다보이었다.

멀리 흘러간 유년시절부터 너무도 많이 다니신 땅이었다. 나라없던 시절에는 만경대 고향집과 가까이 통해있는 이 길에 억새풀과 진창밭이 확대받는 민족의 화상처럼 고달픈 모양으로 늘어져있었다.

지긋지긋한 그 세월에 슬픔이 고여있던 진창밭과 풀숲이 이제는 수도의 번화가로 전변되었으니 조국은 참으로 먼 길을 빠르게 내달리었다.

수령님께서는 억새풀이 무성했던 과거의 그 습지길과 오늘의 대통로사이에는 50년이나 60년이 아니라 수백년의 세월이 가로놓인듯한 격세지감을 느끼시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흘러간 어린 시절이 어제일처럼 추억되고 항일대전의 나날 만리타향에서 사향가를 부르며 고향산천을 그리워하시던 일도 먼 과거사로 느껴지지 않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차창밖에 시선을 주신채 부판에게 말씀하시었다.

《왕청에 있을 때 량성룡동문 독립이 되면 만경대에 와서 살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그래서 어린 귀동녀도 가끔 날보고 만경대로 가자고 조르곤 했지.》

이 새벽 수령님께서는 모든 추억들이 량성룡이네 부녀와 련결되어 떠오르시었다.

이제 몇시간만 지나면 령사관청년이 멀고 먼 알마아떠시에서 가지고온 귀동녀의 어릴적 사진을 보시게 된다는 생각이 잠시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시었다. 그것은 수령님의 가슴에 커다란 기쁨의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엷은 불안의 안개를 피워올리기도 하였다. 혹시 그 알마아떠시의 녀인이 량성룡의 딸이 아니면 어찌겠는가 하는 반신반의의 생각이 수령님의 심경을 그렇듯 번거롭게 해드리는것이였다.

승용차는 수도의 새벽거리들을 순회하고 금수산의사당 가까이에 이르렀다.

정화된 새벽공기로 말끔히 미역을 감은듯한 가로수들이 수령님을 반기듯이 밤바람에 푸른 잎새들을 흔들며 하얗게 설레이었다.

수령님께서 시계를 들여다보시었다.

《오, 벌써 5시가 돼오는군.》

얼마후 집무실로 들어가신 수령님께서는 두어시간 회고록을 쓰시었다. 그동안에 날이 밝아서 창밖이 환해졌다. 그이께서는 일력을 번지고 창문가로 걸어가시었다.

1994년, 이해의 봄에는 유난스레도 꽃들이 만발하고 나무잎이 푸르렀으며 사람들은 희망에 넘쳐 활기를 띠었다.

《좋은 봄이로군. 오늘 사진이나 보고는 인차 귀동녀를 불러다 조국의 봄을 보게 해야지.》

수령님께서는 예순일곱살에 처음으로 조국땅을 밟아보게 될 이국태생의 늙은이, 량귀동녀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시었다. 하지만 그이의 눈앞에는 일흔살을 앞둔 할머니가 아니라 여전히 아홉살의 천진란만한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침 8시가 되자 수령님의 집무실에 련달아 전화가 오고 책임서기가 분주히 드나들었다.

수령님께서는 5분이 머다하게 농업부문, 광업부문, 금속공업부문, 무역부문 등 여러 부문들의 책임일군들을 번

갈아 전화로 부르시어 새로운 사업을 포치하고 걸린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으며 책임서기가 가지고 들어오는 수많은 문건들을 일일이 보시고 비준하시였다.

80고령에 그와 같은 정력을 가지고 것처럼 많은 일을 하신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정각 10시에 책임부관이 들어서자 비로소 수령님께서는 집무탁을 짚고 일어나시였다.

《귀동녀의 사진이 왔소?》

《예, 지금 력사연구소 부소장동무랑 사진을 가지고와서 기다리고들 있습니다.》

《그럼 갑시다.》

집무실을 나오신 수령님께서는 책임부관이 안내 해드리는 응접실로 들어가시였다. 기다란 응접탁을 마주하고 앉았던 김혜정과 력사관청년 그리고 까자흐스탄에서 사업하고있는 대외부문 책임일군이 일시에 일어나서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앉소 앉으시오.》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후리후리한 키에 이마가 흰칠한 미모의 젊은이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이 동무가 귀동녀를 찾아낸 력사관동무인가?》

《그렇습니다.》

얼굴색이 붉고 몸이 부엌부엌한 대외일군이 자랑기가 실린 목소리로 크게 대답하였다.

《수고했소. 동무가 정말 큰일을 했소. 젊었을 때 같은 동무를 목마에 태워 한바퀴 돌겠는데 이제 그럴 힘이 없구만...아무튼 동무가 내 한가지 시름을 덜어주었소.》

《수령님, 아직은 좀... 진짜 랑귀동녀인지...년령도 틀리고...여러가지로...》

력사관청년은 감격하고 긴장하여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른채 두서없이 떠듬거리였다.

《앉소. 앉아서 이야기하자구.... 그리고 어서 사진을 내놓소. 봅시다.》

수령님께서 접견자들을 의자에 앉히신 다음 혜정이 내놓은 갓난애기 손바닥만한 사진을 들여다 보시였다. 세월과 더불어 누렇게 절어든 사진속에 여라문살 되어보이는 사내애와 계집애가 나란히 서있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약간 벌린채 단발머리를 가웃하고있는 소녀, 그는 틀림없이 랑귀동녀였다.

그이께서는 전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순간에 직감하싣듯 크게 웨치시였다.

《웁소, 랑귀동녀요. 옆에 서있는 사내애는 랑해룡이고...귀동녀와 먼 친척별이 되는 애이지.》

《웁습니다. 귀동녀어머니도 그 사내애가 랑해룡이라고 했습니다.》

긴장으로 하여 한껏 굳어져있던 력사관청년이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중 환성을 터뜨리였다.

그 순간 혜정도 수령님의 비상한 기억력에 탄성을 올리였다. 그는 수령님을 뵈기전에 먼저 귀동녀를 잘 알고있는 몇명의 항일투사들을 찾아가서 사진을 보이며 확인해보았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머리를 기웃거리며 사진에 찍혀있는 애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하기는 50여년전에 헤어진 소녀의 얼굴을 퇴색된 낡은 사진을 보고 알아낸다는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그래서 혜정은 은근히 걱정을 하고있었는데 뜻밖에도 수령님께서는 랑귀동녀뿐아니라 랑해룡이까지도 순간에 알아보시는것이였다.

《이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오.》

수령님께서 약간 흥분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1933년 여름이였소. 유격대가 전장으로 나간 사이에 왜놈들이 소왕청마을에 대 <토벌>을 들이대서 마을사람들이 몽땅 죽고 이 귀동녀와 해룡이란 살아남았소. 어떻게 되어 이 두 아이만 살아남았는고 하면 귀동녀는 집앞에 있는 구새통속에 들어가 숨어있은 덕에 살아나고 해룡이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있었기때문에 놈들이 죽은 아이인줄 알고 그냥 가버렸소. 말그대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

이렇게 살아난 아이들이여서 그이께서는 더욱 잊을수 없으시였다. 그 어린이들의 얼굴에 박혀있는 한점의 김, 입모습, 눈빛까지도 그이의 뇌리에 깊이 인찍혀있는것이다. 해룡이는 37년 가을 중앙아시아에로의 《민족대이동》시기에 이국의 허허광야를 지나는 고달픈 려정에서 병사하였다. 그 쓰라린 소식은 이미 오래전에 그이께서 인편을 통해 알고계시였다.

랑귀동녀는 1936년에 쏘련으로 넘어가자 인차 우라지워쓰르크 교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진은 그때 찍은것이라고 한다.

《동무는 언제부터 귀동녀를 찾기 시작했소?》

오래동안 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던 수령님께서 고개를 들며 력사관청년에게 물으시였다.

《저희들도 역시 회고록 4권이 나온 이후부터 귀동녀어머니한테 관심을 돌리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력사연구소 부소장선생님과 련계를 가지게 되자 더욱 본격적으로 랑어머니를 찾는데 달라붙었습니다.》

수령님의 소탈하신 모습에 어느새 어려움도 잊고 긴장도 풀려진 력사관청년은 스스로없이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참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귀동녀어머니를 곁에다 놓고 사망 허튼데만 돌아다녔습니다. 낄끼즈에까지 연락을 띄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알마아띠시교외에 있는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자기 마을에 있는 로친네가 회고록에 나오는 랑귀동녀 같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그런데 찾아가보니...》

청년은 갑자기 터져나오는 기침때문에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는 급히 기침을 진정하느라 얼굴이 새빨강게 익어버리고 판자노리에 붉은 피줄이 돌아올랐다.

수령님 앞에서 무덤하게 침방울 튕기며 기침을 낚다니 이 무슨 실례이고 실책인가.

청년은 황송하여 어쩔줄 몰라하였다. 량귀동녀어머니에 대한 격화된 감정이 그에게 발작적으로 기침을 일으켰던 것이다.

《물을 좀 마시고 이야기하오.》

수령님께서 응접탁에 놓인 빨간 과일물을 가리키시었다. 하지만 청년은 물을 마셔야 하는지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몰라 주뿔거리면서 옆에 앉은 대외일군의 눈치를 살피었다.

《물을 좀 따라주시오.》

수령님의 지시를 받고 대외일군이 유리고뿌에 과일물을 가득 붓고나서 청년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령사관청년이 과일물을 한모금 마시고나자 수령님께서 이야기를 재촉하시었다.

《귀동녀네 집을 찾아가보니 어떻던가? 살림은 넉넉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눈이 딱 감기였습니다.》

《눈이 딱 감기다니?》

수령님께서 의아해하시었다.

《귀동녀어머니는 잘 잡숫지 못해서 그런지 뼈만 남고 이발이 다 빠지고...그저 얼핏 보면 영양실조 한 3도쯤 되는것...》

성수가 나서 이야기하던 령사관청년은 무슨 구두발이 급히 자기 다리를 건드리는서술에 말을 삼켜버리었다. 엉겁결에 돌아보니 대외일군이 눈짓을 하고있었다. 수령님의 가슴을 아프게 헤드릴수 있는 말들을 될수록 삼가하라고 미리 주의를 받았던 그였으나 친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수령님의 인품에 끌려 그 주의사항마저 잊어버렸던 것이었다.

《왜 그러나? 어서 이야기하오. 사실대로 다 말하오.》

령사관청년은 대외일군을 피곳 스쳐보고 한결 주눅이 든 소리로 아뢰이였다.

《어머니가 그 형편이고 그 집 령감도 앓고있었습니다. 아들 셋, 딸 셋이 다 시집 장가들을 가고 맏아들은 대학까지 졸업했다는데 귀동녀어머니는 옷한벌 변변한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쓸쓸하게 살았지만 몇년전부터 거지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사회주의가 망한 후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귀동녀어머니가 쏘련의 사회주의가 망한것도 모르고있는것입니다.》

《사회주의가 망한것두 모르고있더라말이요?》

수령님께서 몹시 놀라시었다. 온 세상에 파문을 일으킨

20세기의 피변을, 그 피변의 수난자 자신이 모르고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참 정치에 압둔하기라곤...그 어머니의 정치적 사고는 쏘련에 들어간 이후 오늘까지 반세기이상 완전히 정지되어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무, 거 너무 과장하지 마오.》

불안하고 민망스러워 계속 몸을 궁싹거리고있던 대외일군이 마침내 성을 내면서 령사관청년에게 눈을 흘기었다. 대외일군의 그 노여움속에는 수령님과 깊은 연고관계가 있는 량귀동녀를 그렇게 혹평하고 모독하면 되겠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속대사가 있었다. 수령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민들이 사랑하는 량귀동녀에게 어찌 그런 욕된 말을 할수 있는가.

《과장하는것 같지 않소. 저 동문 사실그대로 말하는것 같소.》

수령님께서 대외일군의 말을 부정하신 다음 얼어붙은 듯 더는 입을 열지 못하고있는 령사관청년을 안심시키시었다.

《일없소.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사실그대로 다 말하시오. 그래야 내가 대책을 세울수 있소. 일부 일군들은 수령에게 심려를 끼친다고 하면서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건 옳지 못해. 옛사람들도 이실직고하지 않는 신하는 충신으로 보지 않았소.》

수령님께서서는 량귀동녀가 것처럼 어렵게 살면서도 왜 하소연 편지 한장도 하지 않았는가, 다른 재소동포들은 종종 조국방문을 하고있는데 누구보다도 조국을 그리워할 귀동녀가 왜 반세기이상이나 조국과 격조된 생활을 하였는지 그걸 다 말해달라고 하시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의심스럽고 또 패씹하기도 해서 김일성장군님께선 어머니를 잊지 못해 회고록까지 쓰셨는데 어머니 왜 살아계시면서 소식 한번 전하지 않았습니까, 장군님의 사랑을 받던 일도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고 물으니 내사 다 잊어버려두 장군님이야 어찌 잊겠소 하며 목놓아 울었습니다.》

령사관청년의 눈에서 불현듯 눈물이 끓어올랐다.

량귀동녀는 조선말도 많이 잊어버리고 로어도 잘하지 못하여 자기의 심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실례로 《사상》이나 《수령》과 같은 낱말의 의미를 로어로도 조선어로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심한데다 그 어머니가 말하는 자기나이와 우리가 알고있는 량귀동녀의 나이가 서로 틀리기때문에 가짜량귀동녀가 아닌지 하고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쏘련에서 살아온 경위를 보면 그럴법도 했습니다.》

1937년 가을, 레의 중앙아시아에로의 대이동시기에 원동 우라지워스토크 교아원에 있던 조선의 교아들은 까자흐스탄의 악쭈빈스크로 이주하였다. 악쭈빈스크에서 귀동

너가 살고있다는 풍문이 떠돈것은 아마 이때문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귀동너는 그때 얼마 안있어 고아원에서 나와 자기 고모가 살고있는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로 갔다. 거기서 고모한테 었혀서 몇년 살다가 시집을 갔는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고달픈 살림살이에 치워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

누구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고 혁명가의 딸로 대접해주지 않았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버림속에서 그의 정치적인 식은 점차 마모되어버렸다. 그는 편지를 쓸 능력도 없었고 조선으로 갈수 있는 방법도 길도 몰랐다. 사람들은 그가 **김일성** 장군님과 연고관계가 있다고 하면 무식한 촌녀자가 얼빠진 소리를 한다고 하였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량귀동너에게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킬수 있는 언어가 모자랐다.

하기는 《사상》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그가 어떻게 설득력있는 표현을 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애당초 그런 말들을 꺼내지도 않았다. 아니 그자신도 그 모든것을 망각의 구름속으로 날려보냈는지 모른다.

《귀동너어머니는 세상에 회고록이 나온것도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기를 무지렁이같은 존재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를 찾기가 그렇게도 어려웠던것은 동네사람들도 그의 이름이 량귀동너라는것을 몰랐기때문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대체로 셋째아들의 이름을 붙여 《안드레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의 셋째아들의 이름이 <박 안드레이 게오르기위치>입니다. 그의 아들은 조선말을 전혀 모릅니다.》

령사관청년은 그 무슨 의분을 느끼는듯 목소리를 높이며 얼굴을 이그러뜨리었다.

수령님께서 손가락으로 응접탁을 푹-푹 두드리실뿐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량귀동너어머니가 하도 뼈만 남아있기에 저울로 달아보니 서른네키로밖에 안됩니다.》

《서른네키로?》

수령님께서 문득 반문하시였다. 순간 그이의 두 눈에서 번쩍 섬광이 일어나는것 같았다.

그이께서는 뼈가 앙상하고 이발이 다 빠져버린 량귀동너, 람루를 걸치고 비칠거리며 이국의 거리를 걸어나는 늙고 쇠진한 너인의 가엾은 모습을 상상해보며 긴 숨을 내쉬시였다. 참으로 기가 막히시였다.

수령님께서 김혜정에게 시선을 보내시였다.

혜정은 죄를 진 사람처럼 머리를 푹 수그리고 앉아있었다. 기실 혜정이 좀더 일찌기 량귀동너를 찾아냈다면 그의 운명은 달리 되었을것이다.

김혜정과 량귀동너는 다같이 항일대전에서 목숨을 바친 혁명가의 딸들이지만 그들이 걸어온 삶의 길은 너무

도 격차가 심하였다.

한사람은 조국의 품속에서 나라의 역군으로, 학자로 자라났고 다른 한사람은 조국의 품박에서 외롭고 설움 많은 인생의 전반생과 후반생을 보냈었다. 값없이, 흘려가 버린 그의 인생을 이제 무엇으로 만회할수 있단말인가.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도 조국의 혜택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 살아온 그 사실이 놀랍고도 통분한 일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누구에게라 없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요. 쏘련의 사회주의가 왜 망하게 됐는가 하는것이 귀동너일가의 생활형편을 놓고도 명백히 알수 있소. 인민들을 정치생활에서 제외시키고 사상교양도 하지 않고 또 돌봐주지도 않고 정치문맹자로 만들었으니 사회주의가 어떻게 유지될수 있었겠소.》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답답하시여 몇번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그이께서는 응접탁 옆을 거닐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령사관동무의 말을 들어보니 해외동포들과의 사업을 하는 우리 대외일군들에게도 결함이 많은것 같소. 누구보다도 민족의 수난을 많이 겪었고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살고있는데 형편은 어떠한가?》

귀동너처럼 된 너인이 한사람뿐인것 같지 않소.》

수령님께서 응접탁 맞은편에 음울한 표정을 하고 서있는 대외일군을 건너다보시였다.

《수령님, 저희들의 잘못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일을 잘해나가겠습니다.》

《맹세를 너무 쉽게 다지지 말고 귀동너문제를 놓고 좀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오.》

귀동너의 아버지는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는데 귀동너는 왜 광복된 조국에, 아버지의 전우들이 있는 그 조국에 단 한번의 련계도 가지지 않았는가?

수령님께서서는 령사관청년의 말을 들으니 그 의문이 풀리는게 아니라 더 커진다고 하시였다.

《령사관동무의 말대로 그가 편지도 쓸줄 모르는 무식한 여자여서 조국에 소식을 못전했겠는가? 아니야, 그런것 같지 않아. 편지야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쓸수 있지 않겠소. 혜정동무, 그렇지 않소?》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혜정이쪽에 시선을 돌리시였다. 그때까지 내내 고개를 수긋하고 서있던 혜정은 흠칫 머리를 쳐들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울리지 못하였다. 그는 량귀동너의 인생을 망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자기라고만 생각되어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있을뿐 다른 생각을 해볼 정신적여유가 없었다.

《혜정동무, 왜 말이 없소. 동무야말로 오늘 할 말이 제일 많지 않겠소.》

혜정은 여전히 입을 열지 못하고 묵묵히 서있었다. 물기가 어린 그의 눈빛은 수령님, 제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말씀을 아뢰이겠습니까 하고 절절히 여쭙는듯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혜정의 표정을 이윽히 살피시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혜정의 심정은 나도 알만해. 이런 때 자기를 반성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나 동무는 력사학자로서 귀동너 문제를 자기 개인과의 관계로만 보지 말아야 해. 그것을 민족의 운명문제로 투시해보고 거기서 보편적인 교훈을 찾아야 하오.

내가 늘 말하지만 력사가란 과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지는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력사가에게 있어서 과거에 대한 지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은 바로 미래에 있기때문이요. 내가 왜 오늘 굳이 이런 말을 또 하는가.》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자문하고나서 응접탁을 마주하고 주련이 서있는 세사람을 찬찬히 훑어보시었다.

《그것은 귀동너의 남은 여생이나마 보람있게 해주기 위해서요. 모든 해외동포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이왕지사 귀동너가 인생을 값없이 흘려보낸거야 어찌하겠소.》

수령님께서서는 침통하게 뇌이시고 시계를 들여다보시었다. 그이께서는 귀동너를 위하여 이미 두시간을 바치시었다. 응접실에는 벌써 책임서기가 문건을 들고 들어와서 초조히 기다리고있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는가... 오늘은 이만하고 이제 귀동너가 오면 직접 그한테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수령님께서서는 책임서기를 따라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시었다. 그이의 시간은 언제나 이렇게 긴장하게 흘러갔다.

## 4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집무실에서 1936년 봄, 북만청구 자밀영의 리별마당을 회고하시면서 량귀동너와 상봉하실 시각을 기다리고계시었다.

북만의 이른 봄, 멀리 동토대에서부터 불어오는 소연한 바람소리, 분비나무 설레이는 이국의 그 산언덕에서 북쪽 나라 쓰련으로 가야 할 아홉살 소녀 귀동너와 백두산을 향해 남으로 떠나가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 고별의 쓴잔을 마시었다.

떠나는 시각 수령님께서서는 조선글 자모표와 구구표, 푸깅에 조선지도를 그린 공책 한권과 연필 한자루를 귀동너에게 쥐여주시었다.

이렇게 헤어진 소녀가 58년의 세월을 건너 이제 수령님앞에 나타나게 되는것이다.

(60년만의 상봉이라.)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히 입속으로 뇌이며 집무실을 거니시었다.

얼마후 김혜정이 땀발이 돋은 상기된 얼굴을 하고 부관과 함께 집무실로 들어섰다.

《수령님, 량귀동너가 왔습니다.》

《그래?》

수령님께서 우뚝 걸음을 멈추시었다.

《가만 10분만 더 기다립시다.》

수령님께서 마음을 진정하시듯 잠시 묵묵히 서계시다가 혜정에게 물으시었다.

《귀동너가 전달 28일에 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국에 머무른지가 한 땀새 되누만.》

《예, 그동안 귀동너는 혁명렬사릉, 주체사상탑, 소년궁전, 평양산원, 교예극장 등 여러곳을 구경하였습니다. 계속 감격하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군님덕분에 자기는 이제야 잃었던 조국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혜정은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으며 목메인 소리를 하였다. 수령님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어리었다.

《귀동너가 그런 말을 했단말이요? 사상이라는 단어도 모르던 귀동너가 땀새동안에 조국이란 의미를 알았던말이지... 조국, 한마디로는 해석할수 없는 낱말인데... 잃었던 조국을 이제야 찾았다? 이 조국이 정말 귀동너의 마음에 들었을까?》

《수령님, 그가 이런 세상을 언제 어디서 보았겠습니까. 가는곳마다 자기를 환영해주고 떠받들고... 초대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안내원동무들이랑 모두 량귀동너어머니, 어머니 하며 반겨주니 그는 어리둥절해하며 모두 어떻게 그리 나를 잘 아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내원동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록에 어머니를 쓰셨는데 왜 모르겠느냐고, 온 조국이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귀동너어머니는 조국, 조국- 아심참소, 아심참소 하며 우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처음 무슨 까자흐스판어 사투리에 아심참소라는 말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게 감격에 겨워하는 조선의 북방사투리였습니다.》

혜정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옳아, 그건 북방사투리지. 고마운 심정을 표현한 말이요. 자, 이젠 그럼 가볼가?》

수령님께서서는 량귀동너가 있는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한발자국 두발자국...혜정은 그 발자국이 마치 지나간 58년의 력사를 되짚어 거슬러올라가는듯한 생각이 일어났다.

1993년, 1992년... 이렇게 수령님의 발자국이 세월을 거슬러올라가 마침내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과 량귀동너 소녀의 리별이 있는 1936년 봄의 청구자밀영으로 가닿을



것만 같았다.

혜정은 무엇때문에 그런 괴이한 환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것은 쓰라린 리벌의 눈물이 있는 북만의 청구자에서처럼 이제 위대한 수령님과 량귀동녀는 서로 눈물을 머금고 마주서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상봉인가 리벌인가. 지금이 1994년인가 1936년인가. 력사가인 혜정은 그것을 착각할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량귀동녀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그 녀인으로 하여 받아안으시는 아픔도 역시 조금도 덜리지 않았기때문이었다.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인정이 많으시여 한평생을 괴롭게 사신분이였다.

혜정은 량귀동녀에게 마음 기울으신 수령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그이의 사랑이 어떤것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아니 아직도 알고 있는 사랑보다 모르고있는 사랑이 더 많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 저기 량귀동녀가 왔습니다.》

80객의 항일녀투사 한분이 수령님께 허리를 굽히며 저 앞에 풀썩 치마저고리를 입고 서있는 여위고 늙은 녀인을 가리키였다.

수령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안경을 벗으시였다.

량귀동녀는 얼어붙은듯 한자리에 굳어져있었다.

58년의 세월을 헤엄쳐가는 뜨거운 시선의 부딪침!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누구도 의식할수 없었다. 그것은 짧게 흘러간 일순간, 한찰나 같기도 하였고 영원의 시간 같기도 하였다.

《귀동녀로구나, 귀동녀!》

여위고 늙어서 볼품없이 된 녀인의 얼굴, 한쪽구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소녀시절의 귀여운 귀동녀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수령님께서 격하게 부르시였다. 그제서야 량귀동녀는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며 달려왔다.

《장군님!》

《넘어지겠어. 넘어지겠다니까...》

수령님께서 비칠거리며 걸어오는 량귀동녀를 향해 팔을 벌리시였다.

《장군님!》

간신히 와닿은 량귀동녀는 드디어 수령님의 넓은 품에 와락 안기였다.

《귀동녀, 어디에 갔다 이제야 왔다. 새파란 청춘은 어디에 두고 할머니가 되어 왔다.》

《장-군-니-임...》

비통한 흐느낌으로 하여 량귀동녀의 목소리는 토막토막 끊기고 부서지였다.

물결치는 귀동녀의 연약한 어깨를 쓰다듬으시는 수령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그만해, 그만하라구. 이제 그만하고 60년동안 보고싶었던 그 얼굴을 좀 보자구.》

귀동녀는 그 순간 한층 더 설음을 터뜨리면서도 머리를 들고 수령님을 마주 올려다보았다.

수령님께서는 58년전의 기억을 더듬으시며 귀동녀의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시였다.

벌절게 눈물에 이물린 오목한 눈, 소녀시절에는 저 눈이 얼마나 귀엽게 반짝이었던가.

이마는 주름이 잡히고 두볼은 패여들어갔다. 검버섯이 돋은 가뭇한 얼굴빛에는 가난의 자욱이 력연하고 가냘픈 어깨에서는 뼈가 만져지였다.

그러나 34키로의 여윈 몸에 이제라도 살을 좀 붙이면 젊은시절의 아름다움이 되살아날것 같았다.

수령님께서 몸이 풍만한 혜정이와 한껏 수척해진 귀동녀를 갈마보며 말씀하시였다.

《귀동녀가 좀더 일찌기 왔더라면 저 혜정처럼 박사도 되고 큰 일군이 되고...그랬을텐데 너무 늦어서 왔소... 정말 분한 일이야. 흘러간 세월을 어찌하겠소.》

《장군님, 수...수령님...나를 용서해주시오다. 나는 장군님이...그렇게 나를 걱정하시는줄...잊지 못하시는줄 몰랐지오다. 난 이제부터 장군님을 내내 우리 아버지로 모시겠소다.》

량귀동녀는 서툰 함경도사투리로 흐느끼며 힘겹게 말을 번지였다. 그는 가슴속에 사무쳐있는 만단설화를 표현할수가 없어 안타까와하였다. 그는 언어가 모자란데다 한쪽 귀가 조금 멀어져서 남의 말을 듣는데서도 지장을 받고있었다.

《그래 그래,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오. 귀동녀아버지도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 믿고 나라를 위해 서슴없이 목숨을 바쳤소. 그래서 내가 귀동녀를 아버지처럼 돌봐주려고 했는데 왜 이제야 오는가. 나는 수십년동안 귀동녀를 찾았소.》

《아버지... 아버지... 내가 잘못했소다.》

귀동녀는 수령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어깨를 떨었다.

수령님께서는 귀동녀가 알아들을수 있도록 될수록 쉬운 말들을 골라가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알마아머시에 있으면서도 우릴 안찾아오다니... 왜 그랬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소. 북만에서 헤어질 때 귀동녀는 <장군님, 일본놈들을 내쫓구 날 데려와주세요.> 했지. 그래 조국을 피흘려 찾았는데 귀동녀 이렇게 할머니가 되도록 조선에 소식을 전하지도 않고 조선의 소식을 알아보지도 않았소. 왜 그랬소?》

귀동녀는 그냥 눈물만 흘리고있었다. 한평생 고된 살림에 시달리면서 이웃들과 별로 교제할 사이도 없이 살아온 귀동녀는 사실 지금까지는 상용어 몇마디만 알고있으면 충분하였다. 그래서 조선말을 많이 잊어버리고 로어도

변변히 배우지 못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조선에 나와서 부터는 그는 말이 모자라 속에서 불이 이는것 같았다. 너 무도 하고싶은 말이 많았기때문이다.

이때 량귀동녀와 연고관계가 있는 세명의 항일녀투사 들속에 끼여있던 젊은이 하나가 조심스레 귀동녀옆으로 다가와서 그의 귀에다 입을 대고 무어라 소곤거리었다. 그러자 귀동녀는 《내사 참 정신두...》 하고 놀라면서 젊은이를 돌아보았다. 어깨가 널직하고 뼈대가 굵은 그 건 장한 젊은이는 이번에 량귀동녀와 함께 조국으로 온 셋째아들 박 안드레이 게오르기위치였다.

감격에 겨워 아들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있는 귀동녀 는 그제야 허둥거리면서 아들의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안드레이 브이스트레...쁘리스우프스프보바이 뽀이꼬 웨제제(안드레이 뽀리...장군님께 인사드려라. )》

귀동녀가 서툴고 정확치 못한 로어발음으로 이렇게 떠 넘거리자 아들은 수령님앞에 엎드려 큰절을 드리었다.

《량성룡의 셋째손자 박 안드레이 게오르기위치 삼가 할아버지장군님의만수무강 축원합니다.》

그는 조선말로 수령님께 이 인사를 드리기 위해 조국 에 온 첫날부터 아침저녁으로 연습을 했었다.

《오냐, 고맙다. 어서 일어나거라.》

수령님께서서는 친할아버지처럼 귀동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지금 몇살이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이제 34살인 박 안드레이는 전문학교 졸업생으로서 현재 까자흐스탄에서 네명의 직원을 데리고 자그마한 상사를 경영하고있었다.

그는 수령님께 로어로 말씀을 올리고나서 부끄럽고 죄 송스러워 얼굴을 붉히면서 모국어를 모르고있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였다.

《일없다, 일없어... 앞으로 조선말을 배우면 된다. 하나 의 외국어를 소유하면 나라 하나를 점령한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그 리치로 보면 모국어를 모른다는건 자기 나 라를 잃어버리고 사는것과 같다는 말이 된다. 조선사람이 조선말을 몰라서야 안되지. 그렇지 않나 안드레이?》

수령님께서서는 귀동녀의 아들을 부드럽게 타이르시고 그들 모자를 처연히 바라보시었다.

1910년 《한일합병》이 조작된 이후부터 조선의 망명객 들이 본격적으로 이전 쏘련 연해주에로의 비극적인 해외 류량이 시작되었으니 아마도 저 박 안드레이는 제 4세 내지 5세에 해당되는 후손일것이다. 것처럼 많은 세대가 바뀌며 흘러가는 과정에 모국어를 모르는 동포들이 많아 졌을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일면으로만 설명할것은 아니 었다. 아무리 많은 세대가 바뀌어도 조국을 잊지 않고 민 족의 녀을 배양하면서 살아간다면야 어찌 자기 나라 말 을 모를수가 있으랴.

수령님께서서는 나라를 찾은 오늘까지도 외국식 이름을

가진, 조선말을 모르는 조선동포들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 하자 가슴이 저리시었다.

조선의 성과 이름, 조선말을 빼앗기우지 않기 위해 우 리는 얼마나 피어린 싸움을 하였던가.

알고보니 량귀동녀 일가중에도 조선이름을 가지고있는 것은 량귀동녀 하나뿐이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조선이 름을 로씨야식 이름으로 고친다 하여도 어찌하여 모국어 를 배우지 않았단말인가.

《꼭 조선말을 배워야 한다.》 하고 수령님께서서는 귀동녀 의 아들에게 다시금 강조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조선에 와보니 어떤가, 사람들도 낯설고 말도 몰라 남의 나라에 온것처럼 서먹서먹하지 않는가고 하시었다.

《수령님, 저는 지금 따뜻한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것처 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체류한 이 닷새 동안에 한세기의 력사와 인생을 체험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닷새동안에 사람에게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알게 되었기때문입니다.》

박 안드레이는 커다란 주먹으로 명치끝을 문지르며 계 속하였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피줄이 있는 조 선을 잘 모르고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방금 우리 어머니더러 왜 편지를 하지 않았는가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들 에게 조국애가 없었기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조국을 감감 잊어버렸지요. 우리는 조국을 생각하지 않았지요. 수령님, ...여러 선생님들...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박 안드레이는 굵은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숙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머저리였습니까. 얼마나 나쁘게 살았습 니까. 저는 혁명렬사릉에 있는 할아버지의 반신상을 보고 그리고 평양시 가는곳마다에서 우리 어머니를 영웅처럼 떠받들며 환대해주는 조국동포들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박 안드레이는 크게 어깨숨을 내쉬고 바른손을 가슴에 대며 계속하였다.

《저는 우리 수령님께서 저의 할아버지의 빛나는 영웅 조각상을 세워주신것도 몰랐습니다. 수령님께서 80고령이 된 지금에도 우리 어머니를 잊지 않고 어머니에 대하여 회고하신것도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해서 어머니는 저렇게 서른네키로밖에 안되는 뼈만 남은 로파가 됐습니다.》

《안드레이야, 그만해라. 내사 가슴이 터지는것 같다.》

잠자코 눈물만 흘리고있던 량귀동녀가 부들부들 떨며 아들을 향해 손을 저었다. 그리고는 수령님의 손을 붙들 고 사죄하였다.

《장군님, 내사 잘못했소이다. 시누이 넷에, 내 자식 6남 매를 키우느라 무시게 싹 다 잊어버렸지오다. 장군님께

큰 죄를 졌소다.》

《됐소 됐소. 죄는 무슨 죄를 졌다구 그래.》

수령님께서 귀동녀의 여윈 어깨를 쓸어주시면서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시누이 넷에 자식 6남매를 기르자니 오죽 고생이 많았겠나...이제 몸을 잘 보양해서 한 예순키로쯤 되게 몸을 불쿠자구. 이발도 새로 해넣고 파마도 하고...그리고 몸에 맞는 좋은 옷을 입고 금강산이랑, 묘향산이랑,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실컷 구경하오.》

《장군님!》

검버섯이 돋은 귀동녀의 수척한 얼굴로 뜨거운 눈물이 고랑을 지어 흘러내리었다. 그러는 귀동녀의 어깨와 잔등을 어루만지는 수령님의 안광에는 기쁨과 슬픔, 안심과 걱정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이 어려있는듯하였다.

이때 부관이 붉은 비로도친을 씌운 시계팍 두개를 들고 수령님앞으로 걸어왔다. 수령님의 존함을 새긴 금시계를 넣은 پاک이었다.

《이젠 점심때도 됐는데 귀동녀모자에게 시계나 채워주고 다 같이 오찬석으로 갑시다.》

수령님께서 먼저 귀동녀의 가는 팔목에 금빛 시계줄을 감아주시었다.

《귀동녀는 몸이 약하지만 제일 오래 살거야. 죽었다는 소문이 났됐으니까. 허허.》

수령님께서 귀동녀의 팔목을 쥐고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박 안드레이의 팔목에도 친히 시계를 채워주시었다.

《어머니를 존경하고 잘 모셔야 한다. 효자가 아닌 애국자가 없고 애국자가 아닌 국제주의자가 없다. 너희들같이 이국에서 태어나서 이국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애국주의 교양을 많이 받아야 한다.

쏘련,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그 여러 나라들에 있는 해외동포들중에 모국어도 모르고 조국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그들에게도 자기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조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조선에 있건 타국에 있건 믿을것은 자기 조국이라는것을 알아야 해.》

《빨찌산의 혈통인 박 안드레이는 조국에 충실할것을 맹세합니다.》

《오냐, 오냐. 고맙다. 자 그럼 오찬석으로 가자!》

수령님께서 박 안드레이와 귀동녀의 손을 랑손에 잡아쥐고 오찬석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었다.

력사에 깊이 적히여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질 이 사랑의 일화는 1994년 6월 2일에 있는 일이었다.

이날 오찬회를 끝내고 박 안드레이는 감상록에 이렇게 썼다.

나의 어머니는 중앙아시아에서 60년 세월을, 즉 전 인생을 허송하였다. 그러나 결코 나의 어머니는 인생을 실패한 여자가 아니다. 어머니는 말년에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여자로 되었기때문이다. 먼 후손들도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게 되리라는것을 나는 확신한다.

수령님께서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쓰신 《전우들은 북으로 나는 남으로》에서 자신께서는 한평생 리별이 많았다고 가슴아프게 회상하시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수령님이야말로 리별이 없으신분이였다.

왜냐하면 수령님의 사랑은 천하를 품고있기에 우리 인민은 살아도 죽어도 그이의 곁에 있고 천리에 떨어져있건 지척에 있건 다 같이 그이의 품에 안겨있기때문이다.

그렇다. 수령님과 인민들사이에는 리별이 없다.

박 안드레이가 이 감상록을 쓴 때로부터 한달남짓이 지나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서거하시었다. 그때 박 안드레이는 까자흐스탄에 귀가해있었으나 귀동녀는 조국에서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그러니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이 그를 얼마나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하였겠는가.

그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내내 수령님을 부르며 울기만 하였다.

그러나 며칠후 귀동녀는 아들이 남겨놓은 조국방문 감상록에서 힘을 얻고 진실을 확인하였다.

통역원이 그것을 읽어주었다.

《수령님과 인민들사이에는 리별이 없다.》

감상록에 깊이 새긴 박 안드레이의 이 신념의 글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인민의 신념의 목소리와 하나의 뜻으로 통하는 말이었다.

수령님을 잃은 민족최대의 비극은 세계만방에 널리있는 해외동포들에게 우리 수령님이 얼마나 위대한분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였을것이다.

## 새 세기의 노을

문상봉

사연 깊고 추억도 많은 20세기의 지평선너머로 새 세기가 동터온다. 그지없이 황홀한 노을빛이 인간세상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물들이고있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서 피어나 온 누리에 퍼져가는 혁명의 붉은 노을! 파란만장의 세기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한평생을 바치여 안아올리신 공산주의 아침노을! 력사의 분수령에서 눈부신 그 빛발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가슴 터질듯 부풀었고 눈곱 찌릿하게 젖어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반만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걸출한 정치가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우리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셨습니다.》

피눈물속에 한해가 저물어가던 1994년 12월 어느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일군들과 뜨겁게 나누신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살았는가를 날이 갈수록 가슴 사무치게 느껴진다고 하신 그 말씀에는 한해를 또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아침에 **김일성** 민족모두가 더욱 절감하게 되는 강렬한 심정이 담겨져있다.

부피가 큰 력사책의 갈피들에는 수많은 명언들과 제노라 하던 지도자들이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그 모든 명인과 지도자들은 어느 한 시기의 문명과 일정한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을뿐이고 하나의 웅근 시대를 개척하지 못하였다.

한때 명성을 떨치던 인물들도 그 당시에는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받들리웠으나 영향력과 인간적제한성으로 하여 세월의 흐름속에 묻혀버리였다.

《령도자는 전투에서 승리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며 조직자나 고무자라고 해서 령도자가 되는것도 아니다. 령도자는 세계력사에서 하나의 시대적흐름을 개척하는 사람이라야 될수 있다.

**김일성** 주석각하의 바로 그러한 위대한분이사이다.

그이는 세계에서 하나의 시대적흐름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이사이다. 그이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은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근로대중의 직접적인 리익에 그 시점을 두고있다.

바로 여기에 근로대중의 령도자로서의 **김일성** 주석각하의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신문 《워커스 월드》에 실린 이 글은 무엇을 말하는가.

격동하는 20세기의 한복판에 거연히 솟아오르시여 주체의 밝은 빛발로 인간해방과 자주화의 새 시대를 개척하신 **김일성** 동지! 그이는 동서고금에 유일무이한 천재적인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이시였으며 탁월한 군사전략가, 혁명과 건설의 걸출한 영재이시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미증유의 인력과 뜨거운 인간매력으로 하여 만민이 우러르는 주체의 태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인류사상 가장 어렵고 힘든 세기적과제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전인미답의 혈로를 헤쳐오시며 혁명가로서 령도자로서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생전에 다 완결하여 놓으신 불세출의 성인이시였다.

이 행성에서 종적조차 잃었던 반만년력사국을 다시 찾으시고 사대와 교조의 쇠사슬속에 조들렸던 민족을 자주와 창조 의 거상으로 키우시느라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신 어버이수령님! 죽느냐 사느냐, 주저앉느냐 일어서느냐 하는 판가리고비마다에서 혁명을 구원하고 인민들을 일떠세우신 운명의 구세주, 만고의 영웅 **김일성** 동지!

하기에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만 듣고 영상만 우러러보아도 기쁨과 행복으로 가슴실레였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뚫고나갈수 있었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우리 인민이 자자손손 존엄있고 보람차게 살수 있는 진로를 밝히시면서 그 길에서 있을수 있는 온갖 우여곡절과 세상풍파를 다 헤아리신 빛나는 선견지명이였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져내린 이전 사회주의나라들의 비참한 파국상을 보면서 수십년전에 벌써 격변하는 오늘의 사태를 다 헤아리신 령도의 현명성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

만약 그때에 대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경제통합》설과 《공동방위》설에 유혹되어 말려들었다라면 오늘의 조선식 사회주의가 이처럼 승승장구할수 있었겠는가?

남한테 매달려가지고는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할수 없다. 자기의 주권이 있고 자기의 방식이 있고 자기의 힘이 있어야 나라와 민족의 활로가 열린다. 바로 이것

이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나날에도 견지하시고 전후의 그 어려운 때에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자력갱생의 혁명 전통이다.

사상도 령도도 업적도 덕망도 선견지명으로 하여 더욱 위대한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 동지! 것처럼 위대한 수령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었기에 우리는 식민지망국의 치욕스러운 멍에도 벗고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으며 남들이 걸은 수백년 세월도 순간에 주름잡으며 세기의 령마루에 거연히 올라섰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을 주체의 태양으로 모시었기에 우리는 남들이 좌절과 실패의 진통을 겪을 때에도 언제나 승승장구하며 필승불패의 기상을 파시해가고 남들은 앞날이 막막해할 때에도 광휘로운 앞날을 내다보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력사의 분수령에서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는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심을 안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는다.

피여나는 아침노을속에 거룩한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 그이께서는 여전히 인류의 오늘뿐아니라 미래까지도 한몸에 안으셨던 그 투철한 책임감과 왕성한 정력으로 21세기의 해돋이를 장식하고계신다.

주체의 최고성지-금수산기념궁전에서 피어나 온 누리에 퍼져가는 혁명의 붉은 노을! 과란만장의 세기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한평생을 바치여 안아올리신 공산주의 아침노을!

세기의 령마루에서 눈부신 그 빛발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가슴 터질듯 부풀고 눈굽 찢릿하게 젖어드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승리와 영광에 찬 과거는 희망과 포부넘친 미래를 안아온다. 걸어온 길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걸어갈 길이 하도 휘황찬란하여 시와 노래에 담자해도 알맞는 글귀와 선물을 찾기 어려운 오늘의 현실을 놓고보자.

태양의 빛발은 영원하다. 태양의 위업은 태양의 위업완성으로 계속된다.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조선을 빛내이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이 위업은 개척도 성스럽지만 그 계승 또한 성스럽다.

일찌기 해쑈는 룡남산에서 울려 퍼진 력사의 그 맹세! 태양의 위업을 받들어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라는 그 숭고한 뜻은 누리에 넘쳐나는 새 세기의 노을속에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전진하는 붉은기의 힘찬 대오마냥 우주만리에 펼쳐지는 21세기의 아침노을! 시대의 지향과 인류의 념원이 세기의 하늘가에 아름답게 수놓아지듯 붉게 타오르는 노을은 공산주의태양을 높이 받들어 주

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기도 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상징이며 미래입니다. **김정일** 동지의 령도밑에 앞으로 주체혁명위업은 승승장구할것입니다. 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탁월하기때문에 조선의 미래에 대하여 마음을 놓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전후하여 당보 《로동신문》에 몇달째 매일같이 실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함께 모신 두분의 위인상을 우리는 어찌하여 이처럼 크나큰 감격과 흥분속에 보고 또 보았는가. 어찌하여 우리 인민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두분의 위인상에 눈길을 모으고 경탄과 환희를 금치 못하였는가.

그것은 두분의 위인이 오래전부터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으며 위대한 수령님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이시고 **김정일** 장군님은 수령님이시라는 기적과 력사의 행운을 가슴벅차게 실감했기때문이다.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가슴뜨겁고 눈시울이 젖어드는 승업하고 고귀한 화폭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밤도 함께 지새우시고 새벽도 함께 맞으시며 멀고 험난한 혁명의 길을 함께 헤쳐오신 거룩한 자욱자욱들이 이 땅우에 얼마나 력력히 어리어있는것인가.

참으로 인민을 위한 길에서 우리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하나의 위대한 사상과 숭고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시여 사색도 고락도 함께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곧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이시다.

지난해 력사적인 10월 10일, **김일성** 광장을 굽이쳐간 100만시위대오가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우러러 온 세상이 들썩하도록 터친 만세의 환호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수령님은 영생하시며 조선로동당은 영원한 **김일성** 동지의 당이라는 백전백승의 신념이였고 락관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의 성스러운 존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과 함께 그 어떤 제국주의 강적도 벌벌 떨게 하는 무적의 위력이고 우리 인민, 우리 민족, 온 인류를 한몸에 안아 단결시키는 광폭의 인력이며 세계사회주의재생운동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진두에서 이끄는 절대적 권위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시대를 개척하고 력사에 뚜렷한 구획으로 부상되는 위인에게 민심이 쏠리는 법이다.

여기에 지난 10월 10일을 계기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동향자료를 묶은 괴뢰 《안기부》와 《기무

사》의 합동보고서가 있다. 《국민동향분석과 그 대비책》이라는 이 문서에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북에 대한 시각》, 《이북사회주의에 대한 공감대형성》 등등의 문제점과 함께 남조선인민들의 최대관심으로 되고있는 《**김정일**장군의 위인상》과 관련된 6가지 특별사항이 지적되어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민다수는 **김정일**령수를 곧 **김일성**수령으로 공인하고있다.

나, **김정일**령수를 뵈옵고싶어하는 국민적욕구가 날로 더욱 증폭되고있다.

다, **김정일**령수의 정치는 크게 성공했으며 민족의 미래는 **김정일**령수께 있다는것이 국민적중론이다.

라, **김정일**령수를 전민족의 령도자로, 통일조국의 대통령으로 추앙하고있다.

마, **김정일**령수의 저서와 찬양가요가 최고의 인기를 얻고있다.

바, **김정일**령수의 통술을 받는 이북과 대적한다는것은 파멸을 자초할뿐이라는것이 군, 관, 민, 다수의 공통된 생각이다.》

상기 내용이 요약 서술된 그 보고서는 대북관계 요원들만이 아니라 《청와대》의 《주인》까지도 대경실색케 했다고 한다.

북으로 향한 남조선인민들의 민심, 그것은 바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위대한 구세주로 받드는데서 비롯되는 남녘인민들의 가장 순결한 마음의 결정체이며 절절한 통일념원이 아니겠는가. 민심은 건잡을수 없는 힘으로 확산되는 것이어서 콩크리트장벽이나 《국가보안법》도 어찌지 못하며 총칼과 대포로도 막지 못한다.

사회주의조국을 다녀간 해외교포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찬탄하듯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란 말만 없으면 그이께서 그대로 생존하셔서 정사를 펴고계신다고 생각될 정도》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 훌륭히 구현되고있다. 도시와 농촌들에서, 중앙과 지방들에서, 수천척지하막장과 먼바다 어로장에서, 심산유곡의 분교와 외진 섬마을의 등대탑에서...

세계의 정치력사는 지도자나 통치자가 서거하면 그 양상은 각이했지만 지체없이 권력이양과 정권교체가 진행되는것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선의에서든 야심에서든 가림없이 선임자로부터 후임자에게로 넘겨졌다. 아마도 그것은 정치적공백으로 인하여 야기될수 있는 권력쟁탈전과 소요를 막기 위한것이리라.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추대행사는 안중에도 두지 않으시고 수령님의 유훈관철으로 전당과 전군, 전체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권위를 더 높은 경지

에 올려세우시고 수령님의 업적을 더 크게 칭송하며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태양의 모습으로 더 밝게 모시는것으로 세계정치력사의 관례를 깨뜨리시였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20세기의 령마루에서 본 후계자의 혁명적도덕의리와 인간상에 대한 숭고한 화폭이 아니겠는가!

지난해 4월 미국의 시애틀에서는 레닌의 동상이 경매에 넘겨지는 비극적인 사태가 연출되였다고 한다. 높이 6미터, 무게 7톤, 외투를 입고 연설하는 자세의 레닌동상이 1993년에 솔로벤스꼬에서 미국으로 팔려왔는데 거기에서 또 경매에 넘겨졌다느것이다. 위대한 10월혁명의 후예들이 치를 떨고 분노해야 할 일이다.

근대 세계사의 흐름을 변화시키는데 거대한 역할을 하였고 수십년동안 사회주의 리념과 체제속에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과시했던 레닌이 왜 그런 수난을 겪게 되였는가?

물론 위인의 빛나는 공적은 누가 말살하려고 획책한다고 해서 없어질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인물의 공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변함없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후계자를 잘 만나야 하는것이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와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좌절이 남겨놓은 심각한 교훈이였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어버이로, 인류의 태양으로 영생하도록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시는 충효와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다.

정치가 력사의 엄혹한 검증을 받는 복잡다단하고 심각한 이 세월, 판교가 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고 세도로 인민을 다스려 정치의 운명이 미궁속에 곤두박질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참다운 사회주의정치, 광복의 인덕정치를 20세기 높은 령마루에 아로새기시였다. 그이는 인민의 머리우에서 인민의 심장으로 정치가 서있어야 할 위치를 바꾸어놓으신 사회주의 새 정치의 위대한 개척자이시며 인류 수천년을 내려오던 종래의 정치방식을 단호히 부정하시고 주체의 정치철학과 정치리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실천으로 옮기신 새 형의 사회주의정치가이시다.

영국신문 《에이쉬언 타임스》정치주필인 키스벤네트는 《로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격조높이 서술하였다.

《세상사람들이여!

혼탁된 오늘의 세계정치기류속에서 그대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태양의 나라 조선에 가보시라. 그러면 알게 되리. 태양민족이 어떤 위대한 또 한분의 태양을 모시고있는가를.

그이는 바로 사상도 령도도 인격도 품모도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다.

**김정일**동지는 21세기를 밝히고 인류의 새 시대를 향도할 위대한 태양이시다.》

태양은 동쪽에서 솟는다. 오늘 사회주의가 좌절되어 행복과 미래를 잃었던 세계 수억만 혁명적인민들은 어둠속에서 동트는 하늘을 바라보듯 조선을 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으로 최성최강을 펼치는 불패의 사회주의보루! 이는 사회주의재생을 위한 성전에 펼쳐나선 투사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삶의 학교이다. 인류는 태양의 빛발을 한가슴에 받아안을 환희와 기쁨속에 새 세기를 마중하고있다.

동이 튼다. 사연 깊고 추억도 많은 20세기의 지평선너머

로 새 세기가 밝아온다. 그지없이 황홀한 노을빛이 인간세상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다.

주체의 최고성지-금수산기념궁전에서 피어나 온 누리에 퍼져가는 혁명의 붉은 노을! 파란만장의 세기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평생을 바치여 안아올리신 공산주의 아침노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계승으로 더욱 눈부신 주체의 붉은 노을이 우주만리에 펼쳐지고 있었다.

## 나는 수령님앞에 서있다

김만영

지난해의 그 나날들처럼  
내 살아온 그 많은 나날들처럼  
새해의 이 아침도  
나는 수령님앞에 섰노라

한해의 벅찬 일감을 두고  
가슴에 뛴뛰는 신심과 희망을 안고  
그 무엇에 앞서  
나는 수령님앞에 섰거니

나는 뵈옵노라  
설날에 찾아온 자식을  
따뜻이 맞아주는 아버지 그 영상을  
손길을 들어 갈길을 축복해주는  
인자한 아버지 그 미소를

또한 나직하나  
엄숙한 그 음성도 들리나니  
어제날 그때처럼  
앞에 물웅덩이가 있으니  
조심히 건너가라는  
그리고 힘들어도 신심을 잃지 말라는...

하여 나는 심장의 더운 피를 짖어  
가슴속에 포박포박 적어넣노라  
자식들을 키우는 가정일로부터  
당생활에 이르기까지  
새해 첫전투와 올해 세운  
창작목표 수행방도에 대해서까지

가슴은 뛴뛴다  
신심은 넘친다  
저기 혁명승리의령마루가

가깝게 가깝게 바라보인다

아 우리의 생활과 삶  
우리의 투쟁과 혁명의 그 모든것  
시간과 공간과 존재방식이  
수령님을 떠나서  
있어본적 있었거나  
전진한적 있었거나  
수령님 가르치심은 력사의 정의

이제 내앞에  
폭풍이 불어친다 하라  
풍랑이 밀려오고  
산악이 꺼뎡게 앞을 가로막는다 하라

우리의 아버지  
백전백승의 영원한 기치  
**김일성**동지께서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나니

승리는 우리의것  
영광은 우리의것  
정의와 진리는  
영원히 우리의것

한해의 벅찬 일감을 두고  
가슴에 뛴뛰는 신심과 희망을 안고  
나는 수령님앞에 섰노라  
수령님의 영원한 전사  
수령님의 영원한 제자  
수령님의 영원한 아들로

## 혁명적문학작품창작으로 우리 당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완성에 이바지하는것은 작가들의 임무

장형준

오늘 우리 작가들은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경축한 크나큰 기쁨과 자랑을 안고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희망찬 새해 1996년을 맞이한다.

올해에 우리 인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혁명과 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우리 인민을 승리로 령도하시고 우리 인민이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1995년 10월 2일 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는 새해의 진군길에 들어선 우리 인민과 작가들을 승리로 힘있게 고무하여준다.

이 로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건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당의 빛나는 력사와 업적과 경험을 자랑스럽게 총화한 문헌이며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며 우리 시대, 자주시대, 혁명적 당 건설 사상과 리론을 독창적으로 밝혀준 불멸의 총서이다.

우리 당 건설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진로를 밝혀준 이 로작에는 우리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을 구현하여 우리 당의 위업에 복무하는 우리 주체문학이 나아갈 길도 환히 명시되어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을 당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작가들이 이 로작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로작의 사상을 문학작품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로작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사상은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우리 혁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

어왔다. 그러나 우리 혁명의 길은 아직 멀고 그앞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우리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해도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지켜 이 길로만 곳곳이 걸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며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르고있다. 이와 함께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다.

로작에는 우리 당 건설의 기본 방향과 과업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이며 이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혁명승리의 열쇠가 있다.

우리 문학은 우리 당의 문학이고 문학사업은 당사상사업의 한 구성부분이다. 그런것만큼 작품창작에서도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문학이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완성에 이바지하는 문학으로 영원히 개화발전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에 기초하여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지워진 가장 보람차고 중요한 혁명임무이다.

작가들이 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완성에 이바지하는 당의 문학, 수령의 문학이 어떤 문학인가 하는것부터 먼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당의 문학, 수령의 문학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사상과 령도풍모, 덕성이 체질화된 문학이다. 그 본보기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완성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와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와 같은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이 당의 문학, 수령의 문학의 본보기로 되게 된 근본요인은 서사적화폭과 서정토로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신념과 의지, 도덕의리를 철학적으로 심오하고 생활적으로 진실하며 형상적으로 감명깊게 담는데 있다.

이런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이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문학작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형상하는것은 우리 당의 본성과 발전력사, 그 불멸의 업적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요구로부터 나서는 영광스러운 과업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며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시면서 당창건방침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고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시였으며 조국광복을 이룩하신후 우리 당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구현하시여 우리 당을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 박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또한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해나갈수 있도록 우리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하시였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위대한 령도자를 수령의 후계자로 내세우시고 후계자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확립하시여 령도의 계승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

신 여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큰 공적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우리 당 건설의 시원으로 되는 《ㄷ. ㄷ》의 결성으로부터 70성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을 창건하시교 강화발전시켜오신 력사인 동시에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빛나는 력사이다.

해방후 짧은 기간에 우리 인민이 건당, 건국, 건군의 3대 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것도,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두차례의 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나게 건설한것도,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을 물리치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높이 떨친것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였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우리 혁명의 모든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강철의 의지와 세련된 령도, 《이민위천》사상과 고매한 덕성이 가져다 준 고귀한 결실이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에 우리 당의 력사와 우리 혁명의 전진로정, 우리 당의 업적과 그 승리의 원천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형상하는것은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고 수령의 위업에 복무하는 사회주의문학의 본성적 요구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찌기 수령형상문학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여 수령을 형상하는 문제를 우리 문학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시하시고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와 형상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총서 《불멸의 력사》를 비롯한 수령형상작품창작과 수령의 위대성형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도록 작가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수령형상리론을 지침으로 삼고 이미 얻은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살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창작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을 받들고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의 혁명위업완성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혁명위업계승의 합법칙성, 우리 당의 력사와 빛나는 업적,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으로부터 나서는 영예로운 과업이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은 수령의 후계자에 의하여 계승완성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인 동시에 그 후계자의 위업이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과 함께 사업할 때에는 수령을 몸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수령의 서거이후에는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간다. 이것은 우리 당의 력사와 오늘의 우리 현실이 보여주는 력사의 엄연한 사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 30여년동안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오래전부터 어버이수령님을 충효일심으로 적극 보좌하시며 당건설을 비롯한 경제건설, 문화건설, 무력건설, 청년운동 등 혁명사업전반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시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어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여주시으로써 그 역사적지위를 최고의 높이로 올려세우시었다. 이것은 수령의 사상에 무한히 충직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또한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어 혁명적수령관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시고 그를 핵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리론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정립하시였으며 끊임없는 로고와 현명한 령도로 이 땅에 민족적대변영의 새 시대를 펼치시었다.

전당의 주체사상화가 실현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새롭게 확립됨으로써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되고 당의 통일단결이 사상의지적 및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강화되어 당 건설과 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것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되고 그 기치밑에 사상의 일색화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이룩되어 혁명의 주체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 당의 인덕정치의 해빛아래 온 사회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된것도 그리고 우리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어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도발을 걸음마다 짓부셔 주

체조선의 위력과 **김일성** 민족의 영예를 온 누리에 과시하고 있는것은 바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이다.

위대한 후계자를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5천년 력사이래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고도 주저앉거나 락망하지 않고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힘차게 전진할수 있었으며 우리 나라는 그 어떤 정책적변화가 없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해나가고있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련방제통일방안과 전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굳게 결속되어 조국통일운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벌리고있는것도, 국제적으로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우리에게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급속히 늘어나고, 또 한때 좌절과 시련을 겪던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고, 혁명적당들이 재건되고 혁명대오가 강화되고있는것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결출한 사상리론활동과 세련된 령도예술, 높은 덕망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당의 력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활동력사인 동시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활동력사이며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불멸의 업적은 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임을 실증해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김일성**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사상과 령도, 담력과 인품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꼭 같으신 분이시며 당건설과 모든 혁명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식으로 해나가는 오늘의 **김일성** 동지이다.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충효일심으로 잘 받들어나가야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바로 여기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업적을 형상하는 문제를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완성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 건설과 작품창작에서 우리 작가들이 우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리유가 있다.

후계자의 기본품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있는것만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형상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간직하고계시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철저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계신다. 친애하는 그이의 모든 사색, 모든 활동은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구현하며 수령님의 유훈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잘 관철해나가겠는가 하는 한가지 지향으로 일관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충효심은 그이의 성격적행이며 정신적품모의 정수이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사상의 지적으로 절대적일뿐아니라 도덕의리적으로도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것이다. 때문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형상에서는 무엇보다도 수령님에 대한 그이의 충성심과 효성을 감명깊게 그리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후계자는 선행한 수령과의 관계에서는 후계자이지만 인민과의 관계에서는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민의 령도자, 수령이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형상창조에서는 수령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 기본을 두고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심오하게 그려내야 하며 동시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위대한 품모를 감명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들인 《아침해》, 《예지》, 《푸른 하늘》 등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는것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의도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사색과 정력을 바치시는 열렬한 충신으로 그리는 동시에 비범한 예지와 비상한 전개력을 가지신 뛰어난 사상가, 탁월한 정치가, 인민들과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으로 빛나게 형상하고있는데 있다.

작가들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수령형상리론을 지침으로 삼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함으로써 올해에도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야 할것이다.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에 기초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의 혁명위업완성에 이바지하는 혁명적 작품을 창작하

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작품에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건결히 옹호고수하고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안에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팍 들어차게 하고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낼수 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는것은 주체문학 자체의 본성적요구이다. 우리 문학을 주체문학이라고 하는것도 주체사상을 문학건설과 창작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작품에 철저히 구현하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을 세계관적기초로 하고있는 여기에 유일변증법을 세계관적기초로 한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주체문학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인간중심의 철학인것만큼 그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여 인간을 형상하여야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인간들을 사람의 본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전형화하고 그들의 운명문제에 옳은 해답을 줄수 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자주적인 인간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이며 이들이 바로 주체문학의 주인공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주체사상을 자기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삼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이다. 그들이 지닌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된 충실성이다. 그러므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자면 그들의 생활과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한 충신의 성격적특징과 성장과정을 충실성의 형성과정과 밀접히 결부하여 형상하여야 한다.

당일군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은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들을 대중속에 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의 앞장에 서있는 선봉투사, 혁명전위이다. 일군들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을 당과 수령께 충직한 충신으로, 인민의 총복으로 전형화 하는것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옹호보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이다.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온 자랑스런 60여년간의 긴 로정은 미일 두 제국주

의를 타승한 승리의 력사였다.

작가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군군인들을 그리는데 계속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오늘의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생활과 투쟁을 형상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군장병들을 현시기 인민군대의 임무와 사명에 맞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혁명전사로 잘 형상하여야 한다.

당과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그런것만큼 인민군군인들의 수령과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적에 대한 적개심과 팽배한 전투적기상,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사상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뜨겁게 형상하여야 한다.

오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전쟁준비와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에 더욱 열을 올리면서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침공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이런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작가들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들을 전투적으로 교양할수 있는 혁명적작품들을 더욱 활발히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전투적 후비대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다. 특히 현시기 청년들은 우리의 운명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500만의 총폭탄이 되겠다고 굳게 맹세하였다. 오늘의 현실은 작가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을 더 활발히 창작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청년들을 당과 령도자에게 무한히 충실한 열렬한 청년전위로,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청춘의 열정을 바쳐 가는 위훈의 창조자, 청년영웅으로 형상하는데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계급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혁명적작품들을 계속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다그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숭고한 의지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높이 받들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다. 작가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시대적전형을 생동하게 창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우리 당의 최대의 임무이다. 이 성스러운 투쟁에 자기의 청춘과 생명을 바친 공산주의자들과 청년학생들, 근로자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조국통일위업에 몸바쳐 싸우다가 희생되었거나 지금도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가는 북과 남, 해외에서 투쟁하고있는 사람들, 특히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원형과 사실에 기초하여 형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작가들은 원형과 사실자료를 적극 탐구함으로써 조국통일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 주제분야의 작품창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과 애국, 애족, 애민의 정신, 반제혁명사상과 계급의식을 투철하게 구현하는데 모를 박아야 하는것이다.

올해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매우 방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과업들을 반드시 빛나게 수행할것이다.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를 깊이 학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방침들의 본질과 정당성, 그 구현방도를 깊이 체득하고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문학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풍모, 덕성이 체질화된 당의 문학, 수령의 문학으로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

우리 문학을 당의 문학, 수령의 문학으로 개화발전시켜 나가자면 명작을 활발히 창작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심오한 철학과 깊은 감명을 안겨주는 명작창작은 작가의 높은 실력을 요구한다. 작가의 실력은 저절로 얻어지는것이 아니라 당의 사상과 정책에 대한 깊은 연구와 해박한 지식을 터득하기 위한 정력적인 독서, 실속있는 현실체험과 창작적기량의 꾸준한 련마, 심오한 사색과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서만 얻어진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로작을 높이 받들고 당의 문학, 수령의 문학을 건설하는 커다란 영예감과 높은 자각을 가지고 실력전을 벌려 모두다 명작을 창작함으로써 또다시 올해를 문학분야에 만풍년이 든 해로 문학사에 찬연히 기록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 유훈과 인민

송명근

## 1

우리는 이 말을 몰랐다  
조선은 이 말을 알지 못했다  
분명 조선말 사전에는 이 말이 있었으나  
그것은 우리의것이 아니었다

허나 새해의 이 아침  
우리의 장군님 펼치신 진군길우에서  
심장에 소중한 이 말을 다시금 되새긴다  
오오, 유훈!

그 무엇이  
가슴에 대못을 박듯  
이 말을 인민에게 새겨주었느냐  
하늘을 통채로 기울인듯  
쏟아붓던 폭우여 눈물이어 너였느냐  
하늘을 갈가리 찢으며 내닫던 번개여 우뢰여  
아니면 너였더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웃던 꽃도 눈물에 젖어 울고  
노래하던 날새도 목메여 울며  
삼가 나래접어 내리던  
통곡의 바다, 비애의 강산!

조선의 5천년 민족사가  
만수대언덕에 무릎꿇고 퍼져앉아있었다  
땅을 두드리고있었다  
눈물에 다 젖은 이 지구를-

둘러보면 어둠의 장막  
불가사의한 그 어떤 힘이  
대기의 마지막 한점 공기마저 빨아낸듯  
답답한 가슴을 쥐어짜며  
이 나라 인민이 주저앉아 피눈물 흘릴제

막막한 망각의 어느끝에선가  
하늘 자락이 들리우며  
우르릉-  
인민의 가슴을 들때린 우뢰가 있었으니  
-유훈!

눈물범벅의 온 나라 얼굴과 얼굴들이  
일시에 번쩍 들렸다  
눈물로 번뜩이는 천만의 눈과 눈들이

일시에 모아진 그 한점은  
금수산의사당!

온 나라의 슬픔이 다 젖어든 손수건  
무거운 손수건을 한주먹에 꼭 잡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 순간 인민은 보았다  
틀어쥐신 그 주먹,  
방울방울 떨어져내리는 피방울을!  
평곳평곳 떨어져내리는 불덩어리를!

그리고 들었다 그이의 목소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인민이여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기 위하여!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앞에 주저앉았음은  
인민의 도리였으되,  
어버이 생전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땅을 차고 일어섬은  
이 또한 인민의 도리가 아니였더냐!

## 2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통나무처럼 쓰러졌던 젊은 탄부도  
그 말을 들었다-유훈!  
하늘에서 울려오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하여 의식을 회복한 그 순간  
간신히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말은  
-동무들, 나를 막장으로 데려가달라!

막장으로!  
한교대 친구들이 일어섰다  
로탄부도 제대군인 소대도  
막장으로!-  
벗어선 인차는 그대로 두라  
묵묵히 걸어서들 갔다 막장으로!

지동치는 착암기소리  
조구통이 메이게 쏟아지는 석탄폭포...  
눈물섞인 젊은 탄부의 목소리  
압축공기를 더!  
여기서도 저기서도

깡목을 더!  
광차를 더!...

-수령님의 유혼을 받들기 위하여!  
온 나라가 들었다 장군님의 근엄한 부르심을

피빛으로 타는 꽃송이  
수령님 동상앞에 정히 놓고  
화강석 높은 계단을 내리는 길로  
수천수만 《정춘실》들의 걸음은  
산비탈로 올랐다  
누구는 새 원료기지를 찾아-  
누구는 들판이 진거름을 지고-

수령님 다녀가신 자욱 아직도 뜨거워  
구름처럼 밀려드는 인파로 넘쳤다 온천벌은  
김 한포기 못도는 이랑이건만  
주무르지 않고서는 그냥 못떠나

우리 수령님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걱정하신 쌀  
한톤이라도 더 내자, 더... 그 쌀!

이 나라 하늘땅 공간이  
눈물에 목메는  
한 목소리로 진동하였다  
어디서나 더... 더...  
전기도 강철도 천도  
더 내자 더... 더...

묻지 말라 사람들이어  
이 땅의 열매가 왜 이리 무겁고  
이 나라의 강철  
우리의 석탄이 왜 이리 뜨거운가를

오, 이 나라 인민에겐  
새로운 창조의 기준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겼나니-  
수령님 생전에 바라신것이면  
무엇이나 다  
이 땅우에 받들어올려야 한다는것  
한치도 한줌도 덜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한다, 바라신 그대로!

살아 숨쉬는것도 그것을 위하여  
성스런 땀도  
달리는 이 땅의 시간도 그것을 위하여  
하여 그 무슨 조건이며 타발과 결별한 인민!  
하여 모든 《불가능》과 결별한 조선!

### 3

내 나라, 내 조국을 보라  
벽에 걸린 달력을 번지고번지며  
달마다 8일이 오면, 8일이 오면  
저저마다 꽃을 안고  
수령님 동상앞으로, 동상앞으로  
걸음 절로 향하는 인민의 흐름-

이 나라의 수많은 기념일과 함께  
매 달의 8일마다 8일마다  
수령님 찾아  
유혼의 뜻 다시 새기고  
불같은 그 맹세도 다시 달구는  
8일의 새로운 이 관습은  
대를 이어 조선의 전통으로 되리라

아침에 잠을 깨도  
기대의 스위치를 넣을 때도  
모든 일, 모든 생각의 첫머리엔 있어라-유혼!  
이 나라 그 많은 거리와 마을  
그 많은 구내와 포전, 건설장의 숙보판마다  
새해의 이 아침에도  
웨치는 글밭도 유혼!

누구나 이앞에  
생각은 무거워지고  
그 말의 의미를 헤아리기엔  
너무도 나어린  
백지같은 마음에도 피눈물이 물들어  
효성의 나이 이른 철이 드는것을,

부끄러우라 부끄러우라  
그앞에선 부끄러우라  
한몸의 안락 위한 타산과 치부는  
깃들곳 있으라  
성스런 이 땅의 어느 한 구석인들  
심장의 어느 한 귀퉁이인들

...  
소복이 내려쌓인 숫눈길을 밟으며  
한쌍의 청춘이 걸고있었다

고요...  
대동강반의 고요...  
인생의 엄숙한 계선에 다가선듯  
다만 높아가는 총각의 숨결  
두려운 그 한마디 기다리는듯  
다만 높아가는 처녀의 숨결

큰 숨을 들이켰으나  
 총각은 또 갑재이기만하고  
 긴 속눈썹의 아릿다운 눈은 쳐다만보고  
 꽃잎같은 눈송이는 발밑에 내려앉으며  
 -말하려무나, 말하려무나  
 내리는 눈송이마저 끝없이 속살거리고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힘겨운 총각의 말은  
 -가겠소, 난... 농장벌로...  
 문득 눈덮인 유보도우에  
 굽높은 구두발이 박힌듯 벗어섰다

또다시 숨막힐듯 길고긴 고요...  
 다음은 처녀가 깨뜨리는 무거운 고요...  
 -나라고 왜... 나라고 왜...  
 수령님 생애의 마지막까지 걸으신 길인데  
 우리 장군님 제일 걱정하시는 그 길인데...

포웅...  
 두 심장이 하나되는 열렬한 포웅...  
 수령님 유훈의 뜻을 두고  
 아껴줄 젊음이 따로 없어  
 경애하는 장군님 더 잘 받드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은 몰라-

고맙다 청춘이여  
 아름다워라 청춘이여  
 어려워도 힘겨워도  
 주저도 없이 미련도 없이  
 한뼘으로 내닫는 청춘의 걸음!  
 한줄기로 굽이치는 인민의 마음!

무엇이더냐  
 천만의 심장을 하나로 움직이는 힘은  
 그 어떤 의무  
 발을 맞추게 하는 구령이더냐?  
 머리위에 군림하는 권력이더냐?

맑은 눈물의 바다를 넘어  
 가장 순결해진 도덕이 우리에게 있어라!  
 뼈저린 자책의 통곡을 넘어  
 가장 숭고해진 의리가 우리에게 있어라!  
 피눈물의 맹세우에 솟구쳐  
 산악처럼 드팀없는  
 우리의 도덕, 우리의 의리이거니

내 나라, 내 조국을 보라

세계여 이제는 알겠는가  
 《압력》과 《봉쇄》의 쇠사슬을 풀어  
 제국주의 면상을 통채로 후려치는 거인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디디고  
 해가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커진 조선을!

## 4

오오, 유훈!  
 인류가 아직 발견 못했던 불씨가  
 심장의 용광로마다 만장입 되어  
 새해벽두부터 뿜으며 불란다 조선은  
 비약에서 비약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주체의 최고성지를 높이 세워주셨으니  
 이 세상 어디서나 바라보이는 거기  
 이 세상 모든 길들이 합쳐지는 거기

낮이나 밤이나  
 금수산 성지의 하늘가엔  
 유훈의 글발이 영원한 노을로 피어오르고  
 낮이나 밤이나  
 승업한 홀에선  
 불변의 진리가 영원불멸의 메아리로 울려나오거니!

홍할지어다 부강할지어다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  
 어버이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나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이여  
 이제 쌀더미는 메부리를 이루고  
 이제 비단은 강물처럼 흐르리  
 락원의 대기념비들은 숲처럼  
 이 강토를 꽉 채우리  
 주체혁명은 승승장구하리

더 굵은 땀방울로 이 땅을 걸구고  
 더 맹렬한 사색으로 재부를 늘이자  
 받들다 한몸이 부서지고  
 받들다 뉘를 뿌려 순직해도  
 더 힘차게 일하자 인민이여 더...더...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하여

수령님의 유훈이 만발하여  
 이 강산과 함께 수령님은 영생하고  
 수령님과 함께 인민이 위대한것이여라!

## 정월초하루에 울린 기적소리

정월.

승리와 영광으로 조국청사를 빛내인 또 한돌기의 년륜을 이 세기에 남기고 새해가 밝아왔다.

한평생 우리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위업과 오늘도 수령님의 높은 뜻을 더욱 활짝 꽃피우시려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으로 밝아온 이 땅의 한해가 시작되는 달이다.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며 추억과 희망의 달을 맞은 우리 인민은 가슴속에 갈마드는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을 우러른다.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세월의 모진 풍상을 이겨가시며 혁명의 먼길을 걸어오신 우리 수령님.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그 길위에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계셨고 이해에도 사랑의 그 길을 끝없이 이어가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새해의 문어귀에 들어서니 우리가 누리고있는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하시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로고가 돌이켜져 눈물이 앞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온갖 배려를 베풀어주고 있으며 그것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온갖 배려를 다 받아안고있으며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크나큰 은정속에 살고있다.

정월은 한해의 시작이기에 앞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만복이 먼저 다가오는 달이기도 하다.

인민을 위하시여 설명절도 보내시고 대소한의 추위를 헤치시며 한해의 첫달부터 인민들속에 계신 두분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감동깊은 일화들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1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해의 사업이 설계되는 이 달에도 인민행렬차에 함께 계시면서 인민에게 안겨줄 사랑의 설계도부터 마련해가시였고 인민을 찾

아 현지지도의 길을 달리시였다.

1월에 부치여 얼마나 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는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이야기들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의 뜨거운 이야기를 되새겨본다.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위대한 강령이 태어나던 그 시기 정월의 날에 있는 일이다.

주체적인 농촌건설사상이 집약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력한 무기를 마련해가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해에 들어선 첫날부터 농민들속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함께 걸으시였다.

1964년 1월 10일.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온천땅의 해돋이벌을 찾으시였다.

소한의 추위가 터진 맵짠 겨울날씨여서 땅우의 모든것은 얼어붙어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찬 바람이 불어치는 겨울날씨도 아랑곳없이 이미부터 무르익혀오시던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심오한 사상을 정립해가시며 이날의 하루를 온종일 들길에서 보내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문제는 사회주의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농민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적극 다그쳐 그들을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힘있게 내세우기 위하여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할 문제였다.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헤아리시여 그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해주시고 협동화의 지름길도 밝혀주시여 우리 농촌의 면모를 새롭게 변혁시켜 주시고도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완성된 학설을 안겨주시려고 한겨울의 날씨도 무릅쓰시고 열정적인 담화를 하시며 나란히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이미부터 작성하신 농촌건설강령을 현지에서 확정하시며 걸음을 옮기시는 어버이수령님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촌테제가 가지는 력사적 의의와 정당성을 론증하기도 하시고 농촌문제의 정식화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어버이



수령님과 꼭 같은 자신의 견해를 말씀드리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구상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히시면서 심오한 사색을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떠나가시었다.

농촌테제에 담겨질 수많은 사상과 이론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 농민들과 농촌의 앞날을 위하여 사색과 의견을 모아가시며 심혈을 바쳐가신 력사의 그날이 새겨진 정월.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명제에는 이렇듯 두분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이 스며져있다.

이날 아버지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나누시었다.

온천땅에 력사의 자욱이 새겨진 얼마후 세상에는 처음으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불멸의 대강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었고 지역적단위에 대한 불멸의 사상이 집대성된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불후의 로작이 나와 세상사람들을 경탄시켰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는 완성된 농촌건설강령을 가지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갈수 있게 되었다.

그렇듯 인민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가시던 두분의 위대한 아버이의 발자취가 정월의 그날들에 어찌 농장의 들길에만 어리었으랴.

어느해의 정월에는 인민들이 쓰고살 살림집을 위하여 찬바람부는 하루의 저녁시간을 한지에서 다 보내시고도 다음날에는 또다시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입힐 양말바지를 더 많이 만들게 하시려고 눈덮인 어느 편직공장의 구내길을 걸으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병사들이 지켜선 초소에도 바다가의 어촌마을에도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전하는 기념비들은 그 얼마던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남기신 인덕정치의 화원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어느해인가는 설날에 이어 다음날도 인민들이 먹게 될 국수의 맛을 두시고 마음쓰시며 국수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새해의 첫 과업으로 일군들에게 주시면서 그해의 사업을 시작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었다.

인민들이 먹을 김치인데 이대로는 공급하지 못한다고 공장에서 김치를 더 잘 만들도록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몸소 그 맛까지 보아주시며 심려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사랑속에 흘러간 정월의 어느날도 있다.

빙설천지의 령길을 넘으시여 증산군의 어느 한 식료품상점을 찾으시고 주민들에 대한 식료품공급사업을 관심하시면서 그곳 사람들이 생활에서 느낄 자그마한 불편까지 헤아리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마음을 안고 저물어가던 정초의 날도 있지 않던가.

평범한 한 녀성로동자의 건강에 무관심한 일군들을 책망하시며 약보다도 더 필요한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그날이며 이름없는 한 전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긴긴 겨울밤을 잠 못드시던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 그런 날의 이야기도 간직한 우리의 1월.

인민 위해 설날부터 동삼의 추위를 헤쳐가신 두분의 위대한 아버이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는 조국땅 그 어디에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의 그 어느 갈피에나 뜨겁게 뜨겁게 깃들어있다.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정월의 첫날부터 이 나라 강산에 사랑에 대한 무수한 노래를 낳으며 날과 달을 이어 울리고 울리었으니...

하기에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에 받들리어 마음속에 소중히 1월을 안고사는 우리 인민이 아닌가.

이해에도 우리 인민은 더더욱 풍성하고 좋아질 행복한 생활과 부강할 내 조국을 확신한다.

한것은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우에 펼쳐진 내 나라의 모습과 수령님 꽃피우신 인민의 행복을 아름답게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혜로운 손길이 이 땅 어디에나 미쳐가고있기때문이다.

하여 엄동의 설한이 한창때인 이 달에도 우리의 가슴은 후더웁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천만년길이 모시려는 충효의 마음은 백두의 흰눈처럼 순결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다져나가는 인민의 기상은 백두밀림의 폭풍처럼 기세찬것이어라!

본사기자 로창일

## 서사시의 예술적 감흥과 여운을 두고...

### 그리움의 대하를 타고흐르는 독특한 구성의 매력

김성우

아버이수령님이 한없이 그리워질 때면 나는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를 펼쳐들곤 한다. 그러면 시인과 함께 그리움의 노를 저어 피눈물의 대하를 거슬러올라 못잇을 7월의 그날 비애의 기슭에 서기도 하고, 80여성상 곡절많은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인민을 자주의 새 삶에 이끌어들인 아버이수령님의 한생을 더듬게도 되며, 또 다시 그리움의 붓을 따라 그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산악같이 일떠서던 격동의 나날도 되새겨보게 된다.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 우리 한생에 일찌기 체험해본적도 없고 또 다시한번 이런 체험을 가져볼수도 없는 그런 거대한 감정의 격류를 타고 이 서사시가 흘러나가고있다. 그 그리움의 세찬 흐름은 우리 혁명의 붉은기를 물들인 주체의 빛깔이 찬란히 비쳐가는 우주의 무한대한 공간과 세기의 무수한 갈피갈피를 다 건너안고 장엄한 영생의 송가를 엮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서사시의 폭넓고 깊이있는 독특한 구성의 비결을 이 비상한 그리움의 감정의 견인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둥이 바로서지 못한 집은 무너지기마련이다. 아무리 종자가 좋고 묘사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구성을 잘 유지 못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격으로 작품이 뒤집히고만다.》**

이 서사시에서 예술적형상의 탑을 아름답게 쌓아올릴수 있게 한 구성의 비결은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의 정서를 감정조직의 튼튼한 기초로 삼고 그리움의 감정론리에 맞게 서사적 및 서정적 형상요소들을 잘 통일시킨데 있는것이다. 이 서사시의 중요한 구성상특징은 서사시전반에서 시인의 감정선과 인민의 감정선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감정선을 따라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어 감정조직을 실현하고있는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정녕 우리 보낸 이 한해는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려는  
친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심장으로  
이 땅을 덮혀온 한해

바로 이것이다! 아버이수령님을 꿈결에도 못잊어하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그리움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심장속에 그 참된 원천을 두고있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수령에 대한 가장 순결한 충성심과 극진한 효성을 심어주고 가꿔주신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고 애도의 전기간 그 가장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신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영결의 그 시각부터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겪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더불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리워하였으며 아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받들어모시려는 오직 하나의 일념속에 주체의 최고성지를 일떠세웠다. 위인의 심장과 더불어 하나로 고동치는 천만심장의 박동에 맞추어 시인의 심장도 고동치고있다.

때문에 시인은 서사시를 구성함에 있어서 아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과 인민의 마음 그리고 시인자신의 사색과 체험을 펼쳐보이는 대목들을 구태여 따로 설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아니, 그럴때야 그럴수가 없었다. 서사시에서는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시인 - 《나》의 한없는 그리움의 세계가 어느새 《우리》라는 표현으로 되어 전인민적인 그리움의 세계로 펼쳐지며 그것은 다시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리움의 세계로 되어 걱정적인 서정의 분출을 낳고있다.

서사시의 《서정적주인공》은 누구인가, 완전히 하나의 감정선으로 엮혀진 시인, 인민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종래에 서사시라고 하면 자기의 형태상특성으로 보아 중심주인공의 성격과 생활에 대한 객관적인 체험을 담은 서정적으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서사성과 서정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을 기본징표로 보아왔다.

서사시의 첫부분을 보면 여기서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서사적》묘사는 거의 없다고 할수 있다. 비애의 기슭,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시인자신의 체험과 대담한 시적환상의 세계가 있고 아버이수령님을 끝없이 그리워하며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는 인민의 느낌이 노래되어있다. 서사시의 둘째부분에서 비로소 아버이수령님께서 한생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서사적》 묘사가 있는것으로 보이지만 다시보면 이것 역

시 그이께서 오실 때는 것처럼 조용히 오시었지만 가실 때는 천지를 진감시키고 온 세계가 한꺼번에 울게 하시었다는 하나의 《서정적》시상의 전개된 묘사라고 보는것이 더 타당하다. 끝없는 그리움속에 우리 수령님 걸으신 자욱자욱을 깨끗한 마음으로 더듬어나가는 시인-인민의 체험과 사색이 기본이지 어버이수령님의 생애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는 거의 없다. 더우기 서사시의 셋째부분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과 인민이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지와 신념에 대한 형상에 바쳐지고있다.

이런 까닭에 이 서사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그리워하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인민, 시인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감정선우에서 격조높이 펼쳐보임으로써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중심으로 완전한 혼연일체를 이룬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통체로 주인공으로 내세워 노래하였다고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것이다. 그래서 이 서사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송가일뿐아니라 그것은 곧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송가이며 수령을 효성으로 받들줄 아는 인민에 대한 송가이기도 하다.

서사시의 중요한 구성상특성은 오직 한점에 줄지어 쏟아져내리며 깊은 확을 파고 또 파는 그리움의 감정적폭포로 이루어진 고도의 집약성이다.

이 서사시에 노래되어야 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결한 인덕이 포괄하는 묘사령역은 너무도 넓다. 그것을 어떻게 한편의 서사시에 다 집약할것인가. 그토록 거대하고 그토록 강렬한 이 아름다운 체험과 생각은 또 어떻게 다 담을것인가. 보통의 서사시처럼 위대한 생애의 어느 한 단계를 위대한 업적의 어느 한부분만을 포착하여 깊이있게 전형화하는 과정에 전후좌우의 연관속에 위인의 인간상이 폭넓게 일반화되게 할것인가? 아니면?... 아마도 시인은 적지 않게 이런 고심에 모대기였을것이다.

그러나 역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격동적인 정서는 서사시구성의 집약성도 담보해주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한생을 두고 간직하게 될 줄기찬 감정이면서도 일단 분출하기 시작하면 결코 긴 여유를 두고 읊어내릴 그런 보통의 감정이 아니다. 너무도 뜻밖의 상실이었기에, 너무도 상상못할 현실이었기에 그것은 분수처럼 솟구쳐 오직 한훔으로만 내달리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 안겨서야 비로소 와락 쏟아져내리는 거세찬 폭포였다. 그 슬픔, 그 그리움의 폭포를 한품에 받아안아줄 그런 큰 심장은 오직 그이 한분만이 지니고계신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만약 그 그리움으로

산을 쌓는다면

이 산보다 더 높은 산은 없으리라

그 그리움의 뜨거움으로는

바위도 녹이리라

강철도 녹이리라

이런 그리움의 대하를 타고흐르는 작품의 구성은 자기의 독특한 양상에 맞게 되어야 할것이다.

시인이 《심장이 가리키는 그대로 그리움의 붓을》 달려가닿은 기슭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이다.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뵈옵는듯한 환상의 세계에 들어섰던 시인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에 몸부림친다. 이 격렬한 그리움의 감정세계는 시인으로 하여금 영생의 집-금수산기념궁전을 순시라도 떠날것을 허용치 않는다. 하기에 시인은 세부분으로 나뉘어진 구성의 중요 계기를 다 이 영생의 집 문어귀에서 찾고있으며 오직 이 한점에 서서 그리움의 감정선을 타고 무한대한 시공간으로 체험과 사색을 펼쳐나갔다가도 다시 또 이 원점으로 돌아와 시를 끝맺고있는것이다. 그리움의 감정의 폭포는 오직 이 한점에 떨어져 깊게 또 깊게 신념의 확을 파고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하신다는것이다!

나는 이전에 다른 나라 시인이 자기 수령의 서거에 즈음하여 쓴 서사시를 감명깊게 읽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적인 명작의 계열에 놓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 서사시는 구성의 견지에서 보면 자기 수령의 서거로 하여 느낀 절통한 비애의 감정으로로부터 시작되고 결말도 거기서 끝나기는 하나 긴 중간부분은 수령의 일대기와 업적을 년대적순차에 따라 장엄하게 노래하는 구성방식을 취하고있었다. 물론 그 작품도 구성의 짜임새나 양상에서 자기의 특색과 장점을 가지고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는 그 작품과 다른 고유한 생리를 가지고있는데 그것은 구성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하여 그리움의 정서적격류를 유지하고있는것이다. 서사시에서는 잠시도 강렬한 그리움의 감정선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속에서 우리 수령님의 전생애와 업적을 집약화하여 보여주고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선까지 진하게 통일시키고있다. 이것이 이 서사시에서 고유한 양상인 동시에 고도의 구성상 집약성을 달성하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나는 이 서사시가 바로 이상과 같은 점에서도 귀중한 창작적경험을 남겨준 특색있는 걸작이라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시단에 솟아오른 세계적인 걸작을 가지고있는것은 얼마나 긍지높은것인가!

## 명작의 형상을 담보한 참신한 시어

리성덕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의 높은 형상성은 통속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철학성이 있고 서정성이 깊은 참신한 시어들에 의해 훌륭히 담보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오직 언어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그리며 사상 감정을 전달하는것만큼 읽는 사람들이 작가의 능란한 언어 솜씨에 매혹되어 한문장한문장 눈을 밝혀가며 새겨나갈 수 있게 되여야 한다.》

작품의 시어들이 뜻이 깊고 심오한 철학성으로 빛나고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신 감동적인 말씀의 구절구절들을 그대로 시화한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은 세계를 무기없이 지배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야말로 세계를 밝히는 해불이고 지구를 움직이는 지레대이며 역사를 전진시키는 기관차라고 말씀하시였다.

서사시의 작가는 이 불멸의 명제, 명언을 수령님의 위대성을 소리높이 구가하는 주옥같은 시어로 형상함으로써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을 훌륭히 담보하였다.

생각할수록 감사와 고마움에 젖는 마음  
우리의 손에  
운명을 개척하는 열쇠를 쥐여주시고  
인류의 가슴에 지구를 움직이는 지레대를 안겨주시고  
역사의 대로에  
혁명의 기관차를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래서 태양의 이름을  
누구나 다 알듯  
우리 수령님의 이름은  
세상이 다 아는것 아니던가

그 이름은 주체  
그 이름은 자주  
그 이름은 그 이름은  
인류의 영원한 태양

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가 심장으로 체험하고 절감한

불멸의 명언을 그대로 시화하여 격조높이 노래함으로써 서사시는 우리 당과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모시고 살았으며 얼마나 위대한분을 잃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할수 있는 최고의 형상을 낳았다.

서사시는 우리 수령님은 학문에서도 최고이시고 군사적 지략과 인덕에서도 최고라고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말씀과 사상도 제일, 령도도 제일, 덕망도 제일이어서 수령님 지니신 권위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위라고 하신 력사의 정의를 그대로 시어로 선택하고 작품의 구성체계의 가장 적절한곳에서 은을 내게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서사시는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대대손손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도 건설도 오직 수령님식대로만 해나가리라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결심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님이시고 우리 민족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민족이라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탁월한 명언도 시어로 활용하여 형상의 품격을 높이고 철학적심오성을 훌륭히 구현하였다.

이것으로 하여 서사시의 화폭마다에서 격정을 자아내는 풍만한 서정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신념, 숭고한 도덕의리와 강요한 의지로 빛을 뿌리고있다.

이렇게 시어들이 뜻이 깊고 철학성이 투철한것으로 하여 서사시는 주체문학의 본보기, 세계적인 걸작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할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 서사시에 자신께서 하자고 하던 말이 다 있다고 그리도 높이 평가하시였던것이다.

서사시는 이렇듯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하신 말씀의 진수들을 시화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서사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한해동안 그이께서 체험하신 내면심리의 깊이있는 개방을 통한 정서적구현으로 참신한 시어들을 빛내이고있다.

오매에도 수령님이 그리우시여 수령님께서 멀리 출장가신것만 같다고, 출장가시여 이번에는 오래 계시는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으시고 수령님 가셨던 그 길로 사적깊은 초소들을 찾으시고 수령님 앉으셨던 그자리에 앉으시여 군인들의 공연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꾸리시여 수령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인민의 소원과 인민들과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하

신 수령님의 소원을 풀어주신 **김정일**동지.

서사시는 모든것을 오로지 수령님을 위하여 바쳐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내면심리를 깊이있게 개방한 정서질은 시어들의 참신한 구현으로 형상을 무르익히고있다.

이렇듯 서사시는 력사가 알지 못하던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령도자의 충효일심으로 일관된 내면심리를 개방한 참신하고 격조높은 시어들의 형상적구현으로 예술적품위를 최고의 높이로 승화시키고있다.

여기에 또한 이 작품의 시어선택과 활용에서의 빛나는 성과의 한 측면이 있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간결한 형상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참신한 시어들의 발견으로서 그 형상을 최고의 높이에서 훌륭히 담보하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주인없던 세계에 주인을 내세우는 거룩한 빛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자로 묘사한데서와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길에 대한 집약적인 형상을 창조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인간이 수천년을 쓰고살던 노예의 사슬을 벗겨주고 어둡던 밤을 몰아내고 해방의 새 아침을 불러온 주체의 빛,

이 형상적인 시어의 발견은 이 세상 처음으로 인민이 세계의 주인으로 될 새 세상을 세우고 인민이 가고 혁명이 가야 할 력사의 진로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집약적으로 매우 감동깊게 보여줄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주체의 길이라는 형상적인 시어의 발견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로정을 형상적으로 집약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20세기를 **김일성**세기로 빛내이고 21세기를 **김정일**세기로 이어놓은 불멸의 위업을 이룩한 주체의 길에 대한 형상적인 집약화는 함축되고 시화된 격조높은 시어들의 풍만한 서정으로 하여 읽는 사람들의 가슴들을 한없이 격동시킨다.

서사시는 이러한 독특한 시어의 형상적발견으로 예술적

풍격을 한껏 높이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셨던 고결하신 인간적품모에 대하여 보태지도 덜지도 않고 사실그대로 소박하게 형상하고있다. 하여 작품은 인민위해 불같이 사시다가 그렇게 불같이 가신분, 수령으로, 어버이로, 인간으로 해야 할 그 모든 일을 미결건 하나없이 다 매듭지으시고 너무도 깨끗이 한생을 마무리하신 절세의 위인의 인간상을 소리높이 구가하였다.

그 묘사에 선택된 하나하나의 시어들은 너무도 평범하고 소박하나 인간적향기를 더해주는 감정의 뜨거운 련결로 하여 우리들의 폐부를 찌른다.

오실 때는 그렇게도 조용히 오시였지만 가실 때는 천지를 진감하고 세계를 한꺼번에 울게 하시였다는 이 간결한 시어들의 빛나는 형상속에 한생에 이룩하신 수령님의 위업이 얼마나 크고 이 땅에 남기신 업적이 얼마나 거대한것인가 하는 그 위대함이 집약되어있다.

이 땅엔 수령님 탄생하신 날만 있고 수령님 가신 날은 없으며 흘러가고 흘러오는 무궁한 세월속에 4월은 있어도 7월은 없다고 웨친 시인의 소박한 시어속에 우리의 걱정을 자아내는 강렬한 서정이 얼마나 거세차게 흘러넘치고있는가.

서사시는 소박하면서도 철학성이 심오하고 서정성이 짙은 참신한 시어들, 시종일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통속적인 명구들, 간결하면서도 분석적인 언어구사, 적중한 비유, 표현의 명백성과 함축성 등으로 하여 비할바없이 큰 감화력을 가진 시구들의 능란한 활용으로 하여 시대의 명작, 걸작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고있다.

이 서사시의 경험은 언어형상에 문학의 비결이 있다고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문학기론의 진리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풍을 따라배우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바라시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고 참신한 언어구사로서 불멸의 형상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하여 사색과 탐구를 깊이있게 하여야 할것이다.

## 총성의 분화구에서 솟구쳐오른 대담한 시적환상

리동성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에서 시적환상의 기초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한 그 피눈물의 기슭-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생시와 다름아닌 수령님과의 현실적인 상봉이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완전한 현실적감각으로 실현된

시인은 환상의 세계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보고

있으며 세차게 고동치고있는 수령님의 심장의 맥박도 듣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신께서 말하자는 모든것을 다 말한 만점짜리 최대의 걸작이라고, 그가 《금수산기념궁전앞에 섰노라》, 《조용히 책장 번지시는 소리도 들릴듯》이라는

시구를 쓴것을 보면 시적환상이 대단하다고, 어떻게 자신  
께서 생각하는것과 꼭 같이 썼는지 모르겠다고 높은 평가  
를 주시었다.

작가가 펼친 이 대담한 시적환상은 참으로 그 참신함과  
생동함, 풍부함과 심오함으로 하여 시대의 기념비적결작을  
낼수 있게 한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 ×

시적환상은 시작품창작에서 형상의 날개라고 할수 있다.  
시인이 펼친 시적환상은 곧 시형상의 직접적인 내용을 이  
루게 되며 시적환상이 얼마나 풍부하고 폭넓고 깊이있게  
펼쳐지는가에 따라 시형상의 폭과 깊이, 그 형상수준이 좌  
우된다. 시적환상이 협소하면 시형상도 왜소해지며 따라서  
정서적감화력도 낮아지게 된다. 시적환상은 될수록 풍부  
해야 하며 새롭고 특색이 있어야 한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를 창작함에 있  
어서 시인은 풍부하면서도 다면적으로 립체성있게 새롭고  
특색있게 시적환상을 펼침으로써 작품의 형상이 커다란 감  
화력을 가지고 안겨오게 하고있다. 서사시의 전반적인 시  
적환상을 어느 한 시점에 국한시키지 않고 과거, 현재, 미  
래의 교차적인 시점에서 자유분방하게 펼친것이라든가 극  
적으로 대조되는 심오한 의미와 감정을 서로 대립시키면서  
매 장의 시적환상을 펼친것은 그 뚜렷한 레증으로 된다.  
이밖에 작가가 펼친 시적환상을 두고 많은것을 고찰할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작가가 특별히 대담하게 시도하고 펼  
친 시적환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서사시의 첫째부분을 펼치면 눈물을 머금고 금수산기념  
궁전을 찾았던 시인과 생존해계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교  
감이 생생히 펼쳐진다.

이제라도 문득  
저 정원의 시험포전에서  
팔소매 걷어올리신  
수령님의 그 모습 뵈올듯  
정적이 깃든 저 창문아래서  
조용히 책장 번지시는 소리도 들릴듯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가슴에 쿵쿵 울려오는  
세계를 호흡하던 그 심장의 고동소리  
력사를 이끌던 그 거룩한 발자국소리...

이것은 서사시의 전반적인 시적환상의 밑바탕에 깔린 가  
장 본질적인 체험세계인 동시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그대로 펼쳐

놓은 시적환상이다. 독자들은 이 환상세계에서 생존해계시  
는 어버이수령님을 다시금 뵈옵게 되며 커다란 격동과 흥  
분에 휩싸여 가슴을 들먹인다. 사실 위인의 체취가 스며여  
있는 성지에 자기자신을 세우고 떠나가신 위인과의 생생한  
교감의 세계를 펼친다는것은 보통상식으로는 생각할수 없  
는 엄청난 일이다. 지금까지 수령형상창조에서는 반드시  
실재하였거나 있을법한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는것이 넘  
을수 없는 한계선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시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이 신념과 의지를 집  
대성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이 한계선을 뛰어넘을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그리하여 대담한 시적환상의 세계를 펼  
쳤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영생의 화폭으로 전 형상을 일  
관시킬수 있었으며 마지막에 《김정일동지 그이 계시여 수  
령님은 오늘도 인류의 심장에 고동을 주시며 새 세계를 향  
해 걸어가신다》는 거대한 시적환상을 펼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형언할수 없는 숭엄한 격정에 휩싸이게 할수 있었  
다.

시대와 현실에 대한 깊이있는 파악에 기초한 대한 시적  
환상은 또한 위인의 심중에 대담하게 들어서서 위인의 사  
상과 의지, 감정을 폭넓게 개방하여 환상적으로 펼치고있  
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일수록 하나의 문제를 두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는 수령의 심오한 심리세계를 깊이 파헤쳐  
보아야 하며 또 그럴 때에만 위인으로서의 수령의 품모도  
응당한 높이에서 그릴수 있다. 이것은 수령형상창조의 고  
유한 생리이기도 하며 합법칙성이기도 하다. 시인은 령도  
자의 사상, 의지, 감정에 대한 깊이있는 파악과 확신에 기  
초하여 령도자의 내면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그 내부적체험  
세계를 개방하여 펼쳤다. 서사시의 1장에서는 경애하는 장  
군님의 심중에 서서 수령님 그리우시여 멀리 출장가신것만  
같다고 말씀하시고 수령님 다녀가셨던 사적깊은 초소를  
찾으시여 수령님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앉으시여 녀성초병들  
의 공연도 보여주시는 숭고한 뜻을 깊이있게 분석적으로  
펼치고있으며 2장에서는 수령님의 심중에 선 심리분석적형  
상과 객관적인 서사시적형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항상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양보하시는 수령님의 위인상을 심도  
있게 밝혀내고 있다. 수령과 령도자의 내면심리세계에 대  
한 개방은 3장에 이르러 보다 대담하게 실현된다. 그것은  
시인이 령도자의 시점에 서서 그 심오한 사상과 의지를 직  
접 령도자의 목소리로 펼치고있는데서 절정을 이루고있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모든것을 수령님 가르치심대로  
모든것을 이 세상 모든것은  
오로지 수령님을 위하여!

아, 이것이  
 력사의 조종간을 틀어쥐신  
 위대한 그이의  
 정치철학  
 정치방식  
 정치신념

이 부분에서 독자들은 지금껏 마음속으로만 공경하여오던 령도자의 사상정신세계를 직접 대하게 되며 커다란 흥분과 정서적충동에 싸여 그 심층의 말을 읽게 된다. 시인은 대담한 시적환상을 펼쳐 독자들을 령도자의 내면세계에 끌어들이고있으며 령도자와 인민의 사상의지적교감을 완전무결하게 실현시키고있다. 참으로 이 시적환상은 령도자와 인민의 사상의지적, 감정적 결합을 원만히 이루게 하며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흠모의 감정을 절대적인 경지에까지 끌어올릴수 있게 하는 훌륭한 시적환상이다.

서사시창작에서 발휘된 시인의 특출한 시적환상은 또한 심오한 철학적의미를 가진 추상적인 개념들을 하나의 뚜렷한 표상으로 생동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생각할수록 감사와 고마움에 젖는 마음  
 우리의 손에  
 운명을 개척하는 열쇠를 쥐여주시고  
 인류의 가슴에  
 지구를 움직이는 지레대를 안겨주시고  
 력사의 대로에  
 혁명의 기관차를 올려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이것은 서사시 2장의 한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생활에 대한 구체적이며 생동한 정서적과악에서 생긴다. 제시된 생활표상이 구체적이고 생동할수록 그만큼 정서적효과도 커진다. 특히 명확한 표상으로 그려볼수 없는 추상적인 의미를 작가가 뚜렷한 하나의 생활표상으로 펼쳤을 때 독자들은 그 하나의 표현이나 세부에서 순간에 몇백마디의 말을 읽게 되며 커다란 정서적감흥을 받게 된다. 여기서 시인은 심도있는 시적환상으로 주체사상을 《열쇠》로,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의지를 《지레대》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혁명의 기관차》로 생동한 하나의 구체적인 표상에 비유하여 제시하고있다. 독자들은 심오하고도 거대한 철학적의미를 한눈에 파악하며 깊은 시적감흥에 빠져들어간다. 이러한 특출한 시적환상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사상을 《빛》으로, 헤쳐오신 력사를 《길》

로, 수령님의 업적과 위인상을 《심장의 무게》로 하나의 생동한 표상속에서 심도있게 펼쳐고있는데서도 보여지고있다. 이밖에도 서사시에 펼쳐진 《조기에 가리워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눈물에 가리워 땅이 보이지 않았다》, 우주도 행성우에 눈물의 소나기를 쏟고 지구도 운동을 멈추었다와 같은 과장된 시적형상은 시인의 풍부한 시적환상세계를 그대로 말해준다.

×

그러면 이러한 시적환상은 어디서부터 오는것인가. 시인의 《자아체험》세계인가, 아니면 우발적으로 떠오르는 《시적령감》에서인가, 아니다. 시적환상을 규정하는것은 작가의 세계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감정의 성질과 체험정도를 규정하는 근본요인은 세계관이며 정신적준비상태이다.》**

시적환상은 철저히 현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감정의 성질과 체험정도를 규정하는 근본요인이 세계관이며 정신적준비상태일진대 그를 기초로 하는 시적환상이 세계관에 의해 좌우된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리치이며 나아가서 세계관이 시적환상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사시에 펼쳐진 시적환상의 세계는 그것이 수령과 령도자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과 그 사상과 의지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과 확신, 충성의 열도에서 출발한 현실에 대한 예민한 예술적감각과 풍부한 환상력에서 나온것임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실지로 시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오한 사색의 갈피갈피에서, 옮기시는 걸음의 자욱자욱에서, 우리 현실의 순간마다에서 높은 충성심과 작가적인 감각으로 당의 숨결과 의지, 인민의 맥박과 박동을 예민하게 느낄줄 알았으며 그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넣을줄 알았다. 또 그것을 풍부한 예술적환상으로 펼칠줄도 알았다. 오직 당의 뜻으로 고동치는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 그 뜻으로 사색의 세계를 펼칠줄 아는 작가만이 령도자의 심층을 그대로 대변할수 있는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을 창작할수 있다.

참으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 숨쉬고 사고하고 행동할줄 아는 작가의 고결한 충성심과 그로부터 나온 대담한 시적환상이 낳은 우리 시내의 기념비적대결작이다.



## 설날들에 있는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의 중하를 한 몸메 지니시고 얼마나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이께서 설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놓고도 뜨겁게 느끼게 된다.

설명절이라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그 누구를 막론하고 즐기며 휴식하는것이 오랜 옛적부터 내려오는 굳어진 관습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만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다 즐겁게 명절을 즐기도록 해주시고 자신께서만은 변함없는 《로동일》로 그날들을 보내고계신다.

그것도 한두번의 설이 아니라 모든 설날들을 다 바쁜 일속에 보내신다.

여기서 그 실례로 1976년 설날부터 10년간의 일지중에서 일부를 펼쳐보기로 하자.

△1976년 1월 1일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도당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를 여시고 《올해 당 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중심적과업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무력부의 책임일군들을 만나 담화를 하시고 인민군대앞에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라는 새로운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1977년 1월 1일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앞에서 《올해에 당조직들이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에게 사업에서 언제나 원칙적립장을 지키며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일생을 진실하게 살데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만수대에술극장에서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공연을 보시고 문학예술부문 지도일군들과 작가, 예술인들에게 새해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예술창조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1978년 1월 1일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앞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전당, 전민을 불러일으켜 제2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자》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만수대에술단 창작가들에게 서정이 깊은 노래를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1979년 1월 1일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에게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어로공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문을 보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해당 일군에게 새해에 진행할 대외사업방향을 밝혀주시고 예술외교를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였다.

△ 1980년 1월 1일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정무원의 책임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당 제6차대회전으로 올해 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총진군을 벌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위대한 수령님을 잘 받들어모시는것은 우리의 숭고한 임무》라는 담화를 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에게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성격을 고수하기 위하여 군인들속에서 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업종합출판사(당시 공업출판사)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출판물들을 더 많이 편집출판하여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1981년 1월 1일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화예술부문 일군들과 영화예술인들에게 청년공산주의자 김혁동지처럼 살며 창작활동을 벌려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1982년 1월 1일

-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한 책임일군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사업할데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일군에게 어떤 사람이 불고 불리한 정세가 조성되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강한 혁명적신념을 가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당부문 일군에게 새해 대외사업방향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 1983년 1월 1일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시당 책임일군에게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농촌계급진지를 강화할데 대하여서와 건설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다그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과 《예술영화 〈월미도〉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 아주 좋은 작품이다》라는 담화를 하시였다.

△1984년 1월 2일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사업을 더욱 쾌기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예술단 창작가들에게 우리 나라 음악을 내세우며 배우들의 의상을 우리 식으로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1985년 1월 1일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당부문 일군에게 새해에 경공업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상품생산을 적극 늘일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당부문 일군에게 인민생활과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이바지할 경제기술도서들을 많이 출판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

물론 이것은 설명절들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쉬임없이 벌리신 정력적인 혁명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설들이 열번, 스무번...흘러 이 불멸의 로고의 열매로 우리 당, 우리 조국이 끝없는 백전백승의 길로만 걸어가고 룡성번영의 새 년륜들을 새겨오게 된것임을 어찌 한시라도 잊을수 있겠는가.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모함마드 아브 바크르 싸다크

조선은 소원했어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과

그이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일

후계자의 탄생을

조선의 앞길을 밝혀줄

새별과 같은 지도자의 탄생을

조선은 맞이했어라

그이는 **김정일**

그이를 모시여

조선은 빛나고

그이의 령도로

아름다운 도시와 농촌

문학과 예술이 꽃피나고

그이의 손길아래

문예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했거니

그이의 어린 시절의 자취

거룩한 혁명활동의 자욱이 깃든

박물관 사적관들에서 푹푹히 보았노라

그이의 탁월한 령도예술

한없이 비범하고 예지로움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생활의 구석구석 마음속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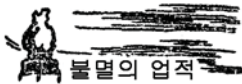
속속들이 헤아려보시는 그이

대해같은 사랑과 현명한 령도로

인민을 안아 이끌어주시는

그이는 친근한 어버이이시여라

(필자는 방글라데슈사람임)



## 귀중한 문학유산으로 빛내주시며

영화는 필름으로 남고 미술작품은 그림으로 전해진다면 문학작품은 책에 담겨져 후세에 유산으로 길이 전해지게 된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학유산을 가진 우리 나라, 고난과 시련에 찬 력사의 단계마다에서 적지 않게 창작되었으나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인멸되거나 빛을 잃었던 문학작품들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관심과 보살핌에 의하여 오늘 주체시대에 와서 수많은 발굴정리되고 출판되어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1979년도 다 저물어가던 12월말 어느날이었다. 창작지도일군들과 고전문학작가들 그리고 문학예술종합출판사 기자, 편집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어쩔 줄 몰랐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전 90권으로 된 《조선고전문학선집》을 출판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영예로운 임무를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에게 안겨주시었던것이다.

총서체제로 출판하게 되는 《조선고전문학선집》, 여기에는 오랜 세월 일제의 식민지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짓밟히여 흩어지는 모래처럼 점차 자취를 감추던 고전문학작품들을 우리 시대에 와서 되살려 활짝 꽃피움으로써 우리 나라야말로 찬란한 민족문학유산을 가진 반만년력사국이며 우리 인민이야말로 예로부터 가장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문학의 창조자들이라는것을 온 누리에 자랑높이 펼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뜻이 깃들 어있었다.

1960년대를 전후하여 출판을 시작하였다가 성공의 명마루에 오르지 못하고 중도반단되었던 고전문학선집이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조선고전문학선집》을 90권으로 출판할데 대한 경애하는 그이의 조치에는 참으로 고전문학유산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며 후손만대를 위한 사업으로 설계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것이다.

한때 우리의 신성한 고전문학작품들을 제놈들의 불건전한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의 선전을 위한 리용물로 만들려고 획책하였던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음흉한 기도를 날날이 폭로분쇄하고 민족문화유산을 주체사

관에 기초하여 옳게 분석비판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한 휘황한 앞길을 명철하게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 오늘은 또 고전문학작품들을 선집형식으로 체계화하여 출판할데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여주시니 우리 작가들과 문학일군들, 문예출판일군들이 어찌 감격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비단 이날만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1980년 정초에는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 참가자들앞으로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고전문학작품출판사업에 대하여 다시금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우리 나라 고전문학작품도 많이 출판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학생들은 우리 나라 고전소설들을 읽지 못하다보니 우리 나라의 유구한 민족문화와 력사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고전문학작품을 많이 출판하면 청년학생들에게 우리 나라 민족문화와 력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줄 수 있고 작가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것입니다.》**

고전문학작품출판사업에 이처럼 크나큰 의의를 부여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후 《온달전》, 《장화홍련전》, 《홍길동전》과 같은 소설들도 현대어로 고쳐서 출판하여 청년학생들에게 읽히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조선사화전설집》도 호수도서로 많이 출판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관철하는 뜻깊은 나날 파란많은 력사의 흐름속에 빛을 잃고 사라져가던 우리 나라 고전문학작품들이 수많은 발굴정리되었다. 그리하여련권으로 된 《조선고전문학선집》과 《조선사화전설집》을 비롯하여 수많은 고전문학작품들이 두번다시 세상에 책으로 출판되어 독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고전문학출판사업에 힘을 넣으시는 한편 현대문학작품들을 출판할데 대한 휘황한 전망도 펼쳐주시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1980년 10월 31일 전 100권체제로 된 《현대조선문학선집》을 출판할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현대조선문학선집》에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화발전된 혁명문학의 성과를 기본으로 하면서 1900년대 계몽기문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소설, 시, 아동문학뿐만아니라 희곡, 영화문학, 가극문학, 평론, 예술산문 등 다양한 문학종류로 구성하여 편찬하게 된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손수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과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도 모두 이 선집 체계안에 들어가 현대조선문학을 빛나게 장식하게 된다.

우리 나라 현대문학의 빛나는 성과가 집대성되는 이 선집, 특히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문학이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이 눈부시게 수놓아지게 되는 《현대조선문학선집》은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문학유산이며 현대조선문학발전의 자랑찬 총화로 된다.

이렇게 되어 우리 나라 문학유산은 아득한 옛날에 창작된 고전문학으로부터 오늘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두개의 선집체계속에 묶여지게 되었다.

력사가 길어 반만년, 우리 나라에는 이름있는 문인들에 대한 기록도 적지 않게 전해지고있지만 그 누가 나라의 문학유산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인류의 문화사앞에 총화하여 내놓은적이 있었던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선문학발전의 전력사적과정에 창작된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두개의 선집체계안에 넣어 출판하도록 하신 여기에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공적이 있는것이다.

하기에 《현대조선문학선집》출판에 대한 소식은 온 나라 인민들과 작가들을 한없는 격동속에 휩싸이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현대조선문학선집》을 출판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이어 편찬위원회를 내오도록 해주시고 작품심의체계를 세워주시는 등 선집출판사업을 온 사회가 관심을 높여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하여 오늘 《현대조선문학선집》출판사업은 활기를 띠고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출판전투의 벅찬 나날속에 이미 계몽기소설들이 출판되고 아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문학작품들이 적지 않게 발굴되어 우리 문학의 성과를 보다 더 풍부히 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의 유산뿐만아니라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세계문학유산도 다 같이 귀중히 여기시며 세계문학작품출판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일찌기 학창시절부터 세계의 이름있는 고전문학작품들을 탐독하시며 작품들이 담고있는 력사적 제한성을 옳게 평가할데 대하여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었다.

1979년 12월중순 어느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세계고전문학작품 편집출판사업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 나라 소설들과 세계고전문학작품들에 대한 출판을 배합하여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그후에는 이 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까지 밝혀주시었다.

《세계문학선집》과 《세계아동문학선집》을 각각 100권 체계로 출판하도록 출판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신 경애하는 그이이시었다.

조선문학이 쌓아올린 자랑찬 성과작들과 함께 세계문학이 달성한 성과작들을 선집이라는 총서체계에 묶어 그를 통채로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년간 수많은 세계문학작품들이 출판되어 우리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작가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현대문명의 높은 상상봉으로 힘차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선문학과 세계문학이 인류앞에 남긴 문화재부-문학작품들을 말없는 스승으로, 혁명적 량식으로 하여 주체의 한길따라 역세계 싸워나가고있다.

# 나의 웨침

윤경남

나의  
저 하늘을 보라  
나의  
저 강산을 보라

이 땅의 장한 모습  
그대로 비졌는가  
더없이 숭엄하여라  
더없이 아름다워라

나의 하늘  
나의 강산  
나의 조국  
한없이 정답고 소중해  
내 조용히  
너와 함께 속삭일 때면

아, 귀전에 삼삼히 들려와라  
저 푸른 소나무 설레임소리  
저 맑은 시내물소리  
아이들의 밝은 저 웃음소리  
나의 노래처럼  
나의 희망처럼  
나의 열정처럼

가다가도 문득  
걸음 멈추면  
분명 그 하늘이구나  
그 강산이구나  
나의 조국이구나

무수히 흘러간 세월  
기아와 빈궁  
압제의 피눈물속에  
저 하늘  
저 강산 소리쳐부르며  
영영 파묻혀버린이 그 얼마더냐  
떠나간이 그 얼마더냐

력사의 그날부터  
해와 별 찬란히 비쳐  
너도 주인  
나도 주인  
인민이 주인된 나라  
사회주의 사상이 꽃핀  
인민의 세상

우리 수령님 찾아주시고  
우리 장군님 꽃피주시는

주체의 조국  
인민의 나라  
나의 조선이여!

길가에 나서도  
일터에 들어서도  
넘쳐나는 뜨거운 사랑과 의리  
온 나라가 한가정된 나라

그래서  
내 심장으로 높이 웨치노라  
내 여기서 태어났다고  
내 여기서 보람찬 삶을 누린다고  
내 여기서 한생을 바쳐간다고

이것은 나의 진정  
이것은 나의 심장의 호소

끝없이 번영하는 이 땅  
승리만 떨쳐가는 나라  
저 하늘처럼 영원할  
저 강산처럼 영원할  
내 나라 내 조국이여

하여 설레이는 저 한그루 나무를 보아도  
흐르는 저 맑은 물을 보아도  
생각은 깊어지고  
숲처럼 일떠선 저 기념비를  
바라볼수록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거니

나의 하늘  
나의 강산  
나의 조국  
그것은  
나의 노래  
나의 행복  
나의 희망

오, 어버이수령님 혁명위업 빛나고  
위대한 장군님 높이신 뜻 꽃피는  
이 땅의 모든것  
내 소중히 안고 살리

열백번 죽어서도 다시 찾을  
내 나라 내 조국  
천세 만세 받들어가리  
이 심장 다 바쳐가리

## 기다리신 마음

최봉무

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글을 쓰려고 생각하고있었으나 선뜻 붓을 들지 못했다.

리인모선생이 34년의 옥고를 이겨내고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 되어 어버이수령님의 품으로 돌아와 세상을 놀래운 경이적인 사변이 있는 그때에도 나는 이 내용으로 짊어진 글이라도 한편 만들려고 바재이다가 끝내 붓을 들지 못했다. 그 이유는 크지 않은 이야기에 너무 뜨겁고 무거운 뜻이 담겨져있고 그것을 미숙한 나의 필력으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때문이었다. 그런 내가 이런 용단을 내려 붓을 든것은 이제라도 인간의 의리와 도덕을 지켜야 하리라고 생각한 까닭에 있다.

우리가 하늘처럼 믿고 살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세해째 되는 이해에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로서 어찌 재능이 부족하고 붓이 무디었다고 이상 더 서슴을수 있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였으며 인민의 어버이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와 품모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고있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우리모두의 어버이이시며 인간중의 인간이신 수령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가지가지의 전설같은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들은 돌이켜볼수록 못견디게 가슴을 울리고 눈물을 자아내며 생의 참의미를 안겨주곤한다.

지금도 조용히 눈을 감고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그려보면 그 영상이 인간사랑과 믿음의 총체로 태양처럼 안겨온다. 이것은 우리 인민, 어른, 아이 할것없이 그 누구나가 다 느끼고 체험하고있을뿐아니라 안고있는 감정이다.

나는 몇해전 먼 북방의 취재지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한 연고자를 우연히 만나 실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오래전부터 말하고싶어했던 이야기이다. 문제는 그 이야기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텔레비죤화면을 통해서 알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안해들, 소식을 모르고 43년을 기다린 리인모선생의 안해나 남편들을 기다리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로인들의 안해들의 고마운 마음의 순정이 그에 뿌리를 두고있다는데 있다.

전쟁이 끝난지 세해째 되던 어느 봄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전쟁의 로고도 푸실새 없이 재더미만 남은 이 땅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고 낮에 밤을 이어 공장과 농촌, 거리와 마을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그날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한창나이의 젊은 후방가족녀성들을 만나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들과 허물없이 담화하시면서 생활편을 알아보시고 혼자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곤란하면 국가에서 말아 공부시켜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인품과 덕망앞에서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어 눈물을 머금으면서도 녀성들은 전선에 나간후 소식이 없는 남편들을 기다려 애간장을 끓이는 속마음만은 차마 터놓지 못하였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시골아낙네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듯 이윽도록 그들을 둘러보시다가 조용하나 근엄하신 음성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소식을 모르는 많은 장병들중 대부분은 전사하였으며 일부는 살아서 남조선에서 유격투쟁을 할수도 있다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였다. 그리고 수령님께서서는 나는 그들을 믿는다고, 나는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신심어린 말씀을 하시는 것이였다. 자애가 넘치는 시선으로 녀성들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정깊은 그 말씀에 가슴뭉클 젖어들어 그들은 후더운 눈물을 흘리였다.

친부모도 안해도 그저 기다림속에 안타까와할뿐인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벌써 그 안타까움을 곱으로 아프게 느끼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은 참말로 위대한 마음을 안고계시지 않는가. 이것이야말로 진정 숭고한 사랑이고 믿음이였다. 그것이 없이 어찌 기다림이 생기며 기다림이 없이 어찌 순정이 생기겠는가.

나는 어느해인가 함께 일하던 녀성편집원의 그 청을 받고 그의 집에 간적이 있었다.

그의 집에 들어서니 온 식솔이 종무소식이던 시아버지의 렬사증을 받아들고 감회에 휩싸여있었다. 집에는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는 전쟁시기 남편이 군대에 나간후 외아들을 데리고 사회의 여러 직책에서 사업하였고 오늘은 손자손녀들을 주련이 거느린 칠순을 바라보는 할머니였다.

전사에 대한 믿음과 은정의 증서인 렬사증을 받아든 자식들의 얼굴에는 기쁨의 꽃이 피어있었으나 할머니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귀여운 손자가 기쁜날에 왜 우는가 할머니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수령님의 사랑속에... 너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돌

아왔구나...》 하며 눈굽을 찍는것이였다.

정전이 된지 수십년 세월이 흐르도록 남편을 기다리며 어딘가 살아서 싸우다가 문득 돌아올것만 같아 어느 하루도 번짐없이 마음속으로 기다려온 할머니였다. 걱정속에 떠들떠들 올려나오는 할머니의 그 말을 듣노라니 나도 눈물이 불쑥 솟구쳐 올랐다. 아들 며느리도 고개를 떨구며 눈굽에 손을 가져갔다.

후에 안 일이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렬사증을 발급해줄데 대한 국가적조치를 취해주시면서도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잠 못 이루셨다는것이다.

한번 믿은 전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하나를 주면 둘을 주고싶어하시는 어버이의 사랑이였다.

그후 폭풍같이 세상을 흔들어놓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선생의 전설같은 이야기와 뒤이어 알려진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로인들의 불굴의 무훈담도 우리 수령님의 전사들에 대한 이런 사랑과 믿음, 끝까지 기다리신 그 고결한 마음의 승리가 아니랴.

기다리고기다리던 전사의 당원중에 친히 존함을 쓰시여 안겨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던 우리 수령님, 생신날

에도 쉬지 않으시고 전사의 침상을 찾으시여 43년만에 다시 돌아온 전사를 한품에 안으시고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수령님의 모습을 뵈우며 눈물인들 얼마나 흘렸던가.

혁명의 길에 함께 나선 전사들을 오직 자신처럼 믿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수령님의 그 사랑속에 수많은 영웅전사들의 영생하는 삶이 있고 그 기다림속에 혁명가의 안해들이 남편의 뒤를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는것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때 남편의 곁에 땀땀이 서서 행복의 눈물을 짓던 리인모선생의 안해모습과 그 광경을 보던 우리 녀성들의 류다른 격동의 흐느낌소리를 잊지 않고있다.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 위해 바치신 그 깊고깊은 사랑을 우리 어찌 천년이 간들 만년이 간들 잊으랴.

우리 수령님의 이 사랑은 수령님과 꼭 같으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 땅우에 불멸의 이야기로 꽃피어날것이며 그 사랑속에서 우리 인민은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갈것이다.

## 청춘대오

-사로청창립 50 돛을 맞으며-

김남걸

어디나 있더라  
위훈이 나래치는곳에는  
기적이 창조되는곳에는  
삶의 향기로 세인을 매혹시키는곳에는

어디나 있더라  
조국에 준엄한 시각이 오면  
총이 되고 폭탄이 되어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할  
청춘대오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영광찬 50년의 년륜을 새긴  
우리 당의 후비대 별동대여  
네 떠난 기슭은 어디나

목숨같이 추켜든 붉은기 높이  
백두산야에 뿌린 피는 그 얼마  
결사전의 고지마다에서  
아낌없이 바친 청춘은 또 얼마

한몸이 그대로 철길이 되고  
청춘이 그대로 석탄이 될 맹세안고  
산으로 바다로 농촌으로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앞장선 대오

안도에서 총대를 들고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하던 투사들처럼  
붉은기 높이 들고 장군님앞에서  
불길이 되리라 맹세한 청춘대오

누구나 안아주고싶더란다  
장군님 결심을 다 말아안고  
기발높이 활개치며 조국땅 곳곳으로  
주저없이 떠나가는 우리의 청춘들을

총대를 사랑하고  
시련도 노래와 함께 이길줄 아는  
내 조국의 사랑, 내 나라의 자랑  
우리 장군님의 청춘대오여

리기와 안일을 걷어차며  
혁명의 궤도로만 노도치는 대오여  
우리 장군님 손수 넘겨주신  
신념의 해불 높이 나아가는 대오여

때 좋은 나이여서  
피땀은 심장을 지닌것 아니여라  
장군님 주신 사랑의 젖줄기로 자라  
장군님을 위해서만 바치는 젊음이기에

어디나 있더라  
당이 부르는곳에는  
500 만이 하나같은 돌격의 기수들이!

## 합장의 웃음

조수희

## 1

평양-원산 고속도로를 따라 한대의 회색 승용차가 달리고있었다. 차의 뒤좌석에는 50대의 체소한 사나이가 안경속에 두눈을 가느스름하게 쏘프리고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다. 마주쳐 지나가는 자동차와 차창밖에 펼쳐지는 봄풍경에도 눈을 주지 않고 의자등받이에 몸을 실은 채 묵묵히 앞을 내다보기만 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이 길로 가는것이 옳은가를 거듭 속으로 되물어보고있었다. 직업적본능이 가져다준 호기심때문에 섣불리 결심을 했고 급작스레 떠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안은 없었다. 그저 《푸에블로》호를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에 온것이다. 하지만 남조선 일간신문의 해외씨에이지사 사회부장이라는 자기의 직업은 이것저것 채보아야 할것이 많았다. 우선 글을 잘못쓰거나 말을 할 때 그 후과는 복잡해지는것이다. 비록 몸은 해외에 나가있다 하지만 《안기부》의 측수는 어디서건 목덜미를 겨누고있을것이고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조차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수 있었다. 이것은 장차 자기의 앞길에 검은 그늘을 던지게 된다. 이상적인것은 미국 썬디에고에 가서 《푸에블로》호의 합장이었던 로이드마크 부처를 비롯한 배의 승무원들을 만나보던 때의 견해를 이번에도 그대로 살리는것인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것인가?

안상호는 두눈을 꼭 감았다. 《평화를 위한 국제체육 및 문화축전》의 관광차로 평양에 온 길이라고는 하지만 중요신문의 해외씨에이지사 사회부장이라는 직무를 가진 조건에서 무작정 입을 다물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말만 하고 립장표명을 비롯한 감상문같은 글을 일체 쓰지 말며 눈으로 보기만 하자. 그러자면 좀 불편한것도 있겠지만 어느쪽에도 건덕지를 주지 말자면 그 수가 상수이다.

안상호는 마음을 다잡았다. 행동방향이 대략 결정되니 한결 속도 편안했다.

승용차는 원산 시내 중심에 있는 개선평장에서 멈춰섰다.

《안내》는 기다려달라는 한마디의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장거리운전에 지쳤는지 젊은 운전사는 인차 승용차에서 내리더니 바다를 마주하고 팔다리운동을 했다. 팔을 어깨높이에 앞으로 펴고 이쪽저쪽 발로 번갈아 손있

는곳까지 올려차기를 하는데 희희 바람소리를 냈다. 그리고도 몸이 근질거리는지 허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몸을 굽혔다 폈다 한다. 안상호는 차창밖으로 그 모습을 부럽게 내다보면서도 일어서지 않았다.

대체 어찌자는것인가? 세상에 소문을 요란스레 낸 《푸에블로》호이니 군항에 있던가 그 어떤 건물속에 넣어두었겠는데 아무리 둘러보아야 큰 배를 넣어들만한 집이 보이지 않았다. 일반부두를 끼고있는 광장, 그것도 한쪽에 주석단까지 있는곳이니 시민이면 누구나 오는곳이었다. 이런곳에

《푸에블로》호를 두었올리는 만무한데 왜 여기에 차를 세웠는가? 혹시 자동차려행의 피곤을 풀라는것인가?

안상호는 혼자 있기가 갑갑하여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렸다.

광장은 아름다웠다. 출렁이는 바다에 화답하듯 이 부두가까이에 줄을 맞추어 심은 버드나무가 시원한 바람에 흐느적이며 춤을 추고 여기저기에 규모있게 만들어놓은 꽃밭들에는 갖가지 꽃들이 활짝 폈다. 저쪽, 해빛을 받아 류달리 산뜻해보이는 고층건물(사적관)앞에는 잣나무, 수삼나무, 소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를 배경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이 모셔져있다. 부두에는 우람찬 러객선 《만경봉-92》호와 나란히 하얗게 색칠을 한 크고작은 배들이 깨끗한 광장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쪽의 그림처럼 서있었다. 어느 배에선가 툽툽거리는 발동소리가 들렸다.

아름다움과 맑은 공기는 역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듯싶었다. 안상호는 기지개를 하듯이 두팔을 쭉 폈다.

허리에 두손을 얹고 움실움실하니 우드득 우드득 뼈마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문득 부두 한쪽에 서있는 거무칙칙한 배에 시선을 멈추었다. 하얗고 산뜻한 배들과 대조되는 배였다. 백조의 무리속에 까마귀가 섞인것처럼 그 배로 하여 어쩐지 부두 전체가 어둡침침한 느낌을 주었다. 배머리에 써붙인 영어도 색다른 식이었다. 가만 저 배를 어디서 보았던가? 틀림없이 눈에 익은 모습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스라치며 놀랐다. 《푸에블로》호, 《푸에블로》호다! 두손을 들고 서있던 선원들의 모습과 함께 저 배를 사진과 화면에서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여기에 서있는가? 거무칙칙하게 뺨끼칠을 한 배머리에 해양관측선이라는

《GR-2》자호가 찍혀있다. 그의 생각을 확증해주듯이 배에 오르는 사다리결에 해군병사가 총을 메고 위엄있게 서있었다.

《가만...저게 <푸에블로>호가 아닙니까?》

안상호는 오래간만에 입을 열었다. 팔을 휘저으며 운동에 여념이 없던 운전사가 머리를 돌리면서 심상한 어조로 그렇다고 했다. 너무도 뜻밖이었다. 세상을 들었다놓으며 소동을 일쿠었던 《푸에블로》호가 하나의 구경거리로 되어 술한 사람들이 나다니는 개선광장부두에 닻을 내리고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자기가 무슨 마술에 홀리운것 같았다. 하늘처럼 생각하던 미국이 여기에서는 놀림거리에 든것이다.

《일도 참...》

안상호는 입맛을 다시였다. 본의는 아니지만 미국이 망신당하는 이 마당에 자기가 끼여들었고 이제 주인공이 되어 구경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졌다. 괜히 왔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조용히 슬쩍 보고 가자던 노릇이 땡랑하게 되었다.

《갑시다.》

말소리에 머리를 돌리니 어디에 갔던 《안내》가 나타나서 배를 가리키며 손짓했다. 이제는 빠질 구멍도 없었다. 안상호는 발걸음이 무거워 천천히 걸었다. 누군가 자기를 쏘아보는것 같아 뒤머리가 간질거렸다.

《반갑습니다. 함장 소좌 장규정입니다.》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두줄에 별 하나를 단 사람이 배에 오르는 자기앞으로 마주왔다. 보통키에 가슴이 짙 벌여졌는데 눈길이 어찌나 예리한지 금시 사람의 속을 밀창까지 꿰뚫을것 같았다. 그 위압감때문에 따듯이 손을 잡아주며 먼길 오기 수고했다고 반겨주었지만 가슴은 더 두근거리기계적으로 머리만 가볍게 끄덕였다. 미국과는 적대관계에 있는데다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하에 있으니 반대편쪽의 언론인을 좋게 볼수 없다는 조심성에서 벗어날수 없게 했다. 하지만 함장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북도쪽으로 손짓하며 가자고 하더니 어느 한 방의 문을 열었다.

《이 방이 <푸에블로>호 함장이었던 로이드마크 부처가 있던 방입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일을 봅니다.》

장규정은 문을 열고 먼저 안에 들어서더니 의자를 권하였다. 방은 크지 않았다. 한쪽벽에 붙여놓은 침대와 그앞에 있는 책상, 배에서만 볼수 있는 책상우에 매달아놓은것 같은 책장비슷한 철함 그리고 안락의자 두개가 비품의 전부였다.

《원산이 처음입니까?》

당황해하는 기색을 느꼈는지 함장은 자기가 먼저 의자에 앉으며 책상우에 담배를 꺼내놓았다.

《예.》

여섯평방미터나 될가? 안상호는 시원한 박과는 달리 배기름냄새가 풍기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의자에 앉

았다.

《원래 이 배는 군항에 처박아둔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푸에블로>호를 썩이지 말고 원산앞바다에 갖다놓고 관광으로 쓰면서 미제침략자들의 침략적본성을 폭로하라고 하여 이렇게 구경거리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대에서는 《푸에블로》호라는 배의 원래이름을 입에 올리고싶지도 않아 나포된 날인 1월 23일을 따서 《123호함》이라고 한다면서 전투함의 함장이 아닌 《덕》에 이렇게 신문사 부장선생을 만나게 되었다고 가볍게 웃음을 지었다. 어찌나 솔직하고 소탈하게 대해주는지 두근거리던 가슴도 점차 가라앉았다.

《철면피하기 그지없는 미제침략자들은 지금도 이 배가 간첩선이 아니고 해양탐색선이며 공해상에서 나포되었다고 생억지를 쓰고있습니다. 선생도 혹시 그렇게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안상호는 함장이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고 판전을 부리는것 같아 웅색했다. 괜히 몸을 움직이며 머리를 숙였다.

《이제 제놈들이 체포되었을 때부터 마지막 쫓겨 갈 때까지의 행동을 록화한것을 보면 더 잘 알수 있겠지만 미제침략자들은 사죄문에 수표까지 하고서도 인류의 도덕과 양심을 우롱하고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것이면 <진리>가 된다는 제놈들의 <철학>이 조선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통하리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다는듯이 가볍게 웃다가 책상우에 놓여있는 두개의 록화카세트를 집으며 하나는 영어로 된 해설문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말로 된것인데 어느것을 보겠는가고 물었다.

《저는 배를 우선 보고싶습니다.》

안상호는 점잖게 막았다.

《자기눈으로 직접 보거나 만져본것만 믿자!》- 이것이 변함없는 그의 신조였다.

함장은 두말없이 요구대로 하자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탐기제실. 병실, 지휘소, 무기고 등 배의 곳곳을 빠짐없이 돌아보게 해주었다. 처음에는 하나씩 설명을 해주다가 안상호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보기만 하니 설명을 싫어한다는것을 느꼈는지 얼마후부터는 조용히 안내만 해주었다. 안상호는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었다. 어떤곳에서는 좀 물어보고싶은것도 있었지만 참았다. 하면서도 흰뺨끼로 동그라미를 친 총탄과 포탄자국 그리고 각종 기재들과 거기에 찍혀진 자호와 배상단에 매달린 커다란 종심 지어 북도에 붙여놓은 자그마한 사진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과고들수록 《푸에블로》호가 간첩선이였다는것이 명백했다. 조선인민군 해군함장인 장규정은 모를수 있지만 자기는 미국의 어느



공장에서 정탐설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이미 부처함장과와 담화를 통하여 대체적인 룰판을 알고 있기때문에 상반되는 두쪽의 말을 가지고 앞뒤좌우를 타진 하면 명백하게 근거를 잡을수 있었다. 조선인민군측의 말이 사실이라는 느낌은 시간과 함께 굳어졌다. 그러자 너무도 마음속 울타리를 치고 무작정 의심부터 한 자기가 웅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함께 이 인민군 함장이 대체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고있기에 자기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가 하는 호기심이 들었다. 때문에 지휘소에서 사다리를 타고 아래갑판에 내려오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간첩 배라고 하는가고 슬쩍 물어보았다.

함장은 지금까지 입을 봉하고있다가 물어보는것이 이상한지 흥미있는 기색으로 바라보았다. 허지만 인차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친절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처럼 거짓말을 안합니다. 선생도 배를 돌아봐서 알겠지만 이 배의 뒤에는 <푸에블로>라고 쓰고 앞에는 해양관측선이라는 자호를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배와 특이하게 굽직한 고성능 대출력안테나들이 수풀처럼 서있습니다. 해양탐색이나 하는 배라면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성능안테나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더우기 정탐기재실에는 정탐에 필요한 기재들이 짝 차있습니다. 레하면 모르스전신을 잡으면 즉시 록화되며 그것을 암호해독기에 넣으면 암호가 해독되어 나옵니다. 배에 장비된 기재들의 상표만 놓고보아도 간첩설비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텍사스주 라라전기회사의 제품들입니다.

하긴 이 배에 탔던놈들은 군복을 병실배낭고에 넣어두고도 잡혔을 때 제놈들은 군대가 아니라고 사민이라고 생억지를 썼습니다. 철면피성에서 하나의 극치가 아닙니까?》

함장 장규정의 말은 예리했다. 론박할수가 없었다. 지성이 느껴졌으며 괜히 질문을 잘못했다가는 톡톡히 망신을 당할수 있다는 예감이 안겨왔다.

더우기 그의 얼굴에 비낀 여유작작한 태도는 흐지부지할수 없는 무게가 안겨왔다.

《혹시 장교님은 법학을 전문하지 않았습니까?》

안상호는 그의 예리한 분석에 매혹되어 흥미를 가지고 물었다.

《나는 장교가 아닙니다.》

《아...실례했습니다. 버릇이 돼서...》

손을 내젓는 안상호의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어리었다.

《일없습니다. 리해는 합니다. 그러나 왜 장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가? 그것은 <국군>장교와 조선인민군 군관은 본질적차이를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국군>장교는 미제침략자들의 총알받이노릇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해치려는 미군놈들에게 굴종하지만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릴 때는 추호

도 용서하지 않고 단호하게 징벌한다는데 있습니다.

내 말이 선생의 귀에 좀 거슬릴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인하기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장은 배란간에 몸을 기대며 자기 말이 어떤가를 묻기라도 하듯이 뻘뻘 안상호를 마주보았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가 그의 온몸에서 도도히 굽이치고있었다.

안상호는 그쯤한 리해는 할수 있는지라 더 따져묻지 않았다. 그에게서 중요한것은 정치리론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군복입은 군인이 전문가도 무색할 정도의 론거를 세울줄 아는가였다. 혹시 명칭만 함장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 그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보기만 하자던 종전의 관조적태도보다 기자로서의 호기심과 그 어떤 새로운 문제에 분석을 가하여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확인해보려는 소충명적야심이 꿈틀거리고있었다.

《함장님의 말을 듣고보면 군인같기도 하고 재판소의 검사같기도 한데가 있는데 혹시 비밀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좀 설명해줄수 없습니까?》

안상호는 슬며시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농치는듯한 눈길로 장규정의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인민군군관의 경력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선생이 군인같기도 하고 검사같기도 하다는 질문을 하였기때문에 지나온 경력의 일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제가 하나 물읍시다.》

안상호는 긴장해져 안경너머로 장규정을 두렵게 바라보았다.

《군인같다는것은 행동에서 명백하고 단호하다는 뜻이고 검사같다는것은 미제침략자를 재판정에 세워논 피고처럼 여기며 단죄한다는 뜻으로 리해되는데 옳습니까?》

함장은 별로 생각해보는 기색도 없이 되물었다.

《대체로... 옳습니다.》

안상호는 동의만 하면 되는 질문이기에 마음을 놓으면서도 역시 간단치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였다.

《그렇다면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은 황해남도 신천입니다. 승냥이같은 미제침략자들은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있는 한살밖에 안되는 나까지 부모들과 함께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죄>란 조선로동당원이였다는것이고 어머니는 그의 안해라는것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순간에 놈들의 총탄으로부터 아들을 막으면서 쓰러졌기때문에 나는 기절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어머니당은 피덩이나 다름없는 나를 애지중지 안아 애육원과 학원에서 키워주었고 **김일성**종합대학의 넓은 강당에서 구김살없이 공부하도록 보살펴주었습니다. 내가 학업에 열중하고있을 때 미제침략자들이 바로 이 <푸에블로>호를 끌고 우리 나라의 7.6마일 되는 지점까지 물고 들어왔습니

다. 글썄 령해침범도 분수가 있지 7.6마일이 됩니까? 우리 해군들이 정체불명의 선박에 대하여 무슨 배인가고 문자적들은 해양관측선인데 수로작업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밝히라고 하니 뻔뻔스럽게 피로 얼룩진 성조기를 올렸습니다. 세상에 제이상 없는듯이 거들먹거리는데 습관된 놈들은 우리가 미국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나오는가고 타진해보는걸 간첩임무속에 포함시켰던것입니다.》

함장의 눈에서는 불길이 병긱거렸다. 당장 눈앞에 미군이 있으면 후려칠 기상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침착하게 조용히 하였다.

안상호는 폭풍전의 정적을 맞는듯한 긴장이 가슴에 안겨와 그의 말을 더 주의깊게 들었다.

《적들은 오산했습니다. 성조기를 보는 순간 우리 병사들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철천지원썩 미제를 소멸해야겠다는 멸적의 투지가 활화산처럼 끓어올랐으며 당장 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철면피한 미제침략군놈들은 최신형 간첩배라는것을 믿고 공해상으로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라면서 앞길을 막으려 하자 이번에는 사격을 퍼붓는것으로 대답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온 강도가 칼을 뽑았는데 그냥 둘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위적조치로 포사격을 퍼부었으며 지휘소와 마스트를 비롯한 적의 주요설비들을 답새기면서 돌격조를 조직하여 4명은 아래갑판, 3명은 옷갑판에 뛰어올라 배안을 하나씩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항하는놈은 단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도 당연하다는듯이 함장은 쇠줄란간을 잡았던 팔을 획 내돌렸다. 그러자 군복저고리에 달려있던 낫을 새긴 노란단추가 일시에 해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약한 자들앞에서는 으시대고 강한자에는 비굴한게 미국놈들입니다. 적들은 우리가 무자비하게 돌격하자 겁에 질려 3정의 기관총과 9정의 카빙총, 6정의 권총을 비롯한 수천발의 탄약과 수류탄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자동보충만 소유했던 우리 돌격조원 7명에게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함장놈은 지휘실구석에 대가리를 박고있는걸 우리 해군병사가 목덜미를 쥐여당겨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반항하려다가 즉사한 한놈을 제외한 82놈이 모두 갑판에 끌려나와 체포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제침략자들은 도리어 공해상에서 정상임무를 수행하는 제놈들의 배를 잡았다고 우리를 걸고들면서 술한 항공모함까지 이 원산앞바다에 끌어왔고 매일 수천대의 비행기를 띄우면서 배를 넘겨주지 않으면 <보복>을 하겠다고 발광을 하였습니다. 정세가 이렇게 팽팽해지자 어떤 나라 사람들은 괜히 겁에 질려 배가 탐이 나서 넘겨주지 않는것 같은데 자기네가 배를 한척 주겠으니 <푸에블로>호를 돌려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이 잘난 배에 무슨 탐나는게 있어 우리가 전쟁까지 각오하면서도 안넘겨주는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귀중한것은 배가 아니라 민족의 존엄이었습니다.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단호한 립장을 밝히시였으며 전당, 전국, 전민을 원썩들과의 판가리 결사전에로 부르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대학에서 펜을 놓고 총을 잡았으며 오늘은 조선인민군 해군의 지휘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미제침략자들을 단죄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장규정함장은 속이 달아오르는지 목단추를 벗기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하여 이글이글 타번지고있었다.

이때 한줄에 별 네알을 단 군관이 다가와 절도있게 경례를 하더니 미국 《씨엔엔》텔레비존방송국 베이징지국장 마이크 제노이가 촬영단까지 무어가지고 왔다는것을 보고 하였다.

《동무가 안내해주오.》

장규정은 짙막하게 결론을 주고 인차 안상호에게 머리를 돌렸다. 번쩍이는 그의 눈길에는 당신의 질문에 만족한가 하는 물음이 섞여있었다. 허지만 안상호는 함장이 미국 《씨엔엔》텔레비존촬영단에 대하여 어딘가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기 생각을 터놓을수 없었다. 세계적인 청취자를 가지고있는 그들의 신경을 잘못 다쳐놓으면 그 열과가 자기에게도 들이닥칠수 있기때문이었다. 언젠가 본사에서 자기네 신문에 대한 텔레비존광고를 청탁하라고 자기에게 돈을 보내주던 생각이 피곳 떠올랐다. 방송국에 찾아가니 그들은 가져온 돈을 보자 웃음을 터뜨렸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니 들어오게 해준 정문지기에게 《팁》이나 주라면서 집어던졌다. 그런데 그 지사의 부장때문에 함에서 제일 높은 함장이 자기네를 외면했다는것을 알면 그 보복으로 우선 본사에 대한 망신을 줄것이고 함장인 장규정에 대해서도 그 어떤 건덕지를 잡아 웃음거리를 만들수 있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치가와 재벌들이 《씨엔엔》텔레비존방송과의 《사업》을 잘못하여 순간에 사회적비평의 대상이 되었으며 쓰디쓴 패배의 맛을 보았는지 장규정은 알수 없는것이다. 촬영단까지 무어 여기에 재발로 찾아왔다는것은 하늘이 도와주는 행운이었다. 순간에 《푸에블로》호의 《명성》이 세계적인 화제거리로 될수도 있는것이다. 이것은 자기따위가 쓰는 조박글과는 대비도 할수 없다.

안상호는 요지경속처럼 엉켜돌아가는 세상의 리치를 단 순하게만 대하는 함장이 무척 천진스러웠다. 그렇다고 까놓고 말할수도 없었다.

《왜 그러니까?》

괜히 배꼬리쪽을 흘끔흘끔 바라보는 안상호에게 장규정이 먼저 물었다.

《저-〈씨엔엔〉텔레비존은 우리 신문과 대비가 안됩니다.》  
《무엇이 대비가 안된다는겁니까?》

함장은 어글거리는 두눈을 크게 뜨며 의아한 눈길로 마주보았다.

《신문과 텔레비존은 다 사회적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인데 우리 지면은 제한되어있지만 <씨엔엔>은 위성중계와 직접 연결되어 세계적인 쟁세이슈를 일으키군합니다.》

순간 함장은 함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호탕하게 웃었다. 안상호는 《씨엔엔》촬영단의 그 누가 여기에 있는 자기를 보는것 같아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러나 함장은 태연했다. 어쩌면 재미있어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곱게 보이라는겁니까?》

《글쎄 곱게 보인다고까지야...》

안상호는 너무도 정통을 찌르는 말이어서 얼굴을 붉혔다.

《선생도 북조선에 와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보았을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내놓으신 구호입니다.

물론 우리도 <씨엔엔>텔레비존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더우기 그들이 우리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었을 때 사회적여론의 대변자로서 공정하게 오랜시간 세계에 방영한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과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왔다고 선생을 밀어낸다면 선생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청취자를 가진 방송이라고 거기서 일하는 인간자체가 높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 촬영이겠는데 촬영조건을 보장해 주면 되지 거기에 꼭 함장이 나서서 안내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진실을 공개할 용의가 있으면 방영하고 싫으면 그만두라>- 이것이 우리의 립장입니다.

더우기 조선사람들끼리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사람이 왔다고 동족을 밀어놓고 찾아가는것은 민족적자존심의 견지로 놓고볼 때 용납할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사는 **김일성**민족으로서 무엇이 모자라서 자존심 상하는 노릇을 하겠습니까?》

함장은 어림도 없다는듯이 코웃음을 쳤다. 그 여유작작한 태도는 안상호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였다. 사상과 리념이 어떻게 같은 민족이라고 존엄을 지켜주니 고맙다고 손이라도 잡고싶었다. 그럴수록 안상호는 객관적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그의 빈구석을 자기가 메꾸어주고싶었다. 《원칙》도 인간의 감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수 있는것이다. 오죽하면 고운사람 미운데 없고 미운사람 고운데 없다는 말이 생겨났겠는가! 더우기 자기가 공개하기 힘든 《푸에블로》호에 대한 진상을 《씨엔엔》텔레비존방송이

세상에 공개한다면 진실을 터놓지 못하는 자기의 가슴도 한결 편할것 같았다.

그러자면 자기가 여기서 사라져야 한다. 안상호라는 인간이 없지 않으면 함장은 불가피하게 《씨엔엔》텔레비존촬영단과 만날것이고 그것으로 하여 그들의 인상은 좋아질것이다. 자기네 신문사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할 조건도 없어진다.

안상호는 함장에게 거짓말을 하는것이 미안했지만 팔목시계를 내려다보면서 약속한 사람이 있어 아쉬운대로 떠나야겠다고 하였다. 장규정은 막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무때라도 찾아오라면서 배사다리에까지 따라나와 배웅해주었다.

## 2

이제는 어디로 갈것인가?

안상호는 승용차의 곁에 와서 평양쪽으로 뻗어나간 길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크고작은 각이한 차들이 실새없이 오고갔다. 이제 여기를 떠나면 다시오기 힘들것이다. 함장의 모습을 멀리서라도 다시한번 보고싶었다. 함에는 총을 메고 위엄있게 서있는 보조병만 보였다. 자기도 모르게 가볍게 한숨이 새어나갔다. 미국에 추호도 어깨를 낮추지 않는 사람들, 그 어떤 타산보다 민족의 존엄을 먼저 생각하는 북조선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인간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다. 그런즉 함장이 들고있던 록화물도 그런 방향에서 편집되었을것이 아닌가! 역사적사실을 가지고 품위있게 묶으면 함장의 말보다 더 가슴을 후련하게 할수 있다. 대체 어떤 내용이 편집되었을가? 여기를 떠나면 영영 보지 못하겠는데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안상호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솔직하면서도 당당한 함장의 이야기도 더 듣고싶었다.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그의 말은 자기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는 재생의 생명수처럼 무겁던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래서 더욱 다시 만나고싶었다. 《씨엔엔》촬영단이 대체 얼마나 머물러있을 작정인가? 그들이 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수야 없지않은가.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서성거리던 안상호는 문득 《푸에블로》호를 보고 시간이 있으면 송도원구경을 하려던 계획이 떠올랐다. 마지막에 보면 어떻고 중간운데 보면 어떻단 말인가! 안상호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송도원은 듣던바 그대로 절경이었다. 실례는 바다, 끝없이 밀려드는 파도, 명주필을 드리운듯한 백사장, 그뒤로 빼곡이 들어찬 소나무숲... 절기는 4월 하순이라 하지만 날씨가 따뜻하니 벌써 바다에 뽀트를 띄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안상호는 약한 몸이어서 물에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아 신발만 벗고 백사장에 들어섰다. 부드러운 모래의 촉감을 받으며 바다가에 나서니 밀려드는 파도가 가볍게 그의 발목에 부딪친다. 오랜 세월 씻기고 씻기운 정갈한 모래에 발자국을 찍으며 걷노라니 아득하게 흘러간 유년시절처럼 마음이 까닭모르게 흥그러워지고 동심의 세계에로 이끌려 갔다. 고향인 남쪽바다에서 크고작은 섬에 부딪치는 흰 물갈기를 보며 물속에 뛰어들던 일과 바위우에 기어올라 굴을 까먹다가 발이 상하여 부모님들의 걱정을 끼치던 일 그리고 대나무밭속으로 숨어다니며 죽순을 훔쳐먹다 도망치던 일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어른이 되어 그 바다가 그리워 찾아갔는데 뿌유스름한 기름이 엉켜도는 물우에는 공해 때문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었다. 그런데 여기는 드넓은 바다물 전체를 정제하여 가득 채운것처럼 기름 한점 보이지 않는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이처럼 깨끗한 해수욕장을 본 일이 없었다. 여름이라면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뒹굴고싶었다. 얼마나 상쾌할것인가!

안상호는 시원한 바람에 넥타이를 날리며 바다가 백사장을 걷고 또 걸었다. 온갖 시름을 잃으니 흥얼흥얼 코노래가 절로 나왔다. 파도우에 마음도 둥둥 뜨는것 같아 실없이 웃기까지 했다. 그러다 갑자기 어린이들의 명랑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저쪽 솔밭쪽에 대여섯살 또래의 사내애들 여섯이 모였는데 무엇때문인지 깔깔거렸다. 어떤 애는 깡충깡충 토끼땨까지 하며 웃어댄다.

무슨 일인가? 안상호는 병실거리며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키가 좀 작고 머리칼이 곱슬곱슬한 이악하게 생긴 애가 저보다 약간 큰 뚱뚱한 애를 얼리는 중이었다. 등실한 얼굴에 굳이진 뚱보는 어쩔지 몰라 눈만 꺾뺨거렸다.

《너 솔밭울에 맞으면 아플가봐 그러지? 일없어. 보렴아! 자!》

고수머리는 곁에 있는 솔밭울을 집어들고 제 얼굴을 툭 때렸다.

《그런건 아닌데... 미국놈 없이 나무를 까자꾸나.》

뚱보가 뜨직뜨직 말을 하며 등뒤에 선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니? 너 영화에서두 봤지? 인민군대아저씨들이 총을 쏘면 목표가 척 넘어가는걸. 어때? 그게 정말이지?》

고수머리는 반짝이는 눈으로 제 동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모두가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였다.

《보라! 이렇게 하란말이야!》

그는 솔밭울을 또 한개 집어들고 자기 머리를 때리고는 핑그르 돌면서 모래볼에 넘어졌다. 그리고는 눈의 흰 자위

를 번지며 《아이쿠!》 소리를 쳤다. 그러자 애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짹짹 박수를 쳤다.

《자, 웃도 바래지 않고 아프지도 않아.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줄테다. 자! 정말이야!》

고수머리는 제 주머니에서 먼저 빨락지에 쓴 사랑을 꺼내어 내밀었다. 다른 애들도 파자며 사랑을 꺼내었다.

《글쎄 다른건 하겠는데 미국놈흥내만은...》

뚱보는 뒤더수기를 굵으며 좀처럼 대답을 안했다.

《그까짓거 모래볼에서 자빠지는 흥내만 내면 되는데 뭐라니?》

《그래두...》

뚱보는 아무래도 안되겠는지 슬며시 돌아섰다.

《싫으면 그만둬! 우리끼리 놀자.》

고수머리는 나머지 애들에게 눈을 꿈쩍이며 가자는 시늉을 했다. 다른 애들도 따라 돌아서는 기색을 보였다.

《야!... 딱 한번이면 되니!》

뚱보는 동무들과 떨어지는게 겁이 났는지 빌붙었다.

《그럼, 딱 한번이야!》

고수머리는 얼른 돌아서며 손가락 하나를 펴고 내흔들었다. 하지만 뚱보는 정작 하자니 기가 막힌지 금시 동의할것 같다가 인차 타협안을 내놓았다.

《좋다. 처음은 내가 하겠는데 골고루 한번씩 하자.》

《골고루?》

모두가 뜻밖이라는듯이 서로 마주보았다.

《그럼, 나만 미국놈역을 놀겠니?》

뚱보는 그렇지 않은가고 묻기라도 하듯이 다른 애들을 쳐다보았다.

《난 놀음이라도 미국놈은 안될래!》

쳐너지처럼 곱게 생긴 사내애가 입을 옥물며 먼저 돌아섰다.

《나두!》

곁에 있던 애가 따라나섰다. 그러자 저마다 안하겠다며 돌아섰다.

《그럼 나두 안하겠다야.》

뚱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끝내 솔밭울로 미국놈 까는 놀이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진짜 미국놈 하나 잡아오면 좋겠지? 그놈한테야 사랑, 파자줄것두 없지 않아? 말듣지 않으면 죽이지 뭐.》

할수 없는지 고수머리가 투덜거리며 동무들을 둘러보았다.

철없는 아이들의 말이지만 안상호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놀음에서라도 미국놈역은 하지 않겠다는 애들의 말이 강렬하게 그의 머리를 쳤다. 미국사람 흥내를 내노라고 정형수술을 하고 노랑머리염색을 하는 남조선의 고관족속들과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이였다. 미제침략자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는 이곳 사람들의 굳센 의지가 말보다도 강렬하게 폐부로 느껴졌다. 철부지 어린이도 저렇게 미군을 증오하고있으니 어린 시절 미국병사의 총구앞에 나섰던 장규정이 군복을 입는것은 너무도 당연스러운것이다! 그는 미군에 대하여 《미제침략자》라고 단죄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는?

안상호는 술발속을 터벅터벅 걸었다. 아직 백사장을 거닐던 그대로 신발을 벗고있다는것도 느끼지 못했다. 지난날 미국사람들에게 놀리워 눈치를 보며 살던 갖가지 추억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푸에블로》호 함장이었던 로이드마크 부처를 만났을 때도 어딘가 속박당하는듯한 느낌속에서 조심스럽게 취재를 하였다. 인민군병사가 목덜미를 잡아일으켜 끌어냈다는 그에게 자기는 포로병을 만나는 심정이 아니라 미국의 한 정계인물을 만나는 자세였다. 담배를 피우면서 말하던 부처의 모습속에는 이곳에서 비굴하게 행동한 기색은 전혀 없고 《무자비한 공산군에게 걸렸으니 어쩔수 없었다》는 불평만이 두드러져있었다. 그때 자기는 그럴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견해가 생겼는가? 마음이 달라진 자신을 느끼며 안상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쪽 크지 않은 단층건물옆에 걸려있는 한쪽의 선전화가 눈길을 끌었다. 무기를 멘 건장한 청년이 미군을 주먹으로 후려치는 모습인데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는 글이 시뻘썩게 툭툭 살아났다. 통일을 방해하면 용서치 않겠다는 기상이 뜨겁게 안겨왔다. 어쩐지 그 청년이 함장 장규정이 같았다. 미국에 대해 단죄할 때 눈길도 저 그림의 눈길처럼 이글이글 하였다. 처음보는 선전화가 아닌데 이상하게 새로운 의미를 안고 안겨왔다.

무엇때문인가? 내가 이곳 사람들의 그 도고한 립장에 반하여 미국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는가? 어쨌든 명백한것은 미국 《씨엔엔》텔레비존촬영단이 왔다고 이곳에 온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것이다. 남조선에서는 《대통령》부터 미국이라면 무작정 머리부터 숙이니 하나의 숙명처럼 여겼는데 어린이들까지 개물듯하는 미국놈한테 여기 와서까지 쫓겨다닐게 뭐가? 그들이 내가 남조선일간신문의 씨에이지사 사회부장이라는것을 알기라도 한단말인가! 마음의 속박이란 이처럼 무서운것인가?

안상호는 쓰겁게 웃음을 지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찾고싶었다. 그래서 《푸에블로》호에 다시 가기로 작정하였다. 《씨엔엔》텔레비존촬영단이 돌아가든말든 함장이 가지고있던 카세트를 보아야 한다. 관광은 사람이면 누구나 보는 록화물을 왜 내가 못본단말인가? 안상호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니? 어떻게 왔습니까?》

배꼬리부근에서 《씨엔엔》텔레비존촬영단과 이야기를 나누던 장규정함장은 안상호를 보자 반갑게 손짓을 했다.

《카세트를 보자던것을 그만 잊어먹고...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안상호는 먼구스레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도 《씨엔엔》텔레비존촬영단쪽을 슬쩍 바라보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들은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개별적인 총탄자국뿐 아니라 각종 기체에 붙어있는 상표까지 놓치지 않았다.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밖이었다. 안상호는 용기가 생겨 흥미를 가지며 그들의 곁에 다가갔다.

《여기를 다른데서 와서 촬영해간적이 있습니까?》

《씨엔엔》텔레비존방송 베이징지국장 마이크 지노이가 함장에게 물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묻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도 모르고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위성중계로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공민들은 종던쉴던 이 <푸에블로>호는 무장간첩선이며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했다는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그는 값진 짐승을 잡은 사냥군처럼 흡족하여 빙글거렸다.

《그러니 당신들은 미국정부의 외곡된 선전을 바로잡겠다는것입니까?》

함장은 흥미있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어느 정도 바로잡히겠는지는 단언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반응은 있을것이고 그것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이 또 찾아올것입니다.》

마이크 지노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나는 오늘 <조미회담>이 왜 전진을 가져오지 않는지 여기 와서 톡톡히 알게 되었습니다. 회담이란 상대방에 대한 신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해양탐색선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간첩임무를 주는것처럼 미국을 대표하여 사죄한다면서 선원들을 데려간 이후에는 아니라는 식으로 뒤집으니 누가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믿겠습니까? 더우기 수십만명씩 동원하여 그칠사이 없이 전쟁연습을 하고 얼마전에는 무장직승기까지 침입시켰다가 격추되고 비행사까지 체포되었으니 당신들이 경계하는것은 너무도 옹당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회담이 좋은 분위기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당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공개하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장규정은 무게있게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옳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자기 리속만 생각하면서 어제까지 한 약속을 순간에 뒤집기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두고보자는 생각이 자주 드

는걸 어쩔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이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부족하여 오늘 남조선에 천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핵전쟁까지 일으키려 하고있습니다. 그들은 핵전쟁연습의 구실을 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훈련>이라고 하는데 핵폭격기가 참가하는 상륙 작전과 도하훈련이 어떻게 방어훈련이 되겠습니까? 초보 적군사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알수있는것을 눈가리고 아웅하는데 무식하다고 할수는 없으니 철면피하다는 표현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대내에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제기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인민 전반을 적대시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건드리는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우리의 원수로 규정되지만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조국통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벗으로 어디서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확신에 넘친 함장의 목소리는 군더더기 하나없이 또렷하였다. 텔레비존록화촬영기가 《짜르르...》 소리를 내면서 화면과 록음으로 기록하였지만 발언이나 행동에서 그 어떤 주저도 없었다. 이글거리는 눈길로 마이크 지노이를 바라보면서 단호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내 립장은 이러니 마음대로 하라는 배심이었다. 그것은 승리를 확신하는 인간들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었다.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며 한생을 살아온 안상호는 그의 말 한마디한마디가 총탄처럼 가슴에 쿵쿵 박히었다. 그렇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하고 가슴이 후련하였다. 자기로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말을 탕탕 하는 그가 부럽고 그것으로 하여 자기의 어깨도 쭉 펴지는것 같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는것으로 하여 인간적으로 돋보이고 존경이 갔다. 그래서 함장이 《씨엔엔》 텔레비존과의 담화를 마치고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당신이야말로 장수감이라면서 어쩌면 그렇게 담대한가고 두손을 잡았다.

《내가 말입니까?》

어색해하며 손을 뽑은 장규정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늘도 없는 대장부다운 통쾌한 웃음이었다. 어찌나 사람의 가슴을 흔들어놓는지 어안이 병병해있던 안상호의 입가에도 병글썩하게 웃음이 비졌다.

《선생은 참 재미있는분입니다.》

속시원히 웃고나서 안상호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장규정은 이야기를 계속해나갔다.

《제가 다문 얼마라도 담대하고 확신에 넘쳐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서 주신 답력이요 배짱입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말라고 하시며 손수 실책적모범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심장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였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면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의도이고 결심이시기에 우리는 그이의 사상밖에 다른 사상을 모르며 그이의 명령을 받들어 한몸이 그대로 총이 되고 폭탄이 되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입니다. 위대한 령도자를 중심으로 혼연일체로 뭉쳐진 우리의 힘을 꺾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의 정론이고 열정적인 시였다. 그것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따르는 심장의 분출이었다. 그 뜨거운 열정은 그대로 안상호의 가슴에도 흘러들었다. 파도설레는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처럼 온몸이 설레고 불길처럼 타번지는 바다를 향하여 목이 터지도록 웨치고싶었다. 건잡을수 없는 흥분은 심장의 벽을 쿵쿵 쳤다. 어쩌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부하들을 이렇게 키워단말인가! 령장에겐 무뎡한 줄이 없다더니 원수들의 총탄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사람이 오늘은 세상을 굽어보는 용병이 되었다. 그 용맹한 병사들이 하늘, 땅, 바다를 지키고있으니 과연 누가 이 땅을 건드린단말인가!

안상호는 배심이 넘쳐나던 함장의 통쾌한 웃음에서 승리의 래일을 확신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록화물을 보자 함장에게 감상록을 달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붓을 달리었다.

《력사의 현장 <푸에블로>호를 방문하게 되어 이번 려행에서 귀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미국쪽 <진실>과 조선인민들이 말하는 또 다른 진실도 듣고 보았습니다.

저는 몇년전 미국에 가서 부처 전 함장과 승무원들의 대부분을 만나보았습니다. 부처함장은 흰 머리의 할아버지로 되어있었습니다. 나라는 통일되지 못했는데 세월은 이렇게 흘렀어요.

인민군해군여러분, 큰 고무를 받고 가도록 해준데 대하여 머리숙여 큰절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995년 4월 ×일

<××일보>씨에이지사 사회부장 안상호》

## 복수자들이 자라나는 땅

박원성

우리는 얼마전에 분노의 땅 신천을 찾았다.

때는 늦가을이어서 멀고 가까운 산들엔 누렇게 물이 들어가고있었다.

가느다란 바람결에 조용히 훑날리며 발목에 감겨도는 나무잎사귀마다에도 이 땅에 새겨진 원한의 서리발이 번뜩이는것 같아 우리 마음도 분노로 끓어오르는것을 금할수가 없었다.

10월, 지금은 10월이다. 하건만 1950년의 그 10월에는 우리가 딛고선 이 땅이 피로 적셔졌었다.

미제침략자들은 평화로운 이 자그마한 신천땅에서 여기 주민의 3분의 1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을 중세기적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함으로써 인류를 경악케 하는 야수의 흔적을 남기였고 천추만대에 잊지 못할 이 나라 사람들의 원한을 남겨놓았다.

그 어느곳을 둘러보나 빨간 감알이 주렁진 앞뜨락엔 벼나갈리가 산처럼 솟아있고 어디서나 농악소리가 그칠사이 없어 해방된 새 조국의 기쁨이 날마다 커가던 신천.

랭수 한사발을 청헤든 길손들이 느티나무 그늘 밑에 앉아 다리섬을 하며 드넓은 나무리벌을 흐뭇하게 둘러보던 이곳 편꽃봉기슭에 오늘은 박물관이 생겨났고 이곳은 미제를 단죄하는 세계의 규탄장으로 변하였다.

하여 신천땅을 찾아올적마다 심장은 비분으로 팡팡 울리고 떠날적에는 온몸이 창끝처럼 버려지군한다.

우리가 각지에서 모여온 참관자들과 함께 신천박물관 청사앞의 넓은 공지 한끝에 세워진 안내도를 바라보는데 이곳 박물관강사 주상원(그는 원암리 밤나무골 화약창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동무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신천박물관본관은 하나의 종합관과 14개의 진렬실로 되어있으며 외부에는 전 신천군당 방공호와 5605명의 애국자묘, 미제가 400명의 어머니와 102명의 어린이들을 학살한 2개의 화약창고와 묘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발굴된 수백명의 애국자묘가 있다는것이였다.

우리는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1호실에 들렀다.

호실에는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쑤임을 뚜렷이 보여주는 력사기록들과 사진자료들 그리고 미제가 우리 나라를 침략하면서 사용했던 살인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100여년전에 침략선 《서먼호》를 대동강에 침입시켰던 그 단적인 사실자료를 통해서도 미제가 조선을 타

고았기 위해 얼마나 피눈이 되어 날뛰었으며 그때마다 침략자들이 감행한 악랄성, 야수성이 얼마나 극도에 달하였는가를 똑똑히 들여다볼수 있었다. 문득 그런 악독하고 후안무치한 침략자의 후예들이 현 시대에 와서 《평화》요 《민주주의》요 하면서 세계의 선량한 인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않고 전쟁의 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사실이 돌이켜져 우리는 저저마다 북받쳐오르는 격노함을 누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4호실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 호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천읍 일대에서 감행한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인 대학살만행을 보여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야수적인 학살만행을 폭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어느 한 시기에 엥겔스는 영국군대를 가장 야수적인 군대라고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독일파쇼군대는 그 야수성에 있어서 영국군대를 능가하였다.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서는 그 당시 히틀러악당이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독하고 더 무서운 만행을 상상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양키들은 히틀러도배를 훨씬 더 능가하였다.》

우리는 강사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였다.

인간살륙만행을 강점정책으로 선포한 미제침략자들은 신천강점 다음날인 1950년 10월 18일부터 집단적인 대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관》이였던 해리슨이라는 놈의 지휘밑에 전 신천군당 방공호에서는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인간살륙만행이 벌어졌다.

설사 그대앞에 나타난것이 늙은이고 어린이라 할지라도 손이 떨려서는 안되며 무자비하라는 미제살인귀놈의 지령에 따라 승냥이들은 애국적인 인민들을 마구 체포하여 이곳으로 끌고왔다.

놈들은 야수적인 고문을 들이대며 악착한 만행을 감행하고는 그들이 죽은후에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수 없게 하기 위하여 옷을 벗겨 머리에 씌우고 여러명씩 결박하여 방공호에 가두었다. 그리고는 공기구멍으로 휘발유를 쏟아붓고 인화병을 던져 900명의 애국자들을 한꺼번에 불태워죽이였다.

미제원쑤놈들은 불붙는 방공호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총창으로 찌르고 총탁으로 까서 불길에 솟구치는 방공호안으로 끌어넣고는 방공호문을 흙가마니로 메워버리었다.

놈들의 치떨리는 만행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진렬장앞에 다가가니 그때 방공호에서 인민들을 학살할 때 놈들이 사용했던 미국제 휘발유통이며 불에 타 녹은 인화병잔해들, 방공호안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의 옷자락의 일부가 그대로 전시되어있었다.

금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게 하는 증거물들이었다.

피에 말라 웅그러진 녀인들의 머리채며 불에 타다남은 짝없는 신발들.

어느 처녀의 분홍빛치마저고리도 있다.

인민주권 선거의 날에 입고갔을 고운 옷일수 있다.

때로는련꽃봉의 어느 소나무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있는 사랑하는련인을 만나려 가며 입었던 그 옷인지도 모른다.

그처럼 꿈 많고 일욕심 많던 처녀는 어디로 가고 피에 젖고 불에 타다 남은 옷자락만 우리앞에 놓여있는가. 처녀의 아릿다운 모습대신 불에 그슬린 머리채만 보게 되는가.

그 순진한 처녀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리고 수류탄을 터친 놈들을 두고 어찌 인간의 탈을 썼다고 말할수 있단 말인가.

미제살인귀들은 당시 신천정미공장 모범로동자였던 주준일동지를 체포하여 그가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열성껏 일하였다는 죄아닌 죄를 들춰워 악착한 고문을 가하며 제놈들에게 굴복하라고 요구하였다. 그가 갖은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자 원쑤놈들은 두대의 달구지에 그의 두다리를 각각 갈라매놓고는 달구지를 멘 소를 반대방향으로 몰아 산사람의 사지를 찢어죽이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미제원쑤놈들은 월산리에 살고있던 한 농민이 구월산 인민유격대의 식량을 보관한 비밀장소를 대지 않는다면서 그가 모범농민으로 받았던 표창장을 이마에 못으로 박아붙이고 코와 귀를 철사로 꿰어놓았다. 그리고 두손에는 총창을 쫓고 끌고다니다가 도끼로 사지를 찍어놓고는 목을 잘라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도 꺼리지 않았다.

놈들의 이 귀축같은 만행에 항거하였다고 하여 이번에는 그의 머느리를 나무에 매달고 젓가슴을 도려냈으며 마지막에는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불을 달아놓으며 히히닥거리었다.

사람을 죽이는것을 하나의 도락으로 삼고 피를 보며 희열을 느낀 미제살인귀들의 만행은 차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남편과 아들, 머느리와 손자들을 모두 미제원쑤놈들에

게 빼앗긴 한 녀성은 미제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안고 그 때를 회상하여 이렇게 썼다.

《...정말 미제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었습니다. 아니 짐승도 낫을 불히게 하는 야수였습니다. 어찌 끝백번 땅에 묻힌대도 그놈들을 잊겠습니까.》

우리가 옮겨가는 그 어느 호실에나 사람들의 피가 끓게 하는 미제의 만행자료가 력사의 증견물로 생생히 전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날뛰는 침략자들에게 결코 굽히지 않았고 견결히 맞서 싸웠다.

우리는 8호실의 한 사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 학생은 신천군 삼천중학교 소년단위원장이었던 당시 14살의 림형삼소년입니다.》

농촌마을의 그 어디서나 흔히 보게 되는 평범한 소년이였다고 강사는 소개하는것이였다.

아직은 어머니의 치마자락에 휘감겨들며 엉석을 부릴 어린 나이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고향과 학교를 파괴하고 부모들과 동무들을 죽이고있는 미제원쑤들을 천백배로 복수하려고 용약 결사전에 나섰다.

소년단원들로 투쟁대오를 못하고 싸우던 그는 그만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였다. 원쑤놈들은 그를 광산굴속에 가두고 형님이 간곳과 유격대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온갖 회유와 기만, 악독한 고문을 들이대었다. 하지만 놈들은 해방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난 조선소년단원의 굳센 의지를 꺾지 못하였다.

림형삼소년은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구월산에서 싸우고있는 형님에게 복수를 부탁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한번 더 보고싶은 형님! 저는 지금 광산굴속에 갇혀 있습니다. 인제 형님이 간곳을 대지 않으면 저를 죽이고말겠다는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는 리유는 형님이 조선로동당원이고 집식구가 <빨갱이>라는것입니다.

형님, 원쑤를 꼭 갚아주시시오. 나의 원쑤 미군놈들과 그의 줄개 매국도당을...》

림형삼소년의 편지는 당시 함께 감금되였던 한 소녀에 의하여 구월산에서 싸우는 그의 형님에게 전달되였다.

평소에 것처럼 공부를 잘하고 노래도 잘 불렀으며 조직생활에 성실하였던 소년단원 림형삼은 이렇게 원쑤들을 천루케 하였다.

이곳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박물관을 돌아보시다가 림형삼소년의 편지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갈리신 음성으로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 소년의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 소년의 영웅적 투쟁을



높이 평가하시어 소년렬사라는 고귀한 칭호로 그를 불러주시고 그가 다니던 삼천고등중학교를 《립형삼고등중학교》로 명명하도록 배려해 주시었으며 학교에 그의 반신상까지 세워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그는 비록 너무도 어린 나이에 미제원쑤놈들에게 목숨을 빼앗겼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영생의 언덕에 서서 오늘도 최악에 찬 미제의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며 우리들에게 전사의 신념은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고있다.

그런 소년렬사들과 애국선렬들이 어찌 한두사람 뿐이라.

전 황해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리룡진동지는 적들에게 체포되어 최후를 앞둔 시각 인민들에게 이렇게 웨쳤다.

《나는 과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싸웠으며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싸울것이다.

동무들! 청년들!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만세를 부르자! 노래를 부르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그의 불굴의 투쟁정신에 질겁한 놈들은 그의 목을 전주에 매달고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원쑤놈들은 그가 심장으로 부른 신념의 노래만은 막아낼수 없었다.

애국적인 한 시인은 제놈들을 찬미하는 글을 쓰게 하려고 날뛰는 원쑤놈들을 맞받아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만을 노래하는 조선의 시인이라고 추상같이 웨치였다.

원쑤놈들이 그가 영영 글은 쓰지 못하게 하겠다며 집게로 그의 열손가락을 꺾어놓고 한쪽 눈까지 빼버리면서 발악했으나 신념의 웨침소리는 꺼지지 않았다.

무슨 힘이 그렇듯 애국렬사들의 가슴에 희망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었고 원쑤들과 곳곳이 맞서 싸울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지니게 하였던가.

그것은 자기들에게 새 삶의 기쁨과 행복의 터전을 마련해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제도를 지키고 받들려는 이 나라 공민들의 순결한 량심과 의리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그렇다. 해방후 그 짧은 5년간의 생활은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삶의 환희로운 나날이었으며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영원의 5년이였다.

해방전 말이나 소와 같은 역축으로 취급되며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아온 우리 인민이였다.

그 피눈물나는 노예살이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되찾고 기름진 땅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에 목메여 울고 또 울었던가.

그렇듯 고마운 조국이기에, 후손만대 복을 누리며 살행복한 땅이기에 우리 인민들은 이 땅을 침략자들에게 빼앗길수 없었던것이다.

강사의 이야기는 끝났어도 우리는 전사의 신념을 지켜원쑤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준 애국렬사들의 고결한 투쟁모습이 눈앞에 어려와 오래도록 자리를 뜰수 없었다.

우리가 박물관 참관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정오의 해빛이 따뜻하게 대지를 덮히고있었다.

때마침 청사앞마당에서는 참관을 끝내고 모여선 참관자들이 복수모임을 열고 분노의 격정을 터치고있었다. 우리도 어느덧 그 대오에 섞이였다.

연단으로 뛰어나온 한 청년이 이렇게 웨치는것이였다.

《우리는 이제 방금 신천박물관을 참관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을 그토록 야수처럼 달려들어 학살한 미제침략자들과 우리가 어찌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미제가 이 땅에서 저지른 살륙만행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신천땅에 사무친 원한을 천백배로 갚을것입니다. 신천땅의 피값을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입니다.

미제는 우리 인민의 심장에서 끓고있는 이 맹세를 똑똑히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으스스하게 틀어잡은 주먹을 높이 들고 부르짖었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

《복수하자! 복수하자! ...》

그의 선창에 호응하는 참관자들의 웨침소리가 온 신천땅에 지렁지렁 울려퍼졌다.

이 나라 사람들의 복수의 선언은 끝없이 끝없이 메아리 되어갔다.

우리모두는 가슴한가득 신천의 부락을 안고 멸적의 창검을 버리며 이곳을 떠났다.

## 팽이는 돌고있다 외 1 편

-신천박물관에서-

리종덕

내 어릴적 즐겁게 돌리던  
그 팽이 다름없건만  
어이하어  
이 피의 진렬대우에 있느냐

어느 소년이였더냐  
이 팽이의 주인은  
아마도  
내 동갑나이 또래였으리

새 조국의 기쁨이 이삭으로 익어  
벼랑가리 산처럼 쌓였던  
행복의 트랙에서  
이 팽이를 돌리던 그 소년은

원썴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이 팽이를 소중히 간직했을

그 천진한 어린것에게까지  
미제 살인귀들은  
총탄을 퍼붓고 수류탄을 던졌으니

소년아  
허리춤에 차고갔을  
그 채찍은 어데다 두었느냐  
원썴들의 정수리를 철추로 내려칠  
무쇠도리깨가 되기를 천백번 소원했을  
그 채찍!

아 복수의 그 채찍이  
내 손에 지금 쥐어져있다  
이 땅에 숨결을 둔  
천만사람들이 억세게 쥐고있다  
팽이는 돌고있다  
윙윙...무쇠바람을 일으키며

## 신천아 우리는 너를 떠난다

신천아  
너의 분노를 다 새겨안고  
우리는 떠난다  
누를길 없는 가슴속 웨침인듯  
기적소리 울리누나

빈자리 없이 가득찬 사람들  
려행옷 차림새지만  
눈빛들은 하나같이  
전선으로 떠나던  
군용렬차안의 병사들갈구나

붉은 넥타이 저 소년들도  
어른들처럼 생각이 깊고  
아기를 안은 젊은 아주머니  
호수같이 그윽한 눈에도  
섬광이 번뜩이누나

아, 이삭이 여물어도  
총알처럼 여물고  
한그루 나무 한포기 풀잎마저  
창끝처럼 분노를 안은 신천

미제 원썴들에 대한  
증오의 녀이 흙으로 쌓이고  
원한의 녀이 바위로 굳어진 땅

내 심장의 박동소리인양  
무겁게 장단을 치는 차바퀴소리  
어서 떠나자  
신천의 부락을 싣고가는  
렬차여!

탄부의 저 마음속도 헤아려보면  
복수의 정끝으로  
착암기를 더 굳게 틀어잡을 생각  
방직공처녀의 마음도  
비단필을 더 늘어갈 생각

아, 신천아  
우리는 너를 떠난다  
너의 부락을 안고  
복수를 천백배 다짐한 새 려단이  
우리 당의 경제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진지들로 바삐 떠난다

# 이 땅에 신천이 있다!

김영근

예 먼저 들려서 가라  
초소로 떠나는 이 나라 아들딸들아  
그대들이 나서자란 행복한 이 땅에  
분노의 칼이 우는 신천이 있다!

그대들이 떠나는곳 그 어디이건  
군복입은 병사의 사명을 다 알려거든  
예 먼저 들려서 가라  
오늘도 여기 런꽃봉마루엔  
장군님의 격노한 발자취 식지 않았거니

저기 밤나무골  
102어린이들의 피울음소리 다 들으시고  
400어머니들의 원한의 절규를 다 들으시고  
3만 5천의 그 참혹한 희생을 절통해하시며  
그이께서 천백배 복수를 선언하신 땅-

이 땅을 먼저 들려서 가라  
세월이 가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원쑤를 잊지 말라고  
역사가 박물관에 깊숙이 가두어놓은  
극악한 미제를 똑똑히 보고가라  
변함없는 파격을 똑똑히 알고가라...

지금은 가을-

신재령나무리 저 넓은 들에  
한창 기쁨을 거두는 기계소리 흥겹고  
해빛맑은 읍거리인  
귀여운 아이들의 꽃물결이 흘러도  
이 땅을 적신 피는 마르지 않았거니

길가의 돌맹이도 분노로 펄고  
흘러가던 꽃구름도 퇴성을 터치며  
서리발 번개의 창검을 번뜩이는곳-  
원한 서린 이 땅의 흙 한줌을 안고가라  
증오가 끓는 이 땅의 물 한모금을 적시고가라  
신천- 이고장의 불붙는 이름을  
탄창에 먼저 채워안고 초소로 가라

아버이장군님께서  
오늘도 아프신 마음속에 안고계시는  
102아이들을 깨워서 손잡고 초소로 가라  
400어머니들의 원한의 절규를  
멸적의 폭탄으로 가슴에 안고가라...

알아라, 군복입은 아들딸들아  
그대들이 나서자란 행복한 이 땅에  
우리 장군님 분노가 서려있고  
천백배 복수의 선언이 메아리치는  
신천, 아 신천이 있다!

# 나는 신천의 아들

진창우

나는 신천의 아들  
태어나 채 열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저기 화약창고에서 젖먹이 나이를 멈춘  
그 아이들의 발걸음 이으며  
복수자의 첫 걸음마를 떼었거니

어머니의 살뜰한 정 익히기전에  
나는 400어머니들의  
그 피의 절규를 먼저 새겼고  
다정한 형제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기전에  
잠들지 못하는 102어린이들의  
그 얼굴과 이름들을 먼저 새겼다

원암리 밤나무골-  
원쑤들이 지른 휘발유 불길속에서  
까맣게 타 숨이 진 102어린이들의  
그 피울음소리 아프게 간직한  
원한서린 이 땅에 고고성을 터친  
나는 복수자

봄하늘에 우짖는 종다리 노래보다 먼저

석당천 원한의 물결소리 귀전에 익혔고  
고향산천의 아름다움 다 알기전에  
박물관 진렬대에 붉게 타는  
피젖은 공화국기발을 먼저 알았다  
아, 3만 5천의 피흘린 령혼들이  
천백배 피값을 받아내라 내세운  
나는 이 땅의 복수자  
총잡은 신천의 아들

나이 한살에 10년을 성숙하며  
미제 원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나의 피로 되고  
나의 숨결로 되어  
이 가슴엔 서리발 총창이 울거니

무자비하리라 판가리 격전에서  
철천지 원수 미제의 검은 피로 강물을 이룬대도  
이 땅의 원한을 다 풀길 없는  
아 나는 영원한 복수자  
신천의 총잡은 아들!

## 당과 혈맥이 통하는 시인이 되자!

희망찬 21세기가 가까이 바라보이는 1996년 새해의 눈부신 태양이 장엄히 솟아올랐다.

봄을 총창처럼 비껴든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시대의 하늘가에 혁명의 나팔소리를 우렁차게 울리며 새해의 진군길우에 힘찬 첫걸음을 내짚는다.

어버이수령님의 령전에 진한 피눈물을 뿌리며 억척같이 다진 맹세를 지켜 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지난해의 행군길을 달리고달리며 당창건 50돐 축전장에 명작풍년을 안고 들어섰던 우리 시인들.

그 얼마나 신심과 락관에 넘친 모습들인가.

세계적인 걸작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로 천만 가슴을 격동시켰던 젊은 시인은 이해에 또다시 강선의 쇠물처럼 끓는 심장을 터쳐 위대한 장군님의 송가를 소리높이 부를것이다.

소년기를 갓 넘어섰던 그 나이에 호남의 사립문가에서 어머니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긴 총대를 끌며 전선길에 나섰던 시인은 자신을 《당에 충직한 시인》으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에 목이 베여 대오에 갓 들어선 애젊은 시인의 손목을 이끌고 새 려정에 올랐다.

혁명의 폭풍이 세찬 이 시대의 하늘가에 《높이 들자 붉은기》를 격조높이 선창한 로시인은 이 아침 천만자루의 창검이 될 그런 혁명적인 가사를 또다시 원고지우에 새겨가고있으며 대를 이어 누리는 우리의 수령복 《조선의 행운》을 노래부른 백발의 녀성시인은 단발머리 화선병사시절의 그 마음으로 시가의 총창을 높이 들었다.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걸어온 생활의 길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 시인들의 마음은 하나다. 일편단심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의 천만리를 변함없이 가고갈 그 신념, 그 의리뿐이다.

이런 시인들과 어깨를 결고 함께 행군하며 사색하고 심장의 피를 서로 주고받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시문학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있는 우리 창작지도일군들은 얼마나 긍지높고 행복찬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

시분과위원회의 창작지도일군들은 전국의 시인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결속시켜나갈것이며 주체적인 창작지도체계, 창조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나갈것이다. 그리하여 당의 사상과 의도가 잘 반영된 명시, 명가사의 풍작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나갈것이다.

장시 《사랑하는 나의 평양》, 《그리운 어머님》은 이제 곧 독자들앞에 나타날것이며 우리 인민의 주도적인 감정을 담은 보다 서정미가 있고 철학적깊이가 있는 개성적인 시와 가사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창작되어 나올것이다.

리정표는 명백하다. 작전도 훌륭하다. 시인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의 기세도 높고 열정도 뜨겁다.

준엄한 혁명의 길에 가시발이 있고 지퇴발이 있어도 서슴없이 밟고 나아갈 용맹과 투지를 안은 시인들이여, 당과 혈맥이 통하는 시인이 되자!

우리의 머리우에 영원한 세기의 태양이 빛난다.

위대한 그 태양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우러러따르며 새해의 진군길우에서 혁명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분과위원장  
백이선

## 청춘의 기백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다운 혁명가에게는 로쇠가 있을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로쇠하여도 사상정신적으로는 로쇠를 모르는것이 혁명가의 기질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려니 경황없이 흘러보낸 지난해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하나하나 떠오른다.

지난해 1995년은 참으로 뜻깊은 해였다. 당창건 50돐과 조국해방 50돐을 맞이한 나날들에 우리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시위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그 나날들에 또한 의연히 계속되는 제국

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사회주의 붉은기를 굳건히 지켜냈다.

나는 현지에 나가 생활을 체험하는 과정에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안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철의 의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말그대로 현실은 소설창작의 원천이었고 그 모든것은 작가인 나에게 창작적흥분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현실생활에서 받아안은 흥분에 떠밀리워 33일이라는 전례에 없는 짧은 기간에 2300매의 방대한 량의 장편소설 《백설령의 눈보라》(가제)를 집필하였다.

나는 지금 원고용지우에 펜을 대기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나간 한해를 돌이켜본다. 범을 잡은 포수처럼 어깨가 한뼘이나 올라갔던 그때(초고를 탈고했을 당시)의 흥분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무언가 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아쉬움으로 해서 가슴이 저절로 우그러든다. 한편의 글을 써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인민들이 오래오래 추억에 새겨둘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비해볼 때 내가 탈고한 소설은 너무나 왜소하게 형상되었기때문이다.

나의 작품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것은 창작적기량이 미숙한데도 있지만 보다는 심장으로가 아니라 손끝으로

글을 썼기때문이다.

지나간 한해를 부끄럽게 돌이켜보는 나는 독자들에게 용서를 비는 심정으로 새해의 결의를 다진다. 새해 1996년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장편소설 《백설령의 눈보라》를 기여이 성과작으로 완성해서 우리 작가들의 스승이시고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겠다.

물론 한해동안에 부피 두터운 장편소설을 초고집필로부터 완성한다는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창작적기량이 어린데다 예순나이에 이르니 육체적부담도 결코 무시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마음을 독하게 먹고 영악하게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란 없는것이다. 이것은 60평생 생활이 나에게 가져다준 고귀한 교훈이다.

신들메는 이미 든든히 했으니 청춘의 기백으로 쉬지 않고 목적지까지 일사천리로 내달리면 되는것이다.

나는 이 엄청난 과제를 몸이 열두조각 나는 한이 있어도 꼭 수행해내어 정치사상진지 강화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것을 결의한다.

소설가 **림재성**

##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에 맞는 시대의 명작창작을 힘있게 선도하겠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우리러모시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게 될 희망의 새해 1996년, 이해를 맞으며 우리 평론가들의 결의도 한층 높습니다. 뜻깊은 올해는 우리 평론가들이 전진하는 시대에 발맞춰 우리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시대의 명작창작을 힘있게 선도하는 평론창작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론은 시대적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제때에 민감하게 포착하고 창작의 주제방향과 형상방향을 구체적으로 그 어주어야 한다.**》

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문학작품창작에 도움을 주는 평론활동을 적극 벌려나가겠습니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작품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철저히 구현한 작품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창작된 문학작품이 바로 시대의 명작입니다.

작가들이 시대의 훌륭한 명작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나온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가 시대의 명작으로 훌륭하게 창작될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을 체질화하고 이에 맞게 형상을 꽃피운데 있습니다.

저는 평론활동을 통하여 모든 작가들이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에서 종자를 찾고 당의 뜻에 맞게 형상을 꽃피울수 있도록 적극 선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완성된 작품들의 사상미학적문제들을 깊이있게 론증함으로써 명작의 창작성과를 널리 일반화하는데 모든 탐구와 사색, 열정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하여 뜻깊은 이해에도 명작의 귀중한 성과로 주체문학의 화원을 이채롭게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 **강 진**

## 90년대 후반기의 첫자욱을 힘있게!

옛그제 맞이한것 같은 90년대인데 어느새 벌써 절반고개를 넘어섭니다.

새해부터는 90년대 후반기! 해마다 격동적인 사변들을 걸음걸음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도 이제는 다섯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0년대 후반기의 이 다섯해는 20세기의 마감을 빛나게 장식해야 할 기간인 동시에 희망찬 21세기를 보다 준비있게 맞이해야 할 역사적기간이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비하면 기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 문학을 새 세기에 상응한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려야 할 우리 작가들의 경우만 놓고보더라도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것입니까!

첫해부터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 기세차게 뛰고 또 뛰어야 할 90년대 후반기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아동문학작가는 어린이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는 친근한 교양자이다.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완성해나가는 보람찬 진군길에서 우리의 아동문학작가는 자기의 영예로운 책임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

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를 키우는 친근한 교양자라고 불러주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90년대 후반기의 첫해인 이 해에 나는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새로운 장편소설을 쓰려고 합니다.

독자들이 이미 알고있는 세 아동단원 광춘이, 부환이, 은숙이를 원형으로 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성격을 탐구된 생활을 통하여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그리고 보다 생동한 개성들로 전형화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어린 독자들앞에 내세우고야말 결심입니다.

하여 90년대 후반기인 새해의 첫자욱부터 힘있게 내짚겠습니다. 현실체험과 취재를 실속있게 다그쳐 끝내고 하반기부터는 집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수법으로 어린 독자들의 성격을 보다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릴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써야만 작품을 어린 독자들이 보다 흥미진진하게 읽을것인가?

지금 나는 자나깨나 이 생각뿐입니다.

아동문학작가 리준길

## 현실속에서 90년대 탄부의 성격을!

또다시 새해가 왔다. 새해의 이 아침 누구나 가슴속에 끓는 열정과 기백에 넘쳐 수많은 결의들을 다져가겠지만 작가인 나의 가슴엔 그 어느 사람들 보다도 뜨거운 맹세가 굵이치고있다. 지나간 한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 자신의 온 넋을 바쳤던가 하는 스스로의 자책속에 다하지 못한 작가의 본분을 두고 아프게 타매하면서...

하지만 새해엔 자책만으로 날을 보내지 않을것이다.

나는 60년대에 태어난 젊은 세대로서 또 작가대렬에서도 제일 어린 아직 작가의 체모를 갖추지 못한 풋내기 작가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 불러주신 성스러운 작가대오에서 나는 언제까지 풋내기로 살것는가.

잠을 덜자고 남보다 배가의 열의를 가하여 기성 세대들을 따라잡을 높은 목표를 세우려는것이 이 해에 다지는 나의 불같은 결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속에서 생활을 체험하고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항일 유격대식 사업기풍입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지난날 항일 유격대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배낭을 메고 현실에 들어가 로동자, 농민들과 침식도 같이하며 생활을 체험하고 생산현장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현실에 뛰어들어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때 훌륭한 명작이 나오는 법이다.

나는 새해에 《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의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현실에 깊이 들어가 나의 주인공들인 탄부들과 생사를 같이하련다. 그러면 한생을 탄전에서 보내며 기쁨도 괴로움도 나누는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될것이다. 나는 그들속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인 석탄공업부문 로동계급을

형상한 단편소설을 써내는것과 함께 우리 시대 참된 인간미를 지닌 탄부의 전형적성격을, 어버이수령님 유훈을 받들어 친길 땅속에서 묵묵히 석탄을 캐는 로동계급들을 그린 중편소설을 쓰기 위한 취재를 심도있게 한 다음 그 창작에 달라붙겠다.

경험으로 보나 기량으로 봐도 미숙한 나에게 이것은 아름찬 창작목표이다. 하지만 가는 세월을 땅속에서 맞고 보내며 석탄을 캐는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그들,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다면 한몸 다 바칠 드높은 열정을 안고사는 탄부들속에 있는 한 창작과제가 아무리 힘에 부쳐도 나는 반드시 수행해낼것이다.

나는 분발할것이다. 자기를 태워 빛과 열을 뿜는 석탄처럼 순간도 쉬임없이 피타는 탐구와 열정속에 새해의 날과 달을 이어나가겠다.

소설가 손광영

## 어머니의 손 외 1편

리 석

어린 시절  
고사리같은 내 손이  
어머니의 품안에 꼭 들 때엔 생각했네  
세상에 어머니 손만큼 큰 손 없을거라고  
  
세월이 흘러  
내 림름한 장정이 되어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니  
그렇게 크던 어머니 손 이리도 작아졌는가  
  
이날껏  
어머니의 손 적시던 그 물 다 합치면  
아마도 내물을 이루리  
함박에 일고 인 그 쌀 다 모으면

큰 산을 이루리  
  
아, 이 작은 손이 이 아들을 키웠는가  
애오라지 그 무엇에도 났지 않도록  
안아주고 마음까지 씻어준  
어머니의 손  
  
나라앞에 어엿한 자식이 되라고  
내 어른이 된 오늘에도  
사랑으로 떠받들며 기올이는  
그 정만은 늙음을 몰라  
  
아, 세상에  
어머니의 손만큼 큰 손은 없구나!

## 두사람의 대화

월말전투로 들끓던 기계조립장  
도당에 회의갔던 당비서동무  
현장부터 먼저 들렀네  
외출복차림 그대로

그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듯  
내려오는것을 미리 알거나 한듯  
마주 달려나오며 하는 지배인의 인사말  
- 같이 있을 땐 물랐는데  
정작 곁에 없으니  
어찌나 숨가쁘는지

자꾸만 찾게 됩니다  
그의 말에 하는 당비서의 대답  
- 내가 지배인동무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됐으면 고맙수다

지배인이 주는 담배에 불을 붙여물고  
그사이에 있었던 일  
서로 주고받으며 걸어가는 두사람  
아 돌이켜보노라  
우리 생활에 몇달씩 자리비여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이 없는가

## 화 원

권강일

### 9 월 21 일

어쩌면 그리도 꼭 같을가  
위대한 장군님 감사를 보내주신 날도 이날  
아버이수령님 여기 토산땅에 오신 날도  
마흔여섯해전 바로 이날 9월 21일

어쩌면 그리도 꼭 같은 날일가  
아버이수령님  
날중의 날을 골라 오신것도 아니고  
위대한 장군님  
뜻깊은 이날 골라 감사를 주신것도 아닌데...

현지교서관앞에 구름처럼 모여  
장군님 감사를 전달받으며  
화강석비둘에 아로새긴 그 날자를  
눈시울 뜨겁게 바라보나니

산과 들, 벌과 마을 우리 생활에  
아버이수령님  
우리 장군님

가꾸어 꽃피워주시는  
사랑의 해빛이 넘치는 이 땅

이제 우리 그 어느 다른날에  
오늘처럼 장군님 축복을 받아도  
겹치라 이날처럼  
행복과 영광이 겹치는 날이 되리

저 수룡산이 거느린 높낮은 산 수림속에  
장군별  
광명성  
구호목이 빛나듯이

세월을 두고 모시며 우러러온  
우리의 마음 하늘땅에 넘쳐라  
주시는 사랑도 꼭 같으시고  
이끄시는 손길도 그대로이신  
아버이수령님  
우리 장군님

## 아버지

의사도 간호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소년을 살리지 못한다는 실망의 한끝에서  
마음은  
장군님께로 달려갔다고

얼마나 심려하실가  
이 소년을 구해내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실가  
하여 정신을 차리고  
결심도 새로이 다졌다고

원장도 간병원도  
신통히 같은 말입니다  
소년이 끝내 숨을 돌리고  
제발로 일어서서 걷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가  
만족해하실가  
아버이장군님께로  
다음은 먼저 달려갔다고

평범한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죽은 목숨도 되살아나는  
이 땅 기적의 비결이 다 있는 말입니다

해빛이 흘러드는 정갈한 의사실에서  
나 또한 마음은 달려갑니다  
아 그이는 아버지  
우리의 친아버지!  
아버이수령님은 우리 장군님



## 우리 세월

핑장했지 그때는  
방하수를 살려낸 60년대 그날에는

살점을 떼준것이 너무도 놀랍고  
피를 나눠준것이 너무나 장해

요란하게 떠들었지 방송도 신문도  
세상없던 신기한 일 새롭게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달라  
떠들어도 그때처럼 놀라지는 않지

생각하면 비기겠나 어림도 없지  
토산땅이 해낸 일은 몇배나 크지

전신화상 소년을 도시도 아닌  
자그마한 산촌병원에서 소문없이 살려냈지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달라  
떠들어도 기적이라 말은 안하지

온 나라가 들썩 소년과 의사를  
떠들어올려도 영웅이라고는 안하지

곳곳마다 피어나는 전설들인걸  
가슴마다 피고 피는 아름다운 꽃인걸

아무튼 멋진 우리 세월이야  
기적이 레상사된 우리 시대야

## 피형

소년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주려고  
100명 또 150명...  
사람들이 밀려올 때

수술장 엄한 문앞에 긴 복도에  
물결처럼 사람들이 가득차올 때  
하얀 두건의 어린 간호원  
가슴들을 막아서며

말했다  
피형에 대하여  
그리고 소년에게 맞는 피와 살의  
그 무슨 적응성에 대하여

물랐던가

아니  
달려오면서도 생각지 못한것이였다  
알면서도 잊고살던 상식이였다

주춤 걸음을 멈추며  
마주치는 눈길들에 오가는것-  
파연 우리 몸에  
서로 다른 형의 피가 흐른단말인가

하여 지금껏 잊고 살아온 그것을  
다시금 깨우쳐안은 뜨거운 생각-  
피형은 다르다해도 우리 심장엔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한 혈육의 피가 흘렀다는것을...  
꼭 같은  
주체형의 피가 흐른다는것을!

## 너의 이름

로광철  
너의 이름은 이제  
마을에서 포래들이 부르던  
그런 이름이 아니다

남과 구별되라고  
학습장에 쓰던 이름도

너의 학급출석부에 나란히  
선생님이 올리던 이름도 아니다

부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꾸어 꽃피워주시는 어버이 손길로  
90년대의 화원우에

꽃다발처럼 높이 쳐들어주시었다

세상이 바라보며 부르는  
너의 이름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또 피는  
이 시대 이 화원의 꽃이름

술한 다른 이름들로  
그 육친들의 피와 살로  
두번 다시 태어난  
너의 이름은 《인간》

그렇다 너는  
《인간》이라는 그 한 이름으로  
태양의 빛발속에 펼쳐지는  
사랑의 화원에서 피어났다

본다 우리는  
잃어버린 앞날을 다시 찾은  
너의 그 기쁜 미래에서  
공산주의가 다름아닌  
오늘날에 펼쳐져있고  
그것속에 우리 살고있음을

부른다 우리는

너의 이름을 부르며  
갈수록 험악해지고 각박해지는  
인간불모의 세상과 구별되는  
인간만세의 내 나라 주체의 내 조국을

우리모두의 이름이 거기에 다 있고  
위대한 어버이품에서 누리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자량이 어려있는  
너의 이름은 이제  
너 하나의것이 아니거니

네 자신도 두고두고 새기며 돌아볼  
우리의 이 90년대에 대한 상징이고  
공산주의 그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인간사랑의 꽃을 피워갈 이름

전하리라 우리는 후세에 너의 이름을  
하여 너의 이름과 함께 전해지리라  
인간사랑의 빛발로 이 시대를 꽃피운  
위대한 장군님의 그 손길 그 은정  
은혜로운 태양의 그 위업은  
감사의 노래로 영원히  
시대와 시대우에 울려가리라

## 흰눈

박춘길

구내길에 내려 갱속 먼곳까지  
겨울의 반가운 손님인양  
달려온 운탄차량 하야니  
아 흰눈이 실리어왔구나

한줌쥐여 땀젖은 얼굴 비비며  
저마다 쳐다보노라, 거기에 마치  
하늘이 비껴있기라도 한듯  
눈발아래 서있기라도 한듯

땅우엔 지금 눈이 오리  
털옷입은 아이들 뿔박질하며  
고운 발자국 그리고  
추위를 모르는 사람들  
환희의 은세계에 잠겨 걸으리

허나 탄부의 마음  
온 나라 집집의 구들을 짚어보노라

발전소의 저탄장  
탁아소 온도계 눈금을 살펴보노라

태양등 밝은 혼 혼한 갱속에서  
혹 계절을 잊지나 앓았는지  
물으려 속삭이려  
막장 깊은곳에도 눈이 온듯

아 눈 흰눈  
탄부 내 어깨우에  
천근무게로 내려쌓이는  
하얀 눈

더 많은 석탄을!  
더 많은 석탄을!  
내 마음에 불을 다는 눈  
땅우엔 지금 눈이 오리

## 목란꽃향기

리혜경

가지무수한 백양나무들이 수려하게 늘어선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안 뒤좌석에 한 중년의 금발머리 사나이가 앉아 있다.

가느다란 줄무늬의 봄양복을 입고 약간 어두운 빛갈의 넥타이를 맨 그는 에스빠냐계 에파도르 사람 마르꼬 데 멘도스이다.

그는 방금 개건이 끝나가는 조선시조왕 단군릉을 방문하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산뜻한 초가를 바람이 열려진 차창으로 스며들며 그의 희끗한 금발머리를 날린다.

온 지구행성을 돌던 한순간에 정지시켰던 유사 이래 첫 사변-**김일성** 주석님의 서거소식이 멀리 적도의 안데스산맥에 전해지던 그날부터 근 석달이 지나갔다.

(아! 내가 왜 좀더 일찌기 조선을 알고 그 위대한분의 사상을 배우지 못했는가! 이 세상 한분밖에 없는 것처럼 위대한 세기의 위인을 내 생전에 끝내 뵈옵지 못했구나!)

그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고르로운 포장도로를 스치는 승용차의 바퀴소리만이 자분하게 들린다.

(나는 적어도 10년전부터 조선의 위대한 사회주의를 배울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10년! 그 10년은 그에게 있어 별찌처럼 빠르게, 아니 어쩌보면 태양의 제돌이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 1

마르꼬 데 멘도스는 에스빠냐의 모족인 이베리아-켈트족의 신대륙에로의 대 이동이 있는 한세기후인 17세기에 남아메리카로 건너간 카톨릭선도사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자라난 환경은 각종 행과 불행의 다반한 세상사와 거의 격리되다싶이한 해묵은 목시록의 고루한 지면과도 같은 것이었다.

천문대의 초침보다 더 정확하고 세상의 존재처럼 변함없는 교회당의 종소리, 검은 성복을 입은 아버지가 올리는 기도의 둔중한 메아리, 한번도 그 멜로디를 음미해본적 없는 성가를 타는 오르간소리...

하지만 이 정숙하고 따분한 가정의 분위기는 남달리 탐구심과 학열이 높았던 마르꼬에게 아버지의 풍만한 서재뿐

아니라 그밖의 갖가지 서적들을 탐독하는데는 오히려 적중한 것으로 되었다.

그는 닥치는대로 읽었다.

호머의 서사시로부터 산수지리의 고행자들이 남긴 아슬아슬한 탐험기, 권력의 룡상을 위해 기발을 들고 지경을 돌파해간 옛 황제들의 영웅담...

그러나 동심의 어린 시절부터 마르꼬가 무엇보다 진취를 느낀것은 그림그리는 일이었다. 그는 시각에 용해된 모든 것뿐아니라 지꼴은 독서가 준 온갖 표상과 공상을 화판에 옮기기를 즐겼다.

마르꼬의 중학시절이 거의 끝나가던 어느 일요일, 일요일배가 끝나고 성복을 벗은 아버지가 방금 집에 들어왔을 무렵이었다.

책상에 마주앉아 문예부흥기의 조형미술에 대한 책을 읽고있던 마르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울려나오는 누군가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었다.

《목사님, 그러니 진리의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난 법에도 상소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함구무언이군요.》

마르꼬는 그것이 수도 끼또에 소기업체들을 가지고있던 미국의 커피카르텔이 불시에 그 투자를 대폭 늘임으로써 그해 중남미공동시장에서 대 실패를 하여 파산에 직면한 자국커피가공회사의 젊은 사장 로페 데 바르가의 목소리임을 알아들었다.

그는 화려한 건축도형들에서 눈을 떼고 귀를 기울였다.

한참만에 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음, 정치란 그것이 세상에 생겨난이래 아직 어느하나도 만민에게 공평하게 복무되지 못하고있소. 아마 이것이 정치라는 기업의 본질인가보오.》

《이 무지한 불공평이 언제 어떻게 끝납니까?》

《속세의 인생들이 모두 진리의 인식으로 자아 수양하고 양떼가 선두를 따르듯 주의 의사에 순종하게 된다면...》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걸머지었다지만 어찌하여 그의 교리가 후날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사상적도구로 되어 오늘까지 신의 이름으로 전횡이 사라지지 않고있습니까?》

《신의 이름으로 신을 더럽히는것은 악덕중의 악덕이요. 진리는 그것이 어떤 수난의 로정에 있든 불변하며 영원하오.》

마르꼬는 마음이 허전하고 서글퍼졌다.

인간이 인식해야 할 진리가 인간의 운명 그자체를 개척

하는데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런 진리의 영원성이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가?

과연 아버지는 예수의 교리가 전 인류를 포용할 날이 언제든지 오리라고 믿는단 말인가?

아니 나는 그 어떤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것, 만민에게 공평한 미학과 예술로써 인류에게 복무하고싶다.

마르코의 대학입학을 앞둔 어느날 아버지는 심중한 안색으로 아들의 두툼한 화첩을 펼쳤다.

태고의 험준한 알프스를 넘는 한니발의 원정대, 아름다운 호수가에 고이 잠든 달의 너신 세레나, 아지랑이가 물거리는 초여름 방목지의 소년목동들, 지어 네데를란드민화 《빨간장미》의 주인공 눈먼처녀까지 그려져있었다.

좁처럼 감정을 얼굴에 나타내본적없는 50대의 건장한 목사는 당장 미간을 찌프리고 두툼한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의 입에서 끝내 빼루의 썩 마르코스대학에서 미학을 공부하고싶다는 말을 듣자 술진 눈섭마저 푸들푸들 떨렸다.

그러나 그는 애써 자신을 억제하고 항시 본연의 그 목소리로 말했다.

《마르코, 예술은 사유의 한 형태, 그것도 매우 추상적인 형태일뿐이고 사유의 진정한 총체는 진리에 대한 의식이다.》

《그럼 아버지 오직 교회적승배와 설교만이 진리를 인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듯한 아들의 단도직입적인 반문을 받자 아버지의 얼굴은 한결 더 컴컴해졌다.

《너는 아직 너무 젊은탓에 최악과 불행으로 가득찬 이 사회사의 모순을 다 이해 못하고있다. 아담에게 내려진 그 저주로부터 인간은 바로 신이 선물한 그 리성의 힘으로 자족과 행운을 위한 길에서 허다한 모순을 낳고있다.

피와 피, 계교와 계교, 사상과 사상의 이 참극적인 대결에서 이기는자 누구고 지는자는 누구냐?

수세기의 이 천차만별한 인간사를 계를처럼 훑느라면 결국 의식은 최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수난당한 예수의 그 시초전문에 이르게 된다.》

마르코는 아버지가 넋을 부어 숭상하는 그것, 예수의 그 희생적인 교리가 인간을 얼마나 구원했는가고 물으려다가 혀를 깨물고 참았다.

《아버지, 저는 바로 인류의 정신적부가 최대의 조화로 완성되는 참된 지향의 예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목사는 서글픈 표정으로 아들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실망을 서두르지 않았다.

미학이란 어쨌든 인간의 고상한 정신, 아름다운 지향, 참된 선의 설교를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것으로서 미래의 선도사로서의 20대청년에게는 오히려 매우 타당하고 유익한

분야로 될수 있다고 믿었던것이다.

그는 아들의 지적인 성장과정을 세심히 관찰하고 필요한 시점마다 그를 깨우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학공부에 열을 올리던 지심깊고 고집스러운 성격의 마르코가 돌연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을 동경하게 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생겼다. 더우기 이 위대한 사건의 동기로 된것이 놀랍게도 기독교의 유명한 성화 《크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것은 목사에게 그 어떤 기막힌 탄성과 함께 무서운 절망을 자아냈다.

진취성이 강하고 시대의 참된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높은 청년들이 흔히 그러하듯 마르코 역시 사회와 인류, 력사와 진보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다만 아버지의 고루한 종교나 자기의 순수한 미학으로만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안데스고원의 찬바람이 리마의 메마른 대기에 돌개소요를 일으키며 입김마저 걷어가던 어느날 유명한 성 베네딕토 사원의 많은 성상과 성화들중에서 《크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학생들은 사상의 예술적재현과 그 미학적기교에 대하여 열렬한 논쟁들을 벌렸다.

작열하는 태양에 화재가 일듯 빨갱게 단 땅, 그 땅의 어딘가 저 멀리로부터 마치 천상에서 조용히 내린듯 예수가 걸어온다. 짙 다문 입, 움푹인 검은 눈, 그 앞에 선 사람들은 각이하다.

누구는 환희의 두손을 쳐들고 누구는 질겁하여 눈을 데룩거리며 갈데를 찾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뒤에는 무서운 철벽의 미궁, 오직 태양은 아득한 그곳, 부활의 지평선에만 있을뿐이다.

마르코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인간세상에서 선과 악의 대결은 언제 끝나며 정의롭고 참된 생활은 어떤 사상에 의하여 창조되는가?

그렇다. 인간은 바로 영원한 진리의 번영을 갈구하며 그 진리와 선행이 오욕되고 질시되는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수십세기의 인류의 악의 근원은 그 어떤 신의 부활, 그의 정신적심판만으로는 결코 해소될수 없는것이다.

그 어떤 실질적이고 위대한 전변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그 악을 제거하는 기치를 든 맑스가 있었고 맑스주의의 산아인 사회주의가 있다!

사회주의는 계급에 의한 계급의 지배가 종식된 사회라고 한다. 그렇다면 예수의 그 리념이 현실로 되는 지름길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곳으로 가보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혹시 그 땅에서 인류갈망의 화원을 찾을수도 있다.

드디어 마르코는 사회주의사상을 배우기 위해 대륙을 넘어가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은 아들이 가문의 사명, 인류근본의 정신업에 감심

하여 성직을 이을 날을 고대갈망하던 멘도스목사에게 있어 실로 무서운 타격이었다.

그는 분노하여 아들을 400년동안 빛내온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단자로 저주하였으나 이미 굳어진 마르코의 결심은 꺾을수 없었다.

《아버지, 저는 진정으로 인류의 영원한 번영을 위한 일에 자신을 바치고저 합니다. 만인의 행복은 천상의 구세주가 주는것도 아니고 화판에 그려진 에덴동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참의의 행복상이란말이나?》

《아직은 저도 다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는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계급의 대립이 영원히 없어진 사회, 이것이 번영의 첫 실천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은 랑자한 류혈의 대가로 얻어진것이다. 진정한 리상은 만인의것이여야 한다.》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을 바치시는 예수의 리념도 역시 피의 대가가 아니였단말입니까? 그 무서운 십자가의 처형이 없었다면 그 선의 교리가 후세인들에게 그토록 매혹적으로 숭상되었을가요?》

그답지 않게 격하여 웨치는 아들을 망연자실하여 바라보던 목사는 《읍!》 하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오! 주여! 내 아들의 방황하는 넋을 인도해 주옵소서!》 절망에 찬 기도를 뒤에 들으며 비행기에 오른 마르코는 소창으로 아득히 펼쳐지는 안데스고원과 끼또의 적도표식탑, 안개속에 묻혀 사라지는 교회당첨탑들을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대문가에 그대로 서서 비행기 날으는 하늘을 바라보고계실 아버지의 모습이 눈굽이 찢릿하게 안겨왔다.

(아버지, 제가 이 길에서 아버지가 일생 원하시는 인류의 리상, 참된 권리를 찾으면 그것으로 부디 이 아들을 축복해주십시오.)

그의 운명의 주사위는 이렇게 던져졌다.

## 2

이리하여 무의식한 어린 시절 십자가의 교리를 자장가처럼 들어왔고 그후에는 인류리상의 최조화를 예술로 표현하려 했던 마르코 데 멘도스는 사회주의혁명의 역사가 가장 오랜 그 나라 수도의 종합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춘하추동 4계절이 그림처럼 명백한 온대의 상긋한 기후처럼 정치가 인민을 위해 실시되고 인격차별의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고 노동이 행복의 근본으로 되는 새 세상, 그것은 공화국선포 이후 50여차례의 정권교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난파를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겪은 마르코에게 있어 소년시절 상상의 화폭속에 아름다운 표상으로

윽기려던 하나의 꿈세계와도 같았다.

탐구의 열정이 불산처럼 끓던 그 몇년간 그는 진한 커피로 졸음을 쫓는데 습관되었고 짧은 잠을 깰 때마다 심한 머리아픔을 느끼곤했으나 새날과 함께 또다시 강의와 도서관, 박물관과 유적을 찾았다. 자기몸의 한 부분과도 같은 그림그리는 일마저 거의 잊다싶이 한 그였다.

처녀들은 그런 마르코를 두고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는 피아노가 유감스럽게도 뚜껑을 꼭 닫아뒀다고 수군거리었다.

이르게 내린 첫눈에 온 도시가 백설천지로 되어버린 어느날, 마르코와 각별히 가까이 지내는 빼루친구가 귀엽게 생긴 낯선 처녀를 데리고 나타났다.

《마르코, 그 주옥같은 인쇄판들이 끝내 자네의 시력을 앗아갔나보군. 안경알이 꽤 두터워진걸 보니.》

《아! 자넹가! 어서 오게.》

마르코는 안경을 벗어들고 깃털이 노란 외투를 입은 그 처녀와 어줍게 악수를 나누었다.

《내 약혼녀야. 엘미라라고 하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의 자손이며 오늘은 과학적무신론의 탐독자이며 전도유망한 화가인 내 친구 마르코 데 멘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자네의 화첩을 꼭 구경하고싶다고 졸라서 함께 왔네. 서교와 동교, 유신과 무신, 미학과 력사의 흥미있는 교차점들이 인식발전의 증견자로 자네의 그 직관화들에 담겨있을거라나, 자, 어서!》

《화첩말인가? 미안하네, 난 이 몇년간 한장의 그림도 그리지 못했네.》

《그래? 섭섭하구만!》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두손을 비볐다.

그들이 나간후 방안에는 잠시 취할듯한 류다른 향수냄새가 남아있었다.

마르코는 어쩐지 그 어떤 나른하고 아늑한 상념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느꼈다.

그의 나이도 이제 서른을 넘었다.

별빛 아롱한 밤, 마음속에 첫정으로 간직한 《아름다운 처녀》와 함께 하늘의 음악에 귀기울이며 솟구치는 행복감에 가슴들먹일수도 있지 않는가! 정원의 가울락엽 태우는 구수한 냄새에 취하며 식탁으로 부르는 《안해》의 정겨운 부름을 들을수도 있지 않는가!

마르코는 그러한 자신을 그려보며 눈앞이 흐릿해왔으나 그의 귀전에는 또다시 아버지의 목멘 기도가 종소리처럼 울렸다.

《내 아들의 방황하는 넋을 인도해주옵소서!》

창너머 흰눈 덮인 도시와 룬광들이 절벽을 때리는 아마존의 물결과 교차되어 뿌잇하게 안겨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에게는 자기가 탐구하는 모든것

에 대한 종잡을수 없는 의혹과 그 미래에 대한 까닭없는 불안이 싹텄다.

잉여가치의 보유자들은 오늘날에 와서 상승하는 생산력에 반해 노동력을 보다 원만하고 극단없이 리용할수 있는 방도를 부단히 모색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자본주의 생산관계도 이러저러한 타협적인 균등을 유지하려 하고있다. 하다면 100여년전의 유물론으로 자본의 사치화된 철쇄를 끊어버리고 제국주의 무한계도의 지배를 종식시킬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은? 인간은 무엇인가?)

신학은 신의 의사에 순종하는것이 인간이라고 설교한다면 객관물질의 객관적운동에 숙명을 맡기는것이 인간이란 말인가? 그럴수야 없지 않는가?)

오늘의 세계는 분명 무엇인가 새로운 사상, 시대의 지향과 정신, 인간의 가장 소중한 요구를 반영한 진실로 현 시대적인 인류해방의 철학을 요구하고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과연 어떤 사상이 그런 전 행성적인 문제에 대답을 줄수 있는지 그로서는 묘연하였고 하여 탐구로 무섭게 뚫던 그의 열정은 차츰 쇠물이 다 빠져나간 도가니처럼 허전하고 무뎠해졌다.

마르코는 고민에 빠졌다.

방황의 넓은 결국 이렇게 구원되는가?

더우기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불안을 질게 해준것은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적측면이었다.

《우리 가문처럼 피를 흘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단말이야. 그런데도 맑스는 노동계급이 혁명에서 잃을건 철쇄뿐, 얻을건 온 세계라구? 흥, 로병의 자식인 나에겐 온 세계는 고사하고 낡은 <쥐굴리> 한대도 없어. 저 서방세계에선 신형 <벤즈>에 별장을 가지는건 보통인 데두. 그러니 피를 흘린 대가가 도대체 뭐가말이야?》

어느 친구의 생일연에 초청되었을 때 마르코는 아버지가 2차대전에서 한 팔을 잃은 로병인 한 청년이 술잔을 휘두르며 이렇게 말하는것을 듣고 몹시 허무하고 기분이 언짢았다.

(아! 이 사회의 미래는 저들의것일진대 저들은 장차 이 사회를 어디로 끌고갈것인가? 남의 고운으로 누리는 부귀와 환락이 그리도 부럽단말인가!)

그는 마치 어딘가 아득한곳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미지의 애달픈 신음소리가 들리는듯했다.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양의 난파에 떠가는 돛없는 배, 찌그러져가는 옛 귀족의 저택, 찬바람에 길을 잃고 떨고있는 가련한 비둘기, 마르코의 이러한 심리적회의와 고충에 대해 알길 없는 친구들은 짝 달겨 열쇠마저 잃어졌던 피아노가 뚜껑을 열었다고 기뻐했다.

《탐구의 화신이 갑자기 라태의 왕이 되는가 했더니 진정

한 예술의 품, 자연의 품으로 돌아왔구나!》

마르코가 화첩을 옆구리에 끼고 신록이 무성한 호수가로 나가는것을 본 한 처녀는 이렇게 말하며 손뼉을 치기까지 하였다.

아름다운 처녀들은 저마다 인물화의 모델이 되어달라는 청을 은근히 기다렸으나 뚜껑열린 피아노는 종시 기대의 우아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연보라빛 정향꽃이 봄날의 싱그러운 바람에 교교한 자태를 한들거리며 유난한 향기를 뿌리던 어느날 상큼한 봄향기에 취해 홀로 대학앞 정원을 거닐던 마르코는 갑자기 치미는 복부의 아픔에 낮을 찡그리며 긴의자에 주저앉았다.

웬일인가? 이마에 비지땀이 내뿜고 동통이 숨가쁘게 압박했다. 마르코는 어쩔바를 몰라 아래배를 움켜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중전화소는 불과 300미터밖에 있는데 도저히 걸을수가 없었다.

공원 저쪽에서 떠들썩하며 바드민톤을 치는 청년들이 있을뿐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아픔은 점점 더 심해지더니 머리가 빙글빙글 돌며 정신이 혼미해졌다. 눈석이물이 질편한 포석도에 마구 나딩굴고싶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다급히 다가오는소리가 들렸다.

《아니, 마르코, 웬일이세요? 어디 아파요?》

머리를 들어보니 생물학부에서 공부하는 정인경이라는 조선처녀가 손에 커다란 화분을 들고 놀란 얼굴로 서있다.

보통키에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오동통한 입술이 유난히 인상적인 그를 마르코는 외국인들이 주마다 모이는 《인터나쇼날 크롭》에서 자주 만나군했으나 유전학자인 그가 류달리 바이올린을 잘 켜다는것을 알고있을뿐 별로 가까이 사귀여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에 그가 자기앞에 나타난것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괜찮소.》 마르코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말했다.

《아, 머리가 불덩이같아요. 큰일났군요.》

인경은 마르코의 이마에 손을 대보며 펄쩍 뛰었다. 그는 손에 든 화분을 의자우에 정히 내려놓더니 급히 달려갔다가 한참만에 되돌아왔다.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구급차가 올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인경은 손수건을 꺼내 깨끗한 물을 찾아 적셔가지고 마르코의 이마에 가져다댔다.

금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복부의 아픔은 조금도 덜해지지 않았다.

《마르코, 몹시 아프지요? 조금만 참자요, 조금만.》

인경은 자꾸 큰길쪽을 바라보며 어린애를 달래듯 마르코의 구부린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안됐소, 정인경, 갑자기 이렇게...》 .

《무슨 말을 해요? 아! 저기 차가 오는것 같아요.》

자그마한 하얀 구급차가 공원입구에 와 멎더니 위생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마르코는 대학병원에 실려와 구급대책을 받은후에야 손에 화분통을 그냥 든 정인경이 그때까지 의사들과 함께 있는것을 알아보았다.

《전염병입니다. 제2병원에 보내야겠습니다. 합병증이 안 생기면 21일간 입원하게 됩니다. 처녀동문 이젠 돌아가시오.》

《아니에요, 혼자서야 어떻게 보내겠나요? 저 사람은 예파도르사람이에요. 이 도시엔 혈육 하나 없어요. 병원이 어디 있는지라도 알아야지요.》

《알아도 필요없습니다. 전염병원엔 면회할수 없습니다.》

《그럼 입원하는것만이라도 보고오겠습니다.》

그를 유심히 바라보던 너의사가 문득 살뜰한 어조로 말했다.

《처녀, 안심해요. 무서운건 없어요. 그럼 병원까지 우리와 함께 가지요.》

구급차는 머나먼 교외의 2병원을 향해 달렸다.

차안에 누운 마르코는 동통이 가는지고 머리가 어지간히 맑아지는것을 느끼며 회고 매끈한 가지에 반타원형의 넓고 밋밋한 진록빛 입사귀들이 어기여 붙은 나무모화분을 어린애처럼 꼭 껴안고 앉은 정인경을 바라보았다.

《정인경, 그건 뭐요?》

《목란꽃나무예요.》

《목란꽃? 그건 어디서?》

《부루쵸브에서 구했어요.》

《아니, 그 먼곳에?》

《 시내 화초원들엔 없더군요.》

《그 꽃을 사랑하오?》

《그래요.》

인경은 어쩐지 이슬이 맺힌듯한 눈으로 꽃나무를 바라보고있었다.

《정인경, 먼곳에 다녀오느라 피곤할텐데 나때문에 또 이렇게, 당신은 그냥 돌아갈걸 그랬소.》

《무슨 말을 하세요? 나 아니면 누구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겠지요. 더우기 우리야 조국을 멀리 떠나 이국땅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고맙소.》

《마르코, 이렇게 앓을 때면 고향집 생각이 간절하지요?》

인경은 생긋이 웃으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잘 자라 우리 아기 귀여운 아기

꽃같이 어여쁜 나의 아기야

귀여운 너 잠잘적에

하느적 하느적 실버들 춤춘다

마로코는 눈을 감았다.

아득한 어린 시절 교회당뒤마당에서 비둘기를 쫓으며 빵부스레기를 던져주다가 돌부리에 걸쳐 넘어진 자기를 두팔에 안아 침대에 눕혀주시던 어머니, 상처에 약을 바르며 나직이 불러주시던 자장가소리!

소녀티를 갓 벗은것 같은 애어린 이 처녀의 모습이 그 순간 그에게는 저 멀리 잊혀진 어머니의 다심한 눈빛, 아직한 가슴에 깃든적 없는 그 어떤 애절한련민의 젖빛으로 안겨들며 심장을 짜릿하게 자극했다.

21일만에 퇴원하여 병원문을 나서던 마르코는 공연한 생각인줄 알면서도 사방을 두리번 살폈다.

침상의 그 나날 그 조선처녀의 유난히 인상적인 오동통한 입술을 몇번이나 애뜻한 미소속에 그려 본 그였다.

《퇴원하는 날 데리러 오겠어요.》

헤어질 때 인경이 밝게 웃으며 하던 말이 귀전에 생생했으나 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내가 뭐라고 그 처녀가? 그때 일만해도 보은할 길없이 고마운데...)

어쨌든 홀로 병원문을 나서자니 별로 서글퍼지는 심정을 어쩔수 없었다.

바로 그때 길 저편에서 누군가 《마르코!》 하고 소리쳤다. 빨간 진주꽃을 든 정인경이 마르코와 한호실에 있는 친구 와짐과 함께 막 뛰어오고있었다.

《아! 정인경! 와짐!》

마르코도 기쁨에 겨워 마주 달려갔다.

인경은 그에게 진주꽃을 내밀며 이마의 땀을 훔쳤다.

《늦어서 미안해요, 퇴원을 축하해요.》

《축하하네, 마르코, 정말 다행이야.》 외짐도 마르코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고맙소. 정인경, 이렇게 또 와주었구만.》

《약속하지 않았나요? 데리러 온다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우리가 왔어요. 호호, 머리칼이 희기 시작하는 점잖은분을 아이처럼 대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퇴원할 땐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쓸쓸해요. 그렇지요 와짐?》

《그럼!》

아! 저 다정한 인간미!

마르코는 코마루가 시큰해오는것을 느끼며 정인경의 또렷이 반짝이는 두눈을 정겹게 바라보았다.

《당신처럼 자그마한 처녀가 이 나이든 사람을 아이처럼 대해주니 즐겁구만.》

마르코는 웃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그 어떤 이름할수 없는 걱정이 피어올랐다.

다음날 마르코는 얼마전에 있던 대학적인 외국어경연에

서 정인경이 단연 1등을 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망울이 채 터지지 않은 진주꽃 한송이를 들고 경연 시상식이 열리는 대학강당으로 달려가 상장과 상품을 받고 나오는 인경에게 주었다. 그에게는 어쩐지 그 처녀의 모습이 제 자태를 곁에보다 속깊이 더 많이 간수하고있는 이 빨간 꽃망울같이 생각되었던것이다.

어느덧 파아란 잔디가 소담히 깔리기 시작하는 대학 정원길을 걸으며 마르쵸는 말했다.

《정인경, 당신은 참 대단하오. 경연에 참가한 사람은 만명이 넘소. 프랑스어경연에 4천 5백, 영어를 가지고 참가한 사람은 6천명이나 된다고 하오. 그런데 단연 1등이란말이요.》

《축하를 해주어 고마워요. 정말 난 오늘 기뻐요. 내가 1등을 했으니 우리 조국의 이름이 빛나겠지요. 사람들은 이 정인경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조선학생이 1등을 했다는건 기억할거예요.》

《조국! 그렇게도 조국을 사랑하오?》

《난 힘들고 피로울 때면 늘 조국이 나를 지켜주고있고 우리 수령님께서 조국을 위해 공부 잘하라고 다정히 말씀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조국과 수령!... 참, 정인경, 들었소?》

**김일성**주석님께서 타신 특별열차가 우랄을 통과했다고요.》

《그래요. 난 손가락을 꼽아가며 그이께서 도착하실 날을 기다리고있어요. 막 가슴이 설레어요. 글썄 만리 이역땅에서 우리 수령님을 뵈게 되었단말이에요. 난 그이를 뵈옵는 날 싱싱히 곱게 핀 목란꽃을 드리겠어요.》

《목란꽃? 아! 그때 그 꽃나무?》

《네, 그건 취목으로 퍼친 3년생인데 벌써 7송이나 폈어요. 그리고 당장 피어날 망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그때 주석님께서 유럽방문을 오신다는 보도를 듣고 목란꽃을 구하러 그 먼곳에 갔됐구만. 꽃다발은 여기서도 마련할수 있지 않소?》

《아니예요. 그 꽃은 우리 수령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꽃이에요. 조선의 기상처럼 아름답다고 친히 그 이름 지어 주신 우리 조선의 국화예요.》

《조선의 국화! 주석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꽃!》

《이국땅에서 활짝 핀 목란꽃을 보시면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르쵸는 이 몸매 자그마한 처녀의 심장은 누구나 쉬이 들여다볼수 없고 알수도 없는 무엇인가 거대하고 숭엄한것으로 꼭 차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처녀는 분명 아무도 뵈아보지 못한 그 어떤 류다른 토양에서 자라나 그 신비한 향기를 받아 숨쉬는 존재였다.

자유와 평등, 유족한 생활의 복을 누리면서도 그 진가를 느끼지 못하고 남의 로동으로 배를 불리는 저 서방의 《부

귀향락》에 눈이 부시여 《홀린 피의 대가》가 뭐냐고 술잔을 부시며 웨쳐대는 이 나라의 무릇 청년들과 비해볼 때 저 처녀는 얼마나 순결하고 의로운가!...

마르쵸는 그 어떤 숭엄한 흥분에 뜨겁게 충혈되는 자신을 느끼며 인경의 손을 꼭 잡았다.

《정인경, 당신은 참 이상한 처녀요. 신의 자애를 남달리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가! 난 목란꽃을 한번도 본 일이 없소. 주석님께서 도착하시는 날 목란꽃을 든 당신을 보려가겠소.》

5월의 유난한 해빛이 따사롭게 대지를 감싸던 력사적인 그 아침,

마르쵸는 류다른 옷차림을 하고 목란꽃다발을 가슴에 꼭 안은 정인경이 승강기앞에서 동무들에게 에워싸여있는것을 보았다.

(아! 저 꽃이 목란꽃이구나!)

흰눈처럼 하얀 꽃잎, 열정을 내뿜는듯한 빨간 꽃속, 진귀한 그 꽃과 더불어 흥분으로 달아오른 인경의 모습이 눈에 당겨왔다.

무릎아래까지 드리운 까만 주름치마, 무지개의 칠색이 그속에 다 담긴듯 눈부시게 아롱거리는 하얀 저고리, 부드러운 흰 살빛이 드러나게 가리마를 내어 정히 빚어넣긴 짧은 단발머리.

마르쵸의 예술가적 두눈에는 그 순간 진귀한 만보석이 그 자그마한 처녀의 온몸을 휘감고 령롱한 빛을 내고있는것 같이 보였다.

그는 서둘러 가방을 열고 종이와 연필을 꺼냈다.

《정인경, 잠깐만 기다려주오. 그 모습을 내 화첩에 남겨야겠소.》

마르쵸가 무릎을 구부리고 연필을 잡자 모두들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며 물러섰다.

《그 꽃은 정말 특유한 미가 있소. 그 어떤 깨끗한 순정과 열렬한 기상이 어린것 같소.》

마르쵸는 재빨리 연필을 놀리며 말했다.

《조선말로 목란이란 나무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이란 뜻이에요.》

《정인경, 이 아름다운 목란꽃은 당신의 그 고결한 마음을 주석님께 고이 아뢰드릴거요.》

마르쵸는 기쁨과 환희, 그리움의 눈물이 그윽히 고인 그 순결한 까만 눈을 정성껏 그렸고 그 연필화에 《목란꽃 처녀》라는 이름을 달았다.

그날 저녁 정인경의 방에는 국적도, 얼굴색도 각이한 수많은 남녀대학생들이 모였다.

마르쵸는 좀 늦어 이야기가 한창 고조에 이른 때에 거기에 들어섰다.

흥분에 떨리는 인경의 갈린 목소리가 문밖에까지 들렸



다.

...수령님께서 꽃을 받아드리고 《아! 목란꽃이구만. 이국 땅에서 된 목란꽃! 고맙소, 고마워!》라고 하시며 나의 이손을 꼭 잡아주시었어요.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그이께서는 나는 동무들이 조국 떠나 먼곳에서 목란꽃을 안고 조국을 그리며 공부하는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나에게 《졸업반이라지, 그래 이제 졸업하면 무엇을 연구하겠나?》 하고 물으셨어요.

《수령님, 전 새 품종의 벼종자연구를 과제로 잡았습니다.》

《새 벼종자! 여기선 벼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을텐데, 그렇지 않아?》

《하지만 조선사람이야 웅당 벼를 연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알이 큰 종자를...》

《벼알이 큰 종자라! 용쿠만, 용해. 그래야지.》 하시며 나를 찬찬히 여겨보시던 그이께서는 《동무의 얼굴이 낮아 익다. 가만 언제인가 설맞이무대에서 만났던 어린 바이올린독주가가 아니요?》

아! 그 순간 난 너무도 뜻밖의 일에 심장이 멎는듯하여 수령님을 우러르며 멀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수령님, 그 오래전 일을 어떻게 오늘까지... 제가 바로 8년전 설맞이무대에서 수령님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과학자가 되라고 축복해주시고 명랑하게 자라라고 바이올린을 선물로 주신 그 학생입니다.》

《웁구만, 어디 보자. 이렇게 컸구만. 그때 바이올린을 참 잘 탔지. 그러면서도 인민들에게 매끼 흰쌀밥을 먹이려는 나의 평생소원을 풀어주겠다고 콩알만한 벼알이 달리는 종자를 연구하겠다고 어린 소녀! 그런 인민,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얼마나 위대한가 하고 생각했었지. 그때의 뜻을 버리지 않고 끝내 생물학자가 되었구만. 장하다, 장해. 네가 이렇게 자란걸 알면 돌아가신 아버지도 기뻐하실게다.》

난 그만 《아버지!》 하고 수령님의 넓은 품에 와락 안겨 흐느꼈어요. 그이께서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울지 말라구 이렇게 반갑게 만났는데 자꾸 울면 되나?》 하시며 우리모두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어요.

떠나시기전에 그이께서는 나에게 다가오시며 《조국에 돌아오면 연구를 잘해서 꼭 성공하라구. 성공하면 나한테 제일먼저 알리오. 내 꼭 가보겠소.》라고 하셨습니다...

정인경은 말을 마치고 일어서더니 장우에 놓인 바이올린통을 내리웠다.

《동무들, 이 바이올린이 바로 8년전 그 설날 수령님께서 명랑하게 노래하며 자라라고 선물로 주신 그 바이올린이

예요.》

인경은 흐느꼈다.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한번도 체험한적 없는 그 어떤 승업함과 경건한 마음에 젖어 그를 바라보았다.

《김일성주석님은 참으로 덕망이 높은분이에요.》

누구인가 조용히 말했다.

정인경은 청중을 둘러보며 걱정에 넘쳐 말했다.

《우리 수령님은 바로 이런분이에요. 인민을 하늘같이 믿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분, 아! 그이는 정녕 우리 민족의 아버지, 우리의 태양, 우리의 하늘, 우리의 운명이예요.》

무한한 감동이 온 방안에 차넘치는가운데 정인경은 천천히 바이올린의 활을 당기기 시작했다.

고음악기의 청아한 선율이 밤공기를 타고 울려갔다.

마르코를 비롯한 몇몇사람들은 그 선율이 인경이 《인터니쇼날 크롭》에서 늘 즐겨부르던 노래, 조국은 장군님의 품이라는 그 노래임을 알았다.

마르코는 지금이야 자기가 이 조선처녀에게서 느낀 그 신비한 토양의 향기가 무엇인지 어렵듯이 깨달은듯싶었다. 순결하고 싱싱한 목란꽃이 피는 땅!

수령과 인민이 한집안식구처럼 다정한 나라!

그 어떤 새로운것, 허구한 나날 리상속에 찾아 뿔던 참되고 정의로운것이 분명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강한 의식이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 신비한 인식의 향불을 비쳐준 열정적인 조선처녀 정인경은 이밤 마르코에게 한없이 소중한 존재로 영원히 마음속에 새겨졌다.

(조선의 사회주의를 연구하자! 저 처녀의 조국을!)

그런데...

얼마후 마르코는 천만뜻밖에도 아버지가 림종에 처해있다는 비보를 받았다.

그처럼 건강하던 아버지가!...

그는 몇달후에 있게 될 졸업식을 마다하고 귀국하였다.

### 3

《저기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서거하시기 며칠전에 다녀가신 장원협동농장입니다.》

앞석에 앉은 안내원의 조용한 목소리에 마르코는 깊은 회억에서 깨어났다.

차창을 내다보니 눈썹리 아득하게 누런 벼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럼 이곳에 내가 그토록 찾던 정인경연구사가 있겠구만. 안내원선생, 그렇지요?》

마르코는 차에서 내려 생각깊은 눈길을 들었다.

마을로 들어가는 포석길 오른쪽에 갓 단풍드는 잎새들이  
소슬소슬 흔들리는 정자나무 두그루가 아지들을 펼치고  
나란히 서있었다.

이해 여름의 류레없는 온난기후에 주석님께서 저 나무밑  
에서 잠시 땀이라도 들이셨을까? !

어디선가 종합수확기의 고르로운 동음이 들려올뿐 고요  
한 들에는 그날의 아픈 사연을 안은듯 머리속인 벼이삭들  
만 무겁게 설레는데 문득 저만큼 떨어진곳에 유난히 노랑  
게 영글어보이는 벼포기들 사이에서 몸매가 호리호리한 한  
녀인의 모습이 보였다.

연회색 작업복을 가끈히 입고 머리에 가벼운 수건을 쓴  
그는 홀로 앉아 잘 익은 벼이삭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골  
라베고있었다.

저 녀인은 이곳 농장원이 분명할진대 7월의 그날 주석님  
을 마지막으로 만나보은 사람들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마르꼬는 가없는 이 들판이 안고있는 력사의 그 이야기를  
들을수 있을것 같아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에서 보니 30대에 갓 들어섰을 젊은 녀인이었다.

안내원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자 녀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순간 마르꼬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심장의 박동이 빨라졌다.

상큼한 코달, 자그마하면서도 유난히 광채가 뽀기는 까  
만 눈, 터갈라진 오동통한 입술, 반듯한 이마와 눈귀에 잔  
주름이 앓기 시작한 그 얼굴이 떠나올 때 안해가 한참 들  
여다보던 목란꽃속의 처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나 마  
르꼬는 자기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새겨진 그 시절 그  
처녀의 이목구비를 알아보았다.

틀림없다...

그는 두근거리는 심장우에 지그시 손을 올려놓으며 안내  
원을 돌아보았다.

《미안하지만, 유전학자 정인경씨가 아십니까?》

녀인은 깜짝 놀라 상대를 찬찬히 마주보았다.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아! 마리안느, 마리안느, 신은 이렇게 우리의 상봉을 마  
련했구려!)

마르꼬는 이 신기한 일이 환영이 아니기를 빌며 가슴을  
조이고 두눈을 습벅었다.

《나는 10년전에 유럽방문을 오신 **김일성** 주석님께 목란꽃  
을 드렸던 한 조선처녀를 기억하고있지요.》

연구사의 두눈이 점점 커졌다.

《아니! 마르꼬 데 멘도스가 아니예요?》

정인경은 그들이 대학시절에 통하던 그 나라 말로 소리  
쳤다.

《정인경, 정녕 당신이 옳구만!》

《마르꼬, 이게 꿈은 아니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내앞에  
나타났어요?》

마르꼬는 신의 조화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옆에 선 안내원은 너무도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 하여 멍  
하니 두사람을 바라보고있었다.

한손에 베어낸 벼단을 든 인경과 마르꼬는 갖가지 추억  
의 감동을 숨가쁘게 느끼며 걸었다.

《이렇게 만나게 될줄은... 아니, 이젠 정말 운명이요. 그  
냥 지나갈수도 있었으니까.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소.》

《당신도 변했어요. 마르꼬, 매력의 금발머리가 반백이 되  
셨군요. 참 생각나세요? 나를 속사하던 일이?》

《그래! 당신은 목란꽃쳐녀였지. 바로 그 목란꽃이 나에  
게 시대의 참된 진리를 깨우쳐주고 이 기막힌 사변의 세기  
적시점에서 나를 조선으로 달려오게 한 첫 선생이었소.》

그들은 두그루 정자나무아래 놓인 낮은 돌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마르꼬,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10년전 그때 동무들은  
당신이 집으로 돌아간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셨  
다구들 했는데... 마르꼬는 결국 유물론에 끝까지 감심하지  
못했다면서...》

《그렇소?! 아버지는 400년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고 가슴  
아파 눈도 못감으셨지만 그때 난 선뜻 성직을 이을 생각을  
못했소...》

마르꼬는 감회어린 정인경의 두눈을 마주보며 추억에 잠  
겼다.

...

10년전 그날.

마르꼬가 황동빛침탑들이 크리스도의 성상처럼 하늘을  
향해 쳐들린 십자형 팔기둥에 받들려 고색창연하게 솟은  
교회당뒤채의 자기 집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장  
례가 끝난뒤였고 그를 맞아준것은 고인의 가없는 손이 힘  
들게 남긴 유서 한장뿐이었다.

《...아들아! 진정한 력사, 인류의 선행과 번영의 력사는  
아직 이 땅에 시작되지 않았다.

돌아와다오. 내 아들아!

너를 대신해 내 병상을 마지막까지 지켜준 고마운 처녀  
마리안느와 함께 이 아비의 죄많은 령혼에 천주를 부어다  
오...》

유서를 움켜쥐고 오열에 떨던 그날부터 몇달이 지났으나  
마르꼬는 여전히 무정한 운명의 쓴 잔을 비우지 못했다.

아버지의 친지들은 그에게 부친의 유언대로 성직을 잇던  
가 아니면 젊은 학자로서 신학교수직을 택해야 한다고 권  
고하였으나 마르꼬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였으나 마음  
은 어쩐지 기울어진 기둥우의 가름목처럼 안정을 몰랐다.

더우기 그를 괴롭힌것은 만날 때마다 찌릿하게 안겨오는  
마리안느의 애수에 젖은 눈이었다.

어려서 랑부모를 다 잃고 먼 친척집에서 자라난 그 처녀  
의 슬픈 녀를 신의 품에 받아주고 친딸처럼 사랑해준 아버지,  
고결하고 인자한 엔도스목사를 이 세상 유일한 참회승  
으로 모시고 아버지처럼 따르던 마리안느가 목사의 고적한  
림종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라는것을 마르꼬는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처녀가 하늘처럼 파아란 커다란 두눈에 서글픈  
미소를 띄우고 그를 바라볼 때마다 마르꼬는 어쩐지 죄스  
러운 심정이 북받치며 가슴이 싸늘하게 얼어드는것을 느끼  
곤했다.

그는 불원간 떠날 사람이다.

마가울 찬비처럼 폐부를 깡그리 적신 그 모순의 불안을  
해소하려?

갈망의 항불을 찾아?

돌아오게 될가? 언제?

마르꼬는 정원의 야자나무가지사이로 젖줄기처럼 뿔어내  
리는 달빛아래 검은 옷을 입은 그 처녀가 홀로 서서 두손  
을 앞가슴에 모으고 커다란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모  
습을 아픈 심정으로 그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마리안느,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리별을 바라지 않았으니 마르꼬가  
표류선의 닻줄을 끊기도전에 동유럽을 휩쓴 《개편》, 《개  
혁》의 광풍은 사회주의의 좌절이라는 무서운 역사적 동란  
을 몰아왔다.

그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었다.

설마?!...

그러나 날마다 날아오는 에테르의 전파들은 마치 육중한  
자석이 흠어진 쇠붙이를 모아가듯 여지없이 그의 《설마》  
를 찾아갔다.

결국 의혹이 현실로 되였는가?

어느날 긴밤을 뜯는눈으로 새운 마르꼬는 누구에게 한마디  
예고도 없이 집을 떠났다.

한때 그에게 산뜻한 온대의 기후와 더불어 정답게 느껴  
지던 도시들은 스산한 설풍이 작은 요람을 앗아가는듯 파  
죽지세로 변해가고있었다.

아!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도대체 무슨 힘이 그 위대한것을 하루아침 사이에 이 지  
경으로 만들었는가?

파연 이것이 아버지의 원망을 뿌리치고 내가 찾았던 리  
상사회였던가?

한순간 (조선은?)하고 생각해보았다.

그 목란꽃처녀의 조국은 그가 알고있는 모든 색깔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띠고있는 나라임에는 틀

림없으나 그것도 머지 않아 이 무서운 《노아의 홍수》에  
말려들게 되겠지!

마르꼬는 목을 터쳐 절규하고 우주를 안고 몸부림치고싶  
었다.

(오! 무심하구나! 인류는 이렇게 영영 자기 번영의 최초  
화를 찾을수 없단 말인가!)

마르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정신상태가  
완전히 달라진것을 보았다. 그는 이미 방황과 환멸의 반  
생을 총화했던것이다.

그렇다,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는 과야킬종합대학 신학교수가 되었다.

그의 두뇌를 짝 채운 어제날의 유물론이 그의 신학적사  
고에 방해가 되였으나 마르꼬는 독경적인 교리와 엄정한  
교회적례식보다는 우주와 만물의 근본, 인간의 정신적조화  
를 연구하는데 관심이 높았다.

교수직을 수여받은 다음날 그는 마리안느와 결혼하였고  
어린 성자를 안고있는 마돈나의 초상을 그에게 결혼선물로  
주었다.

또다시 세월이 흘렀다.

갓 태어난 귀여운 딸애가 어머니가 흔드는 요람속에 누  
워 고이 잠든 어느날 처녀 마르꼬는 서재에서 오래전부터  
고심들여 써오는 자기의 논문 《우주의 온갖 힘에 대한 저  
술》의 마감부분을 놓고 생각에 잠겨있었다.

힘! 험악한 좌절의 광란이 한순간에 리상의 화초를 뿌리  
채 뽑아던지던 그날부터 그의 온 녀를 틀어잡은것은 바로  
창조와 파괴의 주인인 온갖 힘이였다.

아버지가 옳았다.

진정한 력사, 인류의 선행과 번영의 력사는 아직 이 땅  
에 시작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저서에서 뉴턴의 력학적힘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힘의 선의적가치를 부정했다.

인간의 창조적두뇌가 낳은 진보와 문명의 힘이 과연 인  
간 그자신을 키워주는 구원의 힘으로 된단 말인가?

작은것과 큰것과의 대립에서 큰것만이 힘으로 되고 그  
힘의 지배속에 인간의 자그마한 덕행의 가치는 과연 어디  
에 있는가?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모순의 근원을 지배의 주인  
으로 되는 이 검은 힘의 세력에서 찾으려 했다.

그는 넓은 백지우에 무거운 시선을 박고 조용히 앉아있  
었다.

가벼운 인기척에 눈을 돌려보니 어느새 들어왔는지 쏘파  
에 앉은 안해가 그의 화첩에서 조선처녀 정인경을 그린 연  
필화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유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한순간 엷은 미소가 마르꼬의 입가에 피여났다.

그것은 대학시절 그의 그림중에 유일한 처녀의 초상이였

던것이다.

사뭇 련련한 감정이 솟구치며 해빛이 아롱거리는 하얀 처고리를 입고 목란꽃을 안고 서있던 그 처녀의 모습이 또렷이 안겨왔다.

조선! 정인경이 것처럼 열정에 넘쳐 말하던 인민의 아버지를 모신 조선은 아직 사회주의를 지키고있다. 하지만 그 작은 동방의 조선을 겨누는 어마어마한 군사연습, 핵문제를 둘러싼 압력과 제재!

마르코는 대양의 얼음산이 통채로 그 아름다운 목란꽃동산에 내려앉고 오동통한 입술을 가진 귀여운 처녀가 경악하며 몸부림치는 끔찍한 광경이 문득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그는 불길한 환영을 밀어버리듯 부르르 떨리는 손에 만년필을 부서지게 틀어잡고 저술의 마감부를 써나갔다.

《뽀짝 빼라도의 전횡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수난의 역사가 공인된 때로부터 200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악의 힘, 전횡의 검은 힘이 승리를 낳고있고 고상한 성덕의 힘, 인간사유의 아름다운 선의 힘은 가냘픈 어린이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의 종말은 그 어떤 자연적인 불상사때문이 아니라 바로 신이 창조한 그 사람들이 신이 준 사유의 힘으로 서로 용허하지 않는 그 싸움때문에 그리고 남의 피로 찬양되는 그 승리때때문에 오리라!》

그는 이교인 이슬람교경전 《코람》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것으로 저술을 끝맺었다.

《백톤의 승리보다 한그람의 평화가 더 무거운 법이다!》

다음날로 마리안느는 남편의 논문초안을 여러부로 타자해주었고 그것을 읽은 어떤 사람들은 서둘러 삼광술의 요란한 폭음으로 성공을 축하하기까지 하였다.

초고를 받은 단 한사람, 썬 마르코스대학 동창생인 빼루의 워프르 라블레르에게서만 오래동안 소식이 없었다.

바로 그무렵, 세계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터진 폭탄선언을 받아안았다.

**김정일**최고사령관 전국에 준전시상태 선포!

조국의 한치땅도 제국주의군화발에 짓밟히지 않으리라! 우리의 총창우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

그것은 지구행성에 던진 사상 가장 장엄한 평화선언이었다.

전쟁은 어느 순간에?

세계의 각이한 마음들과 함께 마르코는 침식도 잇다싶이 조선을 주시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조선은 이겼다. 초대국이 무릎을 꿇고 담판장에 끌려나왔다.

그것은 승리였다.

눈물을 머금고 만세를 불러야 할 위대한 정의의 승리였다.

조선의 이 사변은 이미 끝점을 찍은 그의 저술에 의혹의 질은 그림자를 던져주었다. 이 위대한 힘은 분명 승리의 힘이며 진리의 힘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가 론한 온갖 힘의 련쇄환에서 어느 고리에 속하는것인가?

마르코는 갈수록 오리무중에 빠져들어가는 사색의 실마리를 잡으려고 헛되이 애쓰며 피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기다리던 빼루의 친구에게서 회답이 왔다.

《마르코, 그토록 시대의 진리와 인류의 리상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바치던 자네가 결국 이런 글을 쓰다니...

난 믿어지게 않네.

세계를 창조하는 인간의 무한한 힘을 자넌 멸망의 필연점에 놓여있는 무지한 악덕의 보잘것 없는 검은 손아귀에 밀어넣었구만.

자신의 헌신적인 반생을 그런 글로 총화하다니...

동유럽사회주의가 무너졌다고?

자네도 이번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보았지? 그래도 검은 힘의 지배를 고집하겠나?

우리 시대 인류는 이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의 기치 따라 자주의 길로 나가고있네. 주체사상을 연구하게. 자네는 현시대의 참된 철학, 인간해방의 위대한 기치를 보게 될거네...》

주체사상! **김일성**주석! 조선!

어딘가 멀리 질은 안개속에서 밝고 명룡한 등불이 보인다. 찬바람이 불고 구름이 물려와도 꺼지지 않고 반짝이는 등불이...

마르코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눈을 감았다.

한적한 교외를 달리는 구급차, 목란꽃나무를 꼭 그려내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몸매 자그마한 그 처녀.

이국땅에서 그렇게도 그리던 **김일성**주석님의 품에 안겼던 그날 목메여 울던 그 갈린 목소리, 밤공기를 타고 울리는 바이올린소리.

아! 그밤의 밝은 등불이 이렇게 다시 나의 운명에 비쳐 들었구나!

어쩐지 오래동안 무집던 심신이 재생의 정화수를 마신것처럼 거뽀해졌다.

그는 즉시 **김일성**백과전서 출판에 참가했던 국회의원 엘레아르도박사를 찾아갔다.

조선을 여러차례 방문하고 **김일성**주석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닌 박사와 함께 한밤을 지새고 돌아온 그는 **김정일**원수의 저서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탐욕스레 읽고 또 읽었다.

주체사상!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

아! 수수천만년 신의 전지전능에 운명과 운명을 의탁하고 구원의 두손모아 기도를 드린이 그 얼마이며 구원되지 않는 운명을 신의 의지로 여겨 순종하여 꺼져버린이 그 얼마이냐!

마르코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을 바치신 인류의 최고리념이 승리하는 광명의 그 길을 저는 오늘에야 찾았습니다.

주체사상! 그것은 음울하고 고적한 성당이 아니라 해빛 밝은 학교와 가정들, 도시와 농촌, 정치와 경제, 문화에서 설교되고 찬양되고 관통되어야 할 우리 시대, 미래시대의 유일하고 정의로운 성서입니다!...)

마르코는 바로 오늘에야 사랑하는 아들의 방황하는 넋을 두고 인도의 신을 부르며 외롭고 쓸쓸하게 운명한 아버지의 못감은 두눈을 자기가 정히 감겨드린것 같은 엄숙하고 다행한 심정이었다.

그때로부터 주체사상 탐구의 1년남짓한 기간, 그것은 이미 그 무엇에도 쉬이 흥분되지 않고 회의와 묵시로 인박한 그의 리성과 심장을 마구 흔들어 격동시킨 나날이었다.

시대의 참된 진리를 찾아 십자가의 숙명을 뿌리쳤으나 성실한 유물론자도 되지 못했고 환멸과 절망의 눈물을 뿌리며 운명에 머리숙였어도 독실한 신자가 못된 인식의 수난자 마르코 데 멘도스는 드디어 인류미래의 최조화를 찾았다.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마르코는 갈수록 풀길없는 모순과 불만을 자아내던 대학 시절의 유물론을 생각했다.

인간을 포함한 물질세계의 변화발전, 지배와 예속, 계급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운동, 그것이 과연 어떤 힘에 의하여 추동되는가?

유물론자 뉴턴도 《그 시초의 힘은 혹시 <신>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다고 한다.

인간과 사회, 그 운동의 주체를 보지 못한것, 바로 이것이 위대한 10월을 낳은 유물론철학의 제한성, 오늘의 무서운 좌절을 낳게 한 비극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의 명도를 받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의식의 힘!

바로 이 힘이다! 내가 그토록 찾으려 애쓰며 실망과 고뇌에 짓눌려 좌우경멸의 붓을 달리던 바로 그 힘!

그 나날 그는 몇번이고 이미 종이가 누렇게 퇴색하기 시작한 옛시절의 연필화를 꺼냈다.

(정인경! 나는 늦게나마 주체사상 신봉자가 되었소. 대학 시절 나에게 그토록 신비하게 느껴지던 당신의 그 류다론

토양의 체취, 그것이 무엇인지 내 인제야 똑똑히 알게 되었소. 당신이 그밤 나에게 비쳐준 그 향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내 마음속에 언제나 안겨있었다는것을 나는 너무 늦게야 알았소. 고맙소, 정인경!)

커다란 야자나무 열매들이 통통하게 불어나며 익어가던 6월의 어느 습윤한 저녁.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김일성** 주석님과 상봉하는 모습을 텔레비존 시사보도를 통해 보고 난 마르코는 마치 감전된듯 오래동안 한자세로 앉아있었다 .

수백년동안 지배의 야망속에 세상에 큰소리만 쳐오던 대국의 고위정객들마저 저토록 단 한번의 상봉으로 그이의 사상과 신념에 매혹되고 그이의 의지와 담력에 넋을 빼앗기게 되는 이 사실!

그이는 정녕 신이 아닌 인간임에 틀림없는데 어찌하여 그리도 전지전능하신가!

나도 가자! 그분을 뵈우려 가자!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무르익혀오던 생각이 드디어 결심으로 굳어졌다.

그는 안해에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마리안느는 한순간 놀라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나직이 말했다.

《마르코, 때로 전 당신의 그 목란꽃처녀가 운명의 신이 당신에게, 아니 우리 가정에게 보내준 행복의 천사라고 생각돼요. 당신의 고뇌한 얼굴에 언제 지금처럼 즐거운 흥분이 어린 때가 있었나요? 전 철학은 모르지만 당신의 그 모습을 통해 **김일성** 주석님의 주체사상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학설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마르코, 조선에 가면 꼭 그 처녀를 찾아 저의 진심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찾을수 있을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꼭 찾아보세요. 전 어쩐지 신이 당신들을 반드시 만나게 해줄것만 같아요. 당신은 꼭 그 처녀에게 감사를 표해야 해요.》

마르코는 그윽한 감동이 어린 눈으로 안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마르코의 출국준비가 거의 끝나가던 어느날,

무변광대한 태평양과 세상만물이 더 물이 된듯 전례없이 숨막히는 적도의 무더위에 평원의 열대림이 진처럼 녹아내리던 그날!

돌연 하늘의 태양이 꺼지고 온 행성에 칙칙 어둠이 몰려왔다.

죽은듯 잔잔하던 태양이 노호하고 밀림은 찢어지게 곡성을 터뜨렸다.

마르코는 그것이 꿈이기를 믿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200년전 바로꼬건축의 유물인 종합

대학청사에 조기가 띄워지고 우주공간 사방처처에서 조문의 전파가 조선을 향해 날았다.

아! 정녕 이 기막힌 소식이 꿈이 아니었는가?

그처럼 위대한 심장도 멎는가?

...

정인경은 오동통한 입술을 꼭 다물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며 그린듯이 앉아있다.

마르코는 말을 마치고 그 녀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지금 그의 옆에 있는 정인경은 기나긴 추억의 갈피마다 그를 조선이라는 신비한 나라와 잇닿게 해준 그 연필화의 주인공과는 너무도 비슷하지 않은 그 어떤 새로운 여성인듯싶었다.

마르코는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이 괴여올랐다.

그는 이 며칠간 낮과 밤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만수대의 흐름을 생각했다.

그날의 목란꽃처녀는 의례 주석님가까이 달려가 애도행의 선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경은 여전히 말이 없다.

《정인경, 난 인류의 가장 큰 비애가 묻히는 만수대의 언덕에 목란꽃을 드리는 당신을 보리라 생각했었소. 이국땅 멀리 오신 주석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수백리길을 달려 목란꽃을 구해다 곁에 피웠던 당신이 아니었소! 그런데 비분의 곡성이 천지를 동감한 이때 당신은 이렇게 한적한 들에서 일을 하고있구만.》

정인경은 그냥 어딘가 먼 그곳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조용히 말했다.

《마르코, 나도 그 기막힌 7월의 밤마다 만수대로 달려갔어요. 설맞이무대에서 만나셨던 한 어린 소녀를 8년이 지난 그날까지 잊지 않으시고 이국땅 멀리에서 그처럼 은정깊이 안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그리워 아버지를 부르며 울고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눈물만으로 어찌 이 무서운 슬픔을 가실수 있고 수령님을 잘 모시지 못한 죄책을 씻을수 있겠나요? 청천벽력같은 이 사변은 우리 조선사람들모두를 그 어떤 비장한 인간들로 만들었어요. 난 그동안 생물학 준박사가 되었지만 몸도 편치 않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서거하시기 며칠전까지도 바로 이 포전길을 걸으시며 농사일을 걱정하시게 만든 죄많은 학자들중의 한사람이에요.

아! 이 새 품종이 한해만 빨리 성공해서 수령님께 이 크고 무거운 벼알을 보여드렸더라면...》

인경은 안고있는 벼단을 손으로 쓸어만졌다.

《마르코, 이젠 성공했으니 그날의 약속대로 수령님께 제 일 먼저 알려야 하지 않겠나요. 그래서 난 이렇게 알찬 이삭을 고르고있어요.

10년전 그날엔 수령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목란꽃다발을

드렸던 내가 오늘은 그이께서 영영 농사시름을 놓으시게 벼다발을 드리려고말이에요요, 벼다발을...》

인경은 흐느꼈다. 붉은 눈물방울이 그의 손등과 벼알에 푹푹 떨어졌다.

세찬 충격이 마르코의 심장을 때렸다.

그는 정인경의 손에서 벼단을 정히 받아안았다.

(그날의 목란꽃다발! 오늘의 벼다발!

이것은 세상 가장 신성하고 참된 충효성의 체취,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는 흥분된 눈길로 정인경의 터갈라진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당신은 얼굴이 그렇게 축가면서...》

《제 몸이 다 뭐겠나요? 우리들 마음이 아무리 갈라터진들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 안으신 그 모진 아픔에 어이 비기겠나요! 우린 이제 일을 더 잘해서 귀중하신 장군님께서만은 더는 험한 들길을 걷지 않으시게 해야 해요. 이것은 만고의 지통을 당한 우리 인민의 의지요요.》

《정인경, 당신은 정녕 그날의 목란꽃처녀요. 10년전 신의 각별한 자애가 깃든것 같던 당신의 그 향기, 그것은 신이 아니라 위대한 인간, 위대한 수령의 자애이고 이 신성한 목란꽃나라의 고결한 숨결이요. 어서 감시다. 소원의 그 벼다발을 더 크게 만들어 이 길로 우리 함께 주석님께로 감시다.》

×

무거운 벼단을 소중히 안은 정인경과 마르코를 태운 승용차는 어느덧 수도 평양에 들어섰다.

이미 하늘엔 유난한 저녁별이 반짝이고 여기저기 못별들이 하나둘 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야음이 깃을 퍼지 못하는 도시! 무거운 애도와 세기적비분의 파도가 끓어질줄 모르는 이 도시는 대낮처럼 밝다.

저 멀리 활활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의 봉화가 보인다. 좌절의 불가강변에도, 적도의 열대림에도, 아니, 온 세상, 온 우주를 찬란히 비치는 주체의 해불! 마르코는 세상에 대고 웨치고싶었다.

그 모진 세월의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조선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힘은 바로 주체를 리념으로 맺어진 수령과 인민간의 혈연적관계, 이 전대미문의 일심단결이다.

인류복지의 공산사회는 바로 저 해불을 따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식으로 건설될것이다.

마르코는 차창으로 불빛 환한 대공에 거연히 서서여 온 세상 인민을 한손 들어 부르시는 위대한 주석님의 동상을 우러러보았다.

저분의 위대한 사상, 예지의 천기, 그 자애의 성덕! 바로 그것이 이 나라 인민을 이렇듯 위대하고 강직하고 아름다운 인민으로 만들었다.

이 땅의 죄악과 불행을 제 한몸의 수난으로 제거하려 했던 예수의 그 희생적인 교리가 수천년동안 이루지 못한 바로 그것을 주석님은 한세기도 못되는 기간에 이 세상 처음으로 현실로 만드셨다.

세인이여! **김일성** 주석님은 우리 시대, 미래시대를 구원

하실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인류는 바로 그이의 사상과 리념을 안고 그이 모습 그대로이신 **김정일** 지도자님을 받들고 새 세기를 향해 나갈것이다.

아! 나는 목란꽃속에 태양의 미소를 뿌리시며 가신 그 거룩한 모습을 영원히 이 심장속에 간직하고 위대한

**김일성** 복음을 온 세상에 전도하는 주체의 사도가 되리라!

## 너는 무엇을 속삭이느냐

황성하

밝아오는 노을을 바라보듯  
고대하던 련인을 마중가듯  
소리없는 희망에 가슴 부풀어  
새해여 나는 너를 맞는다

왔구나 새해여 너는 왔구나  
내리는 흰눈을 허끝에 받아보며  
까르르 웃음 쏟는 처녀들속으로  
폭신한 솜외투 복스럽게 펼쳐입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아이들속으로

더 힘차게 이 땅을 두드릴 발구름소리  
이 땅에 더 높이 나뭇길 붉은기  
더 벅찰 생활의 음향속으로  
더 높이 울릴 우리의 노래속으로  
너는 왔구나 새해여

돌아보는 이 마음에  
눈물도 많았고  
맹세도 드높았고  
신념도 굳었던 지난해를  
뜨겁게 추억하며  
새해여 끝없이 속삭이는 너의 목소리

흐르는 물결도 송엄한  
금수산기념궁전  
마음속의 성지로 속연히 오르며  
내 가슴속에 무엇을 새겼던가를

너는 뜨겁게 속삭이느냐

너는 속삭이느냐  
10월의 높은 하늘가에 머리쳐든  
마치와 낫과 붓이  
천만년에 영원할 우리 당의 맹세였음을,  
새로 열린 청류다리, 금릉2동굴이  
끝없는 우리 행복의 영원한 약속임을,

새해여 너는 속삭이느냐  
그옥한 꽃향기로 이 가슴을 채워주고  
불타는 열정으로 이 가슴을 불태워  
내 시줄들을 더 풍성히 해주리라고  
유치원 팔아의 손을 잡고 가는 내 앞길에  
더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리라고

우리 땀을 쏟아 가꾸는 이 땅의 산과 들이  
황금나락 열매를 안아오리라고  
남녘고향을 그리며 잠 못드는 내 어머니에게  
통일의 러명을 실어오마고

위대한 태양이 눈부신 나라  
그 태양의 빛발속에  
노래도 많고 웃음도 많은 인민이  
신심에 넘쳐 나아갈 새해여  
가장 찬란한 미래는 우리의것이라고  
너는 속삭이느냐  
너는 속삭이느냐

## 행복을 가꿔가는 사람들

리종성

행복은 자기의 땀을 바쳐 가꿀 때 더욱 공고하고 아름다  
운것으로 되는 법이다.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만수대언덕에서 듣고 현  
관문앞에 이르렀는데 앞집 철이네 온 가족이 손에 꽃송이  
와 함께 묵직한 가방과 구력들을 들고 마주 나오는것이였  
다. 나는 그들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어디로 떠나는 길인가  
고 물었다. 그랬더니 철이 엄마가 생긋이 웃으며 철이 아  
버지가 새해 첫 승무의 길에 오르기에 배웅하는 길이라고  
했다. 평양 기관차대에서 혁신자로 소문난 기관사였다.

나는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운행길에 나서는 그가 돋보  
여 머리를 숙이며 정말 수고가 많겠다고 거듭거듭 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그는 인상적인 옥이를 드러내고 싱긋 웃으며  
말했다.

《천리길도 한걸음에 시작된다고 새해 첫날부터 나라의  
동맥을 지켜가는 우리가 활기차게 달려야 조국이 더 부강  
해질게 아닙니까. 나날이 젊어지고 부강해지는 조국의 번  
영속에 나의 행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멀어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우는 나의 귀전에서 그의  
목소리가 그냥 감돌며 지워질줄 몰랐다.

나날이 부강해지는 조국의 번영속에 나의 행복도 있다고  
한것은 그의 진심의 소리였다. 자신의 기쁨도 행복도 조국  
이란 큰 품속에서 찾을줄 아는 사람, 앞뒤집에 살며 평범  
하게 대해왔던 그가 그 순간엔 한없이 돋보였다.

말없이 조국을 받들며 조국의 동맥을 지켜가는 그와 같  
은 사람들이 남들은 다 자는 깊은 밤에도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어가고 단편소설 《백일홍》의 주인공들과 같은 사람들

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두줄기궤도를 지켜가는것이라.

깊어가는 생각속에 영화의 한장면이 눈앞에 떠오른다.  
해방직후 평양철도공장에 나가시여 우리 로동계급들앞에서  
철도의 중요성을 놓고 간곡히 말씀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전후 우리 나라에서 전기기관차가 나오  
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던 서방기술자들의 궤변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손으로 만든 전기기관차에 《붉은기》  
호라고 이름을 달아주시며 환한 웃음을 지으시던 수령님의  
모습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결을 떠나시기직전에도 철도수  
송문제를 두고 얼마나 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던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철도때문에 것처럼 심려하시며 철도의 전  
망문제를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이시고 그 유훈을 받은 철  
도일꾼들이기에 세상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행복  
을 누리는 설명절에도 저처럼 운행길을 혼연히 가는것이라.  
라.

나에게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동서해안의 모든 철도로  
선들에서 힘있게 울리는 기적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고 이  
한밤에도 자기 초소를 지켜 푸른 신호등을 들고 웃음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다. 이제 저들이 가는곳에  
서는 또다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날것이며 인민의 기쁨이  
웃음으로 넘칠것이다.

나는 조국과 더불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가꿀줄 아는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뜨거운 경례를 보냈다.

하늘의 못별들도 새해 첫 운행길에 나선 그들을 축복해  
서인지 검푸른 바다에 금모래를 뿌린듯이 더욱 반짝거리며  
빛나고있었다.